

# 東學農民革命

## 新發掘資料 學術大會 論文

2006년 1월 제 1 집

---

### 논 문

|                              |                         |
|------------------------------|-------------------------|
| 진도지방의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 ..... | 박맹수(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5     |
| 토론내용(1) .....                | 63                      |
| 사발통문에 대한 제 고찰 .....          | 조광환(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71 |
| 토론내용(2) .....                | 107                     |
|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연구 .....     | 송만오(전주대 역사학과 교수) 119    |
| 토론내용(3) .....                | 149                     |
| 전봉준장군의 가계 및 출생지 연구 .....     | 송정수(전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161  |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6758



30  
전  
/

<8

東 學 農 民 革 命  
新 發掘資料 學術大會 論文

2006년 1월 제 1 집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발 간 사

오늘 반외세, 반부패, 반봉건의 가치를 높이 치켜들고, 난국을 개혁하고자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11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보는 학술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애써 오신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동학농민혁명 신발굴자료 학술세미나”는 학계와 관계 및 언론계를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학회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정리한 사료관을 준비하는 전초의 단계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신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선구자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신사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및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이 인 제



# 東學農民革命

## 新發掘資料學術大會論文

2006년 1월 제 1 집

---

### 논 문

|                              |                         |
|------------------------------|-------------------------|
| 진도지방의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 ..... | 박맹수(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5     |
| 토론내용(1) .....                | 63                      |
| 사발통문에 대한 제 고찰 .....          | 조광환(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71 |
| 토론내용(2) .....                | 107                     |
|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연구 .....     | 송만오(전주대 역사학과 교수) 119    |
| 토론내용(3) .....                | 149                     |
| 전봉준장군의 가계 및 출생지 연구 .....     | 송정수(전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161  |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1. 진도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의 진상

-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을 중심으로 -

### (1) ‘유골방치사건’의 개요

1995년 7월 25일 일본 北海道大學(홋카이도대학) 文學部 古河(후루카와) 강당 인류학교실 舊標本庫 정리 작업 중에 현 신문에 싸여 종이상자에 넣어진 채로 나무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의 두개골 6구가 발견되었다.<sup>1)</sup> 이 6구의 두개골 속에는 놀랍게도 “1906년 9월 20일, 全羅南道 珍島에서 佐藤政次郎(사토 마사지로)가 ‘採集’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들어 있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sup>2)</sup> 1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구를 포함한 6구의 두개골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구표본고 정리 작업을 위해 고용되었던 아이누민족 인부 한 사람이 현장을 목격하여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인 ‘아이누민족에 관한 인권계발 사진판넬전 실행위원회’ 대표 山本一昭(야마모토 카즈아키) 씨에게 제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의 두개골이 방치된 현장을 목격한 아이누민족 인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야마모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즉각 일본의 3대 일간신문의 하나인 『毎日新聞(마이니치신문)』에 알렸으며, 『毎日新聞』은 동년 8월 3일자 朝刊에 특종 보도함으로써

※ 이 논문은 진도군청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봉안을 위한 학술연구 및 역사공원 조성계획」에서 용역한 최종보고서입니다.

1) 『毎日新聞』 1995년 8월 3일자 朝刊, 『北海道新聞』 1995년 8월 3일자 夕刊 北海道大學文學部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調査委員會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報告書』(1997年7月), 1쪽 참조.

2) 발견될 당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은 두개골뿐이었으나 이 글에서는 ‘유골’이라 칭하기로 한다. 또한 6구의 두개골 방치사건을 ‘유골방치사건’이라 부르기로 한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3)</sup>

‘유골방치사건’이 일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건의 파문이 크게 확산되자 구표본고가 있는 古河講堂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골이 발견된 직후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調査委員會’(이하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라 약칭함)를 설치하여 6구의 두개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게 된 경위를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하였다.<sup>4)</sup>

홋카이도대학 측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적 대응에 나섰던 배경에는 ‘유골방치사건’을 일간지에 제보하여 일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하여, 民團系인 재일청년동맹 홋카이도지구본부, 總連系인 조선총련 홋카이도본부, 주삿포로 한국총영사관 등 두개골 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국과 북한 측의 진상규명 요구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관련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었다.<sup>5)</sup> 그런데 6구의 두개골 가운데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1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8월 4일이었다.<sup>6)</sup> 『한겨레신문』과 KBS 등의 보도를 통해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 소식을 접한 국내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사단법인 동

3) 이 ‘유골방치사건’은 『毎日新聞』 외에도 『北海道新聞(홋카이도신문)』, 『朝日新聞(아사히신문)』,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日本經濟新聞(니혼케이자이신문)』, 『赤旗(아카하타)』, 『共同通信(교도통신)』 등의 보도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4) 앞의 주1)에 인용된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 1쪽.

5) 『飛騨』 11號(1996년 6월, つぶて書房, 神戸)에 실린 『北大人骨事件と日本侵略史』라는 主題의 特輯 기사 참조. 이 특집 기사 속에는 北海道大學文學部の 『中間報告書』發表前後 事件의 真相 糾明을 위해 活動했던 <北大人骨問題の真相を究明する會>의 共同代表인 재일동포 林炳澤 氏의 기고문, 아이누민족 인권운동 리더들인 야마모토 카즈아키(山本一昭) 氏와 오가와 유키치(小川隆吉) 씨와의 대담 등을 실고 있다.

6) 한국에서는 1995년 8월 3일자 일본 共同通信의 『朝鮮民族などの人骨放置』라는 제목의 기사를 받아 보도한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4일자의 『동학지도자 유골 일본서 발견』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당시 이사장, 한승헌), 천도교 중앙총부(당시 교령, 김재중), 전라남도 진도 향토사 연구자(박주언) 등이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진상규명 및 동학군 유골의 국내봉환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sup>7)</sup> 이로써 홋카이도대학에서 일어난 ‘유골방치사건’은 일약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유골방치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본 국내·외로부터 동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 및 유골봉환 등의 요구를 받은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전라남도 진도, 목포를 비롯한 한국 각지의 현지조사<sup>8)</sup> 내용을 포함한 중간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1996년 4월에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調査委員會 中間報告書』(이하 『중간보고서』라 약칭함)를 공표하였다. 『중간보고서』에서 동 대학 조사위원회는 동학농민군 유골 속에 들어 있던 ‘첨부 문서’를 단서로 삼아 유골의 주인공이 전라남도 진도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였음을 최종 확인하고, 1996년 5월 30일에 동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였다.<sup>9)</sup>

『중간보고서』공표 및 유골의 한국봉환 이후에도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작업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제 2차 한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그 같은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1997년 7월에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이하 『최종보고서』라 약칭함)를 공표함으로써<sup>10)</sup> 공식적인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7) 한국 외교통상부는 주삿포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8월 7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8월 19일에 진상규명 및 유골봉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8) 이 현지조사는 1995년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인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와 동 조사보조원 이노우에 카오리 특별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9)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비교적 단기간 안에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었던 것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를 비롯한 한국 측 관련단체의 강력한 봉환 요구 때문이었다.

10) 이하 본문 인용의 경우 『최종보고서』 몇 쪽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종료하기에 이른다.

1997년 7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2년여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한 『최종보고서』는, 1906년 9월 20일 전남 진도에서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가 ‘채집’ 한 동학농민군 유골의 주인공이 40대의 한국인 남성으로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1894년 12월말이나 1895년 1월초에 희생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의 최남단 전라남도 진도로부터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될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반출반입 경위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남도 진도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부 확인하는 성과는 거두었지만, 그들 지도자 가운데 누구의 유골인지는 끝내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그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과 함께 발견된 사할린 일대의 소수민족인 월타민족<sup>11)</sup>의 유골 3구를 비롯한 나머지 5구의 유골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침으로써 사할린과 홋카이도에 現住하고 있는 월타민족 지도자를 비롯하여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과 아이누민족 등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진상조사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sup>12)</sup>

홋카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국내 관련단체 및

11) 사할린 일대에 거주하는 북방 소수민족의 하나. 월타민족에 대해서는 田中了 『サハリン北緯50度線』(東京 `草の根出版會`1993年) 参照.

12) 월타민족 등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는 결국 최종보고서 공표이후 진상조사 작업을 종결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3월 월타민족 유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정리한 『古河講堂 舊標本庫 人骨問題 報告書 II』(홋카이도대학 문학부 후루카와강당 구표본고 인골문제 조사위원회)를 공표하기에 이른다.

연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덕분에 비교적 단기간 안에 국내 봉환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의 유골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유골은 고향인 전라남도 진도로 봉환되지 못하고 전북 정읍시 황토현 기념관 사당에 임시 안치되는 불완전한 봉환에 그치고 말아 고향으로의 완전 봉환은 숙제로 남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세기 이상 경과한 1995년 7월에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에서, 그것도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 식민지배를 뒷받침해 왔던 舊帝國大學의 후신인 北海道大學 문학부 인류학교실 구표본고 한 구석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발견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개골을 이른바 ‘採集’이란 이름으로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입하도록 만든 역사적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둘째 ‘視察’을 빙자한 日帝의 식민정책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어떠했으며, 1876년 開港 이래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視察’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셋째 전라남도 진도 현지에서 불법으로 ‘採集’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어떤 경로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며, 반출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일본 최북단의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기까지 홋카이도 대학 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넷째 1894년 12월말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일본군이 진주한 상태에서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처형당했는데, 이들 동학농민군 처형 및 진압의 진상은 과연 어떠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저지른 일본군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 책임은 무엇인가?

다섯째 전라남도 진도는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한 ‘棉花栽培事業’의

주무대가 되며, 동 사업을 지도·감독하던 통감부 하급관리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에 의해 동학농민군 유골이 불법 ‘채집’되어 반출되기에 이른다. ‘면화재배사업’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던 일제의 조선침략 실상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상과 같은 복잡다기하면서도 중대한 학문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방치사건’은 필자가 영산원불교대학교(靈山 圓佛敎大學校, 현재는 靈山 禪學大學校로 개명하였음)에 재직하고 있던 1995년에 일어났다. 당시 필자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sup>13)</sup> 학술간사도 兼務하고 있던 때여서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1995년 8월 4일 직후부터 ‘유골방치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우리 측의 진상조사는 1996년 2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승현 변호사와 함께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하여 동 대학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경과를 청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sup>14)</sup> 필자는 특히 1996년 5월에는 동학농민군 유골 국내봉환단의 일원으로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동 대학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동학농민군 처형 및 진압에 대한 일본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97년 7월에 공표된 홋카이도대학의 『최종보고서』는 우리 측의 요구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13)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민간단체로서 1992년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14) 「遺骨返還など求め北大訪問、放置問題で韓国關係者」(1996년 2월 5일 `日本 共同通信發) 參照。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유골방치사건’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 측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도일(渡日)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만 4년 동안 홋카이도대학에 체재하면서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중간보고는 그간의 진상규명 작업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의 일부이자,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인골문제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중의 1인이자 필자의 홋카이도대학 유학시절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井上勝生(이노우에 가츠오) 교수, ‘유골방치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홋카이도대학 교육학부의 특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井上 교수의 진상조사 작업을 도왔던 釧路(쿠시로)短期大學의 井上 熏(이노우에 카오리) 교수, ‘유골방치사건’을 일간지에 최초로 제보했던 아이누민족 인권운동가 山本一昭(야마모토 카즈아키) 씨, 아이누민족 인권운동단체인 ‘피리카 전국회의’ 사무국장 白川 ただし(시라카와 타다시) 씨, 홋카이도에서 제일 동포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林炳澤 씨 등으로부터 귀중한 敎示와 전면적인 협력, 방대한 분량의 사료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협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 (2) 진상규명의 단서가 된 ‘첨부문서’

1995년 7월 25일, 6구의 두개골이 발견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古河강당 구표본고를 오랜 기간 사용했던 인물은 동 대학 문학부 인류학교실을 1995년 3월 말에 퇴직한 吉崎昌一(요시자키 마사카즈) 라는 인물이었다.<sup>15)</sup> 그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후루카와 강당으로 옮겨오기 전부터 6구의 두개골을 보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15) 1995년 3월말 북해도대학을 퇴직한 요시자키 마사카즈 씨는 북해도국제정보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했으나 현재 단계에서 퇴직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인정하면서도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두개골을 인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증언을 거부하였다.<sup>16)</sup> 유골의 출처와 유래를 비롯하여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된 과정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건당사자 요시자키 씨의 비협조 때문에 동 대학 조사위원회는 6구의 두개골이 어떤 경로로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할 만한 단서는 거의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sup>17)</sup>

이리하여 진상규명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겨우 다섯 구의 두개골 각각에 붙어 있던 글씨가 쓰인 쪽지(<사진-1 참조>), 나머지 1구에 쓰여 있는 “한국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한다, 佐藤政次郎으로부터”라는 붓글씨(<사진-2 참조>), 그리고 그 붓글씨가 쓰여 있는 두개골 大後頭孔 속에 들어 있던 ‘髑髏(해골-필자)’라는 제목의 「첨부분서」 뿐이었다.(<사진-3 참조>) 6구의 두개골의 출처와 유래를 규명할 만한 유일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 동학군 유골 「첨부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축루

명치 39년(1906년: 필자) 9월 20일 진도에서

명치 27년(1894년: 필자) 한국동학당 봉기가 있었다.

全羅南道 珍島는 그들이 가장 창궐했던 곳이었는데, 그들을 평정하고 돌아올 무렵에 그 수창자 수백 명을 죽여서 시체가 길을 가로막고 있을 정도였다. 수괴자(首魁者)는 효수하였는데 이 축루는 그 가운데 하나로 그 섬을 視察할 때 採集한 것이다.

16) 『최종보고서』 8-9쪽. 필자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요시자키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7) 『중간보고서』 참조.

佐藤政次郎

(이상 고딕은 필자)

유골 표면에 “한국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한다. 佐藤政次郎(사토 마사지로)로부터” 라는 붓글씨가 쓰여져 있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속에 들어 있는 이 「첨부문서」에는 이 유골이 ‘명치 39년(1906년) 9월 20일’에 ‘全羅南道 珍島’를 ‘視察’하는 과정에서 ‘佐藤政次郎(사토 마사지로)’이라는 인물에 의해 ‘採集’되었으며, 채집 시점으로부터 12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명치 27년 한국동학당 봉기’, 즉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首魁者’ 즉,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것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사진 1. 1995년 7월 28일 촬영,  
야마모토 카즈아키씨 제공〉



〈사진 2. 1995년 7월 28일 촬영,  
야마모토 카즈아키씨 제공〉



〈사진 3. 1995년 7월 28일 촬영,  
이노우에 카츠오교수 제공〉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골 속의 「침부문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유골을 채집했는지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 형식은 유골의 채집자가 사람의 두개골을 채집하는 방법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즉, 「침부문서」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결코 ‘우연하게’ 채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두개골 채집과 관련된 인류학적 지식과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익히고 있었던 인물에 의해 ‘의도적’으로 채집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표면에 쓰여진 내용과 똑같이 「침부문서」 맨 마지막에도 ‘佐藤政次郎’이라는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유골 ‘채집’ 당시 채집자 혹은 채집자로부터 유골을 인수받은 자가 채집자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채집된 유골 표면, 또는 유골 「침부문서」에 채집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것 역시 유골 채집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유골 채집과정 및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채집자 또는 채집자로부터 유골을 인수받은 자가 사전에 인류학적 지식·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흔적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바로 이 ‘佐藤政次郎’ 이란 이름을 근거로 삼아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채집했던 자가 바로 홋카이도대학 전신인 札幌農學校(삿포로 농학교) 제 19기 졸업생임을 밝혀내기에 이른다.<sup>18)</sup>

유골 「첨부문서」 및 유골 표면에 쓰여 있는 ‘佐藤政次郎’ 이라는 인물에 의해 일단 채집된 동학군 유골은 또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초의 채집자인 사토 마사지로와 사토 마사지로로부터 유골을 전달받는 인수자 사이에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수수(授受)되는 시점은 「첨부문서」 및 동학군 유골 표면 등 두 곳에 쓰여진 ‘한국(韓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는 1910년 8월 29일의 ‘한국병합’ 시점으로부터 그다지 머지않은 시기로 추측되고 있다.<sup>19)</sup>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에 의한 진상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 측의 진상조사 작업 역시 “한국동학당 수괴의 수급” 속에 들어 있던 이 「첨부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 지 아닌 지를 검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3)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 과 일제의 식민정체

1997년 4월부터 홋카이도대학에 유학하면서 진행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소속 조사위원 가

18) 유골의 채집자인 佐藤政次郎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19) 「최종보고서」 149쪽.

운데 1인인 井上勝生 교수 및 동 조사위원회 조사보조원 井上 薫 특별연구원으로부터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진상조사 성과를 청취하는 일이었다. 조사 성과에 대한 청취는 거의 1년에 걸쳐 수십 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sup>20)</sup>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필자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조사한 내용이 바로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가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佐藤政次郎에 대한 추적조사 작업의 대부분을 井上교수와 井上 특별연구원이 전담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 소개하는 인용문은 당시 井上 교수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아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에 대한 추적조사 작업을 맡았던 井上 특별연구원의 회고이다.<sup>21)</sup>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벌인 진상조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관련 내용 전체를 인용한다.

20) 구체적인 면담내용 및 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면담에 친절하게 응해주신 井上勝生 교수와 井上 薫 특별연구원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1) 필자가 이노우에 카오리 특별연구원으로부터 자신의 조사경험을 처음으로 청취한 것은 1996년 2월 한승헌 변호사와 함께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 당시 필자는 유골방치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다행히 1997년 4월 홋카이도대학에 유학한 이후 이노우에 특별연구원과는 친밀한 교유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진상조사 과정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이노우에 카오리 연구원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청취할 수 있었다. 참고로 위의 이노우에 특별연구원의 글은 다음의 글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井上薫 「北海道大學文學部古河講堂頭骨放置事件」(『知の植民地支配』, 社會評論社, 1998), 18-19쪽.

의뢰를 받은 것은 北海道大學부속 중앙도서관에 있는 두 개의 한국신문 『大韓每日申報』와 『皇城新聞』으로부터 「첨부문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단서삼아 ‘사토 마사지로(佐勝政次郎)’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는 기사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두 신문 모두 일간지(日刊紙)였기 때문에 ‘9월 20일’이라는 첨부문서의 날짜를 단서 삼아 ‘사토 마사지로’ 관계 기사를 찾았다. 앞뒤 2개월분을 찾아보았지만 관련 기사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단념하고 필자 자신의 논문 작업을 했다.

며칠 뒤 『매일신보』(『대한매일신보』를 조선총독부가 어용지화(御用紙化)한 신문) 1911년 1월 12일자에 실린 기사 「학무협의회」를 보다가 회의 출석자 이름 가운데 우연히 ‘사토 마사지로’라는 이름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직책은 ‘진주(晉州) 실업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로 전라남도 진도와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는 시간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1907년, 1909년분 한국 학부(學部) 『직원록(영인본)』을 확인하러 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직원록』에 ‘사토 마사지로’는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 1920년대 농업교육에 대해 조사했을 때 실업학교장이 쓴 문장이 농업 관계 잡지에 이따금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 내고 해당 잡지가 소장된 서고 쪽으로 발길을 향했다.

北海道大學 전신은 삿포로(札幌)농학교이다. 이 때문에 북해도대학부속 중앙도서관에는 농업관계 잡지가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한국병합’ 직후에 나온 『한국중앙농회보』를 조사하던 중 “진주(晉州) 도기사(道技師)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쓰여진 조사보고를 발견하였다. ‘진주 실업학교장’의 직함은 아니었지만 ‘사토(佐藤)’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다. 그러자 1908년 목포(木浦) 임시면화제배소장에 ‘사토 마

사지로' 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목포는 진도와 똑같이 전라남도에도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목포로부터 진도를 '시찰'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토'가 1906년 시점에 목포 또는 그 인근에 있었다면 1908년의 '사토'와는 무언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여 다시 더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한국중앙농회보』 1907년 11월호의 농회(農會) 가입회원 명단 속에 '사토 마사지로' (이하 '목포의 사토')가 있었다. 또 가입회원 명단 두 줄 왼쪽에서 '군산(群山)의 사토 마사지로' (이하 '군산의 사토')도 찾아냈다. 군산은 전라북도로 두 사람의 사토 마사지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동명이인(同名異人)임이 분명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과정을 거친 필자는 이노우에 교수에게 목포와 군산에 있던 두 명의 사토 마사지로의 존재를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필자와 두개골 문제와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필자가 찾아낸 사료 내용을 보고하러 이노우에 교수 연구실을 찾아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북해도 대백과사전』을 펼쳐 보면 하코다테(函館) 출신 사회사업가에 사토마사지로란 인물이 있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노우에 교수는 하코다테 시립도서관으로 출장을 가서 부재중이었다. 또 이 무렵 동경의 조선대학교 금병동(琴秉洞) 교수는 군산의 사토를, 북해도대학 부속 중앙도서관 북방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던 야마모토(山本)씨는 동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목포 안내지도를 통해 북해도가 본적인 사토라는 인물을 각각 찾아냈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기자로 러일전쟁 기간 중에 목포흥농협회(木浦興農協會)를 포함한 한국농업에 관한 기사를 쓴 사토 마사지로라는 인물도 있음이 밝혀졌다.

‘佐藤政次郎’에 대해 이상과 같은 광범위한 기초조사 과정을 거친 뒤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붓글씨의 주인공 佐藤政次郎이 홋카이도대학의 전신(前身)인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두개골 채집 시점(1906년 9월 20일)을 고려해 볼 때 삿포로농학교 제 19회 졸업생 佐藤政次郎만이 동학군 두개골 채집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진상조사는 다시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은 삿포로농학교 출신인 佐藤政次郎이 동학군 유골 ‘채집’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지장(木浦支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으며, 그의 본적이 홋카이도대학부속 중앙도서관 北方資料室에 소장되어 있는 木浦案內地圖 『韓國 全羅南道 主要地 明細圖』<sup>22)</sup>의 저자로 나오는 佐藤政次郎과 똑같은 北海道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서 삿포로농학교 출신인 佐藤政次郎이 바로 井上 특별연구원이 찾아낸 ‘목포의 사토’와 동일 인물이며, 목포 안내지도를 만든 北海道 출신 佐藤政次郎과도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한편,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佐藤은 신문사를 퇴직한 뒤 군산으로 건너와 벼농사를 경영하는 지주가 되었던 사실도 함께 밝혀졌으며, 그가 바로 井上 특별연구원이 찾아낸 ‘군산의 사토’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sup>23)</sup>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 北海道大學과 관련이 있으면서, 유골 ‘채집’ 장소인 진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목포의 사토’, 진도와 가까운 목포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목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군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군산의 사토’, 그리고 한국의 의병(義兵) 처형 광경을

22)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所藏 舊外地關係 資料目錄』(1975), 18쪽.

23) 『중간보고서』, 10-11쪽.

도안으로 삼은 조선풍속 그림엽서를 유품으로 남겼으며, 출신학교인 철학관(현재의 東洋大學)의 은사로 대륙 진출을 주장했던 井上門下와 관계가 깊은 ‘하코다테의 사토’ 등 3인의 사토에 대한 정밀 조사가 다시 계속되게 되었다.

#### (4)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반출·반입과 일제의 ‘면화재배사업’

이상과 같은 내용 확인을 통해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채집’과 관련하여 3인의 ‘사토’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필자는 다시 새로운 단계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바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진상조사와 별도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포의 사토’의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 조사하는 일이었다.

井上 교수 및 井上 특별연구원으로부터 ‘목포의 사토’가 1906년 전후 한국통감부가 주도한 면화재배사업에 참여했던 하급 농업관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단계부터<sup>24)</sup> 필자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한국통감부에 의한 면화재배사업을 보도했던 당시의 신문, 농업잡지, 구한국 官報 및 통감부(총독부) 직원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국내의 농업사 연구자를 비롯하여 북해도대학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井上 교수와 井上 특별연구원이 이미 조사한 각종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이십오주년기념지』 상권을 통해 사포로농학교 출신 佐藤政次郎이 목포 임시면화재배소의 농업관리로 임관(任官)된 일자가 1906년 5월 4일이며, 퇴직 일자가 1910년 2월 15일이라<sup>25)</sup>는 사실을 확인할 수

24) 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안 시점은 유골방치사건의 진상규명 및 동학군 유골 국내봉환을 요구하기 위해 북해도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한 1996년 2월 5일이었다.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삿포로농학교 출신 佐藤政次郎, 즉 ‘목포의 사토’가 동학군 유골 채집이 이루어지는 1906년 9월 20일 이전에 이미 목포에 부임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곧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찾아낸 3인의 사토 가운데 삿포로농학교 졸업생으로서 한국통감부 하급 농업관리로 부임한 佐藤政次郎, ‘목포의 사토’가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속해서 필자는 또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자료 협조를 받아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의 『朝鮮新報』<sup>26)</sup>에 실려 있는 「목포 권업모범장기수 사토 마사지로, 목포 수원 권업모범장 근무를 명함」이라는 기사와<sup>27)</sup> 『통감부공보』의 辭令을 통해서 佐藤政次郎이라는 인물이 적어도 1907년 초까지는 목포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밀 검토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1906년 9월 상순 진도를 포함한 전라남도 각 군의 ‘면화재배’ 성적 ‘시찰’을 위해 대한제국 정부가 농상공부주사 윤주찬을 파견한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sup>28)</sup>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라남도 진도는 1906년을 전후하여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에 의한 면화재배사업과 관련이 깊은 지방이었으며, 1906년 9월경 면화재배상

25) 「목포의 사토」는 목포를 떠난 뒤 경상남도 진주에서 도기사(道技師) 겸 진주실업학교장, 평안북도 의주에서 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도기사를 그만둔 뒤에는 경성에서 벼농사를 경영하였고, 1945년 패전 뒤 일본으로 귀국했다. (『최종보고서』, 38쪽) 그리고 1910년 사토의 전근에 대해서는 『경남일보』(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영인본, 1995년)가 「종묘장 기사 임명(1910년 2월 22일부)」, 「진주 종묘장장 임명(동년 2월 28일부)」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동년 3월 13일경 진주에 도착한 사실(동년 3월 16일부)등을 보도하고 있다.

26) 이 자료는 井上 특별연구원의 호의로 입수할 수 있었다. 井上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27) 「작일 발령」 『조선신보』 1907년 1월 16일자, 2면.

28) 「면화재배 시찰」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9일자 2면; 「면적(綿績)시찰」 『황성신문』 1906년 9월 10일자 2면.

황을 알아보기 위한 대한제국 관리의 ‘시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사토 마사지로 본인 앞으로 진도에 대한 ‘시찰’ 참가 명령을 내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가 찾아낸 사료는 물론이고 국내의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 정부 및 통감부 관계 문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지만 1906년 9월 전후의 관련 공문서는 찾아낼 수 없었다.

한편 統監府 勸業模範場 木浦支場(=木浦出張所)은 1905년에 일본의 大日本棉花栽培協會가 그 기초를 닦고, 대한제국 정부가 인수하지만 얼마 뒤 권업모범장 설립과 동시에 통감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뒤 통감부는 다시 형식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에게 이관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통감정치를 통한 ‘指導’를 계속하였으며, 1908년에는 농상공부대신 소관의 臨時棉花栽培所로 바뀐다.<sup>29)</sup>

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지장의 技手 佐藤政次郎이 전남 진도에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채집’하게 되는 1906년 9월 20일까지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일본면화제배협회는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전라남도 기타 면작 적지에 綿採種圃를 설치하여 일본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도록 할 것”<sup>30)</sup>등의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맺는다. 동 협회는 그 협정에 따라 1906년 3월 대한제국 농상공부로 하여금 “면화제배 채종포 사업을 대일본면화제배협회에 위탁”하도록 만든다.<sup>31)</sup>『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의하면, 1906년 무렵의 목포 면화제배사업은 권업모범

29) 권업모범장 설립과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3집(1995년 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통감부 권업모범장은 1910년 ‘한국합병’에 의해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으며, 1929년에 다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30) 目賀田男爵 傳記編纂會 「男爵 目賀田種太郎」(1938년), 520쪽.

31) 臨時棉花栽培所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壹號(木浦, 1909년), 10쪽.

장 “목포출장소에서 관리” 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출장소는 “당분간 木浦理事廳 안에 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2)</sup> 1906년 당시의 목포 출장소 건물은 현존하지 않으나 그 옆에 있었던 이사청 건물은 현재도 남아 있으며, 지금은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일본면화제배협회 설립에는 일본의 官民 가운데 有力人士들이 참여하였으며,<sup>33)</sup> 설립에 참가한 유력자 가운데는 原敬(하라 다케시)<sup>34)</sup> 등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면화에 관한 조사』와 『原敬日記』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의 면화제배 상황은 목포 임시면화제배소에서 간행한 『임시면화제배소보고』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홋카이도대학부속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목록에는 제 2호(1910년)만이 실려 있었으나,<sup>35)</sup> 조사결과 제 1호(1909년)도 미정리 팜플렛 더미 속에 묻혀 있었다. 이렇게 찾아낸 『임시면화제배소보고』를 통해서 전라남도에 설치된 면채종포가 10개소에 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진도 府內面の 경우, “이미 개간된 땅을 매수하여 그 작인에게 면작을 하게 하다” “매수한 땅 10.18정”<sup>36)</sup>과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하여 면채종포를 창설하고 이른바 自營 방법에 의한다” “자영지는 1정으로 되어 있었다.”<sup>37)</sup> “종래 (중략) 전라남도

32) 「一九〇六年農工商務部事務公債」 「韓國ノ施政改善ニ關スル事項、農務ニ關スル施政改善事項」 (二三)及び(三〇) 『駐韓日本公使館記録』第 二十六卷 (國史編纂委員會, 1992년), 505쪽. 이 기록은 사진판으로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원판에서 확인하였다.

33) 창립합의가 이루어진 협의회는 1905년 4월 12일에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일본 政友會, 進歩黨, 農商務省, 紡績聯合會 대표 등이 참가했다. 창립총회는 7월 25일에 개최되었다. (權泰億 『韓國 近代綿業史 研究』 一潮閣, 1989년, 85쪽)

34) 하라 다케시(1856-1921)는 동학혁명 당시 외무성 통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 문제에 관여했으며, 1895년 외무차관을 거쳐 1896년에는 주조선공사로 근무한 조선통이였다.

35) 北海道大學 附屬圖書館 『舊外地關係 資料目錄-朝鮮-臺灣滿州(東北)-』 (1975), 75쪽.

36)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1號 (1909년), 14쪽.

37) 『臨時棉花栽培所 報告』 第 1號, 17쪽.

중에서도 유명한 면작지”였던 진도의 면화재배 성과는 “재배자 열심을 결여하여 연래의 작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보였는데, 같은 진도에서도 “자영 재배하는 자는(중략) 그 성적이 양호”했던 점<sup>38)</sup>에서 미루어볼 때 면채종포 ‘매수’ 방법 등에서 현지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만한 문제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義兵들에 의한 ‘피해 상황’도 보고가 되고 있었다.<sup>39)</sup> 1900년대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제에 대한 의병들의 공격은 진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진도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과는 전혀 별개로 일본군을 조선 남부까지 남하시켜 진도를 포함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동학군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던 역사적 사실<sup>40)</sup>을 고려할 때, 진도 지역민들은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히 강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낸 『임시면화재배소 보고』 내용들은 모두 1908년 이후의 보고였으며, 그 뒤의 조사과정에서 다시 진도 면채종포에 장려금을 수여하는 날짜가 ‘9월 20일’임을 알려주는 『면화재배협회 제2회 보고서』(임시면화재배소가 되기 전에 나온 보고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sup>41)</sup>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해 ‘목포의 사토’가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다는 사실이 거의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는 3인의 사토 가운데 ‘군산의 사토’와 ‘하코다테의 사토’ 역시 1906년 9월 20일에 진도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보고서』에서 동학군 유골을 ‘채집’한 인물에 대한 확실한 斷定을 내리지 않았다. 참고로 ‘목포의 사토’가 관여한 1906년 당시의 면화재배사업이 지닌 침략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권태익 교수의 『한국군

38) 『臨時棉花栽培所 報告』第 1號, 32쪽.

39) 『臨時棉花栽培所 報告』第 2號(1910년), 6쪽.

40) 『최종보고서』, 71-84쪽.

41) 이 사료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의 제 1차 한국 현지조사(1995년 12월)때, 서울 대학교 김용덕 교수가 제공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사료이다.

대면업사 연구』<sup>42)</sup>라는 업적이 있음을 밝혀 둔다.

#### (5)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반출·반입과 삿포로 농학교와의 관계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인 井上 교수는 동학군 유골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에서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었을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목포의 사토’ 즉 삿포로농학교 제 19기 졸업생인 佐藤政次郎이 조선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佐藤政次郎과 삿포로 농학교의 관계 규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井上 교수는 홋카이도대학 부속도서관 북방자료실과 동 대학 농학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삿포로농학교 관계 사료를 통해 제 19기생 사토가 1901년에 삿포로 농학교장인 사토 쇼스케로부터 「殖民論」을 수강한 사실<sup>43)</sup>을 밝혀냈으며, 역시 북방자료실에 소장된 사토 쇼스케 일기를 통해서도 사토 쇼스케가 佐藤政次郎 본인 및 佐藤의 부친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sup>44)</sup> 사토 쇼스케는 학교장이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졸업생들의 취직 알선도 하고 있었는데, 당연하지만 그 같은 취직 알선에는 타이완(대만), 한국(대한제국), 만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보고서에는 사토 쇼스케가 삿포로농학교 교수 宮部金吾(미야베 긴고)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1908년 10월 16일자 편지가 인용되어 있다.

(전략)

1. 관동주(關東州 ; 만주-필자) 산림 기사의 전은 시기가 서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따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지난번에 당국이 니토베(新

42) 앞의 주 21) 참조.

43) 『최종보고서』, 114-121쪽.

44) 『최종보고서』, 114-121쪽.

渡戸)씨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어젯밤 통보를 통해서 접했다는 이야기를 고이데(小出)씨로부터 듣고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 타이완에 화학 전공자 1명을 보내는 일에 대해 지난 번 오시마(大島) 씨로부터 거절을 당해 새로 대신할 만한 인물에 대해 니토베 씨로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시마 씨로부터 가능한 인물을 선발 파견하되 성적이 양호한 인물을 원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sup>45)</sup>

井上 교수는 또한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의 추가조사 과정을 통해서 1906년 5월에도 사토 쇼스케 교장이 滿州의 奉天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니토베 박사의 전보에서 말한 농사시험 기수(技手)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월봉(月俸)150엔씩에 2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요코야마(横山) 기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sup>46)</sup>

이상의 두 가지 사료에 의하면, 사토 쇼스케는 1906년 당시 삿포로농학교를 이미 떠난 新渡戸稻造(니토베 이나조)와도 연락이 닿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 기술자의 취직 알선에 있어서는 사토 쇼스케-니토베 이나조 라인을 통한 알선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토 쇼스케 교장은 특별히 농상무성 관계자와도 서간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당시 농상무성 인

45) 北海道大學 農學部 所藏 「宮部金吾 文書」; 『最終報告書』, 123-124쪽.

46) 「八一 奉天政宮 へ回答ノ件 五月七日佐藤農學校長發 奉天軍政官宛(六十三字. 二円七十錢)」(簿書番號No. 八一三 『明治三十九年 札幌農學校公文錄』 第一冊, 秘密書類(永久), 北海道大學 北方資料室 所藏)

맥은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 즉 殖産 및 綿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토 쇼스케는 농상무성 農事試驗場長으로 한국에 체재한 적이 있던 古在由直(코자이 요시나오, 1864-1934), 조선의 면업 상황을 시찰했던 농업관리 月田勝三郎(츠키타 후지사부로), 동경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본 농상무성 조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토지농산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나중에 한국 권업모범장장이 된 本田幸介(혼다 고스케) 등과도 서신을 주고받았다. 사토 쇼스케는 또한 동향인이기도 한 니토베 이나쵸, 하라 타케시, 사토 마사지로의 부친 사토 쇼고로 등과도 서간을 교환하고 있었다. 사토 쇼스케 교장과 서신을 주고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니토베 이나쵸는 미야베 긴고, 內村鑑三(우치무라 간조) 등과 함께 삿포로 농학교 제 2기 졸업생이었으며, 사토 쇼스케는 자신은 바로 니토베의 선배이기도 했다. 죠오지 오시로가 쓴 『니토베 이나쵸』<sup>47)</sup>에 따르면, 니토베의 미국 유학 시절에 당초 유학중이던 대학을 다른 대학으로 바꾸는 데 직접 관여한 인물이 바로 사토 쇼스케였으며,<sup>48)</sup> 니토베는 쇼스케와 함께 볼티모어에서 2년 동안 함께 생활할 정도로<sup>49)</sup> 절친한 사이였다. 미국 유학을 마친 니토베는 사토 쇼스케의 주선으로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삿포로농학교 교수로 근무하기에 이른다.<sup>50)</sup>

사토 쇼스케 교장은 제 19기생 사토 마사지로의 졸업 이후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토 쇼스케와 사토 마사지로 사이에 교환된 서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sup>51)</sup> 1901년 7월에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한 사토 마사지로는 1년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月寒 연대에서

47) ジョージ オーシロ 「名譽 努力 義務: 新渡戸稻造—國際主義の開拓者」(日本, 中央大學出版部, 1992年)

48) 上掲書, 27쪽.

49) 上掲書, 36쪽.

50) 上掲書, 52쪽.

51) 『최종보고서』, 114-117쪽.

근무했으며 제대 후에는 목축업을 경영한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소집에 응하여 釧路 연대구에 소속되었으며, 1906년 3월 소집해제 됨에 따라 동경으로 건너가 잠시 체재하다가, 동년 5월 4일 한국 통감부 권업모범장 技手로 임명되어 6월 5일 동경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향했다.<sup>52)</sup>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토 쇼스케는 1905년 7월과 9월, 12월에 각각 홋카이도 쿠시로 연대구에 있던 마사지로 앞으로 편지를 ‘발신’ 하고 있으며, 1906년 3월에는 극히 단기간 밖에 체재하지 않았던 동경 荒川區의 마사지로 앞으로 편지를 ‘발신’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마사지로의 편지를 ‘수신’ 하여 그의 이동 상황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1906년 1월에는 마사지로의 부친 사토 쇼고로가 쇼스케 교장을 ‘來訪’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sup>53)</sup>

최종보고서 발표 뒤 계속된 추가 조사를 통해서,<sup>54)</sup> 사토 마사지로는 삿포로농학교 4학년 시절에 ‘校費生’으로 선발되어 “수업료 면제 외에 학비로 ‘월 7엔’ 씩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사토 마사지로는 “졸업 후 만 5개년 간 그 신분 진퇴에 관해서는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는 교칙 제 53조 이행을 위해 사토 쇼스케 교장에게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쇼스케 교장은 그 같은 마사지로의 요청을 허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토 쇼스케 교장이 마사지로의 취직 알선에 직접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조사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사토 쇼스케 교장이 마사지로의 한국 통감부 권업모

52) 『최종보고서』, 111쪽.

53) 『최종보고서』, 117쪽.

54) 井上勝生 「佐藤昌介 『植民論』 ノートー植民學と札幌農學校」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四十六卷二號』(1998年 3月).

범장 기수 취직을 허가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 (6)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반출반입동기 및 반입 경로

삿포르농학교 제 19회 졸업생 佐藤政次郎이 면화재배사업 관계로 전라남도 진도로 ‘시찰’을 갔다 해도 사람의 ‘두개골’에 흥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채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佐藤政次郎은 인류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흥미나 관심,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아니면 단순한 관심이나 흥미 때문에 동학군 유골을 ‘채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목포의 사토’ 즉 삿포르농학교 제 19회 졸업생 佐藤 자신은 인류학 연구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동학군 유골을 ‘채집’한 그는 ‘채집’ 뒤에 사람의 ‘두개골’에 관심이 많은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引渡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토 마사지로와 그 누군가의 사이에 중개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식민지배에 깊은 관계가 있는 북해도대학에 한국의 동학군 지도자 유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동학군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는 과정에 삿포르농학교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홋카이도대학의 『최종보고서』는 삿포르농학교 출신인 니토베 이나쵸와 미야베 긴고가 사람의 ‘두개골’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로, 1883년 7월 11일자로 니토베 이나쵸 앞으로 보낸 미야베 긴고의 서간과 「미야베 긴고 씀 홋카이도의 다시마 조사여행 일기」 가운데 1894년 7월 23일과 24일의 쿠시로 조사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sup>55)</sup>

전자는 동경제국대학의 “박물학교물학 담당 佐々木(사사키)”의 부탁을 받은 미야베가 사사키와 “에조인(아이누인) 측루”를 주고받을 때 당시

55) 『최종보고서』, 147-149쪽.

동경에 있던 니토베가 그 지불금액 교섭에 관여한 기록이며, 후자는 “傳習科 졸업생이자 삿포로 교회 멤버인 夏堀(나츠호리)가 나(미야베-필자)를 위해 아이누인의 두개골 한 개를 수집해 주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사료이다.<sup>56)</sup> 요약하자면, 삿포로농학교에서는 최소한 미야베 긴고가 ‘두개골’ 수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삿포로 농학교 졸업생을 통해서 실제로 ‘두개골’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니토베 이나쵸 역시 1906년 시점에서 삿포로농학교에 있진 않았지만 1895년에 삿포로 인류학회를 창설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sup>57)</sup> ‘두개골’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인물이다.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한국에서 일본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게 된 경로 해명을 위해서는 우선 ‘목포의 사토’의 근무이동 상황을 밝히는 일이 중요했다. ‘목포의 사토’는 통감부의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공무로 인한 이동 상황(출장 등)이 공문서에 남아 있으며, 또한 당시의 신문 등에 보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1906년 당시 목포에는 거류 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던 『木浦新報』라는 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 소재 및 현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58)</sup> 在朝鮮 거류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던 신문 가운데 1906년 9월 전후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으로써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신문은 인천(仁川)에서 발행되고 있던 『朝鮮新報』뿐이었다.

56) 『北海道 昆布調査 施行日記』의 원문은 英文이지만, 카와지마 쇼지(川嶋昭二)씨가 번역하여 『地域史研究 はこだて』二十四號에 게재했다고 한다. (『최종보고서』, 148쪽)

57) 『최종보고서』, 134쪽.

58) 『최종보고서』, 134쪽. 목포신보가 소장되어 있는가를 목포 시립도서관과 목포 문화원에 문의했지만, 목포는 한국전쟁 당시 거의 파괴되었으며, 목포신보사 역시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얻었다. (목포 문화원 李聖烈씨의 증언에 의함) 그런데 『日韓キリスト教關係資料Ⅱ 一九二三~一九四五』(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新教出版社, 1995年)에 『木浦新報』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의 金承台씨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대학교 소장 신문 스크랩에 있는 기사를 수록한 것으로 원본이 아니었다.

목포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인천의 『조선신보』에서 목포의 사토 마사지로 관계 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고 목포와 진도 관계 기사를 조사했다. 또한 ‘채집’ 일 직후 사토 마사지로의 이동을 알려주는 사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집’ 일 직후에 사토 마사지로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토 마사지로 개인의 동정을 알려주는 기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① “(동경)제일고등학교장 농법학 박사 니토베 이나조 씨는 금번 이토(히로부미)통감의 요청에 따라 곧 내한하여 한국 농사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1906년 10월 7일자)
- ② “니토베 박사 도한(渡韓)의 용무는 면작(棉作) 사탕 등의 식부(植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동년 10월 12일자)
- ③ “농학박사 코자이 요시나오(古在由直), 동 혼다 고스케(本田幸介), 기사(技師) 나카무라 히코(中村彦), 동 안도 고타로(安藤廣太郎) 제 씨는 면작 재배 정황 기타 농사 시찰을 위해 목하 목포 지방을 순회중이라는 소식, 동지(同地)로부터의 최근 소식에서 볼 수 있다.” (동년 10월 12일자)
- ④ “농법학 박사 니토베 이나조 씨는 미네네(峰根) 『(동경)경제잡지』 기자와 함께 5시 도착 열차로 인천에 도착. 그날 밤은 거류민 유지(有志)들이 가토(加藤) 총영사와 동 니토베 박사를 위해 개최한 만찬회에 참석하고 하라가네(原金) 여관에서 일박. 어제 아침 귀경하였다.” (동년 10월 20일자)
- ⑤ “목포 대구(大邱) 지방 면화 시작(試作) 때문에 출장 중인 통감부 권업모범장 혼다(本田)박사가 귀경한 뒤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남도 면화 작황은 대단한 성적이며(중략) 전반적으로 한국의 면

화 작황은 전도(前途)가 대단히 유망하다고 한다.” (동년10월 26일자)

- ⑥ “농학박사 니토베 이나쵸 씨는 모범 농장의 마치다(町田) 기사와 함께 군산(群山)지방 농황 시찰을 위해 지난 4일 군산에 도착하였으며(중략) 그날 밤은 오산리(五山里)의 후지이(勝井)농장에서 1박하고, 다음날 정오 군산으로 돌아와 6일 출발하는 오하요호로 목포로 향했다.” (동년 11월 10일자)

이상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 샛포로 농학교 교수였던 니토베 이나쵸가 1906년 11월 4일 군산을 경유하여 6일에 목포로 향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를 통해 니토베와 목포의 농업 기수 사토 마사지로가 목포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06년 말까지 사토 마사지로는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토 마사지로는 1907년 1월 15일자 辭令에 의해 목포 근무로부터 수원·목포 겸직 근무 명령을 받게 되는 데,<sup>59)</sup> ‘채집’ 일 이후부터 겸무 직전까지도 위의 기사 ③과⑤에 등장하는 本田幸介나, 기사①②④⑥에 언급되고 있는 니토베 이나쵸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용무가 ‘면작 시찰’에 관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목포에서 사토 마사지와 대면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sup>60)</sup> 물론 그들이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진도에서 ‘채집’한 ‘두개골’을 건네주었는지 어떤 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는 다만 혼다와 니토베 등의 목포 면작 상황 시찰이 동학군 지도자 유골의 일본으로의 반출, 즉 한국으로부터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출되는 루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 두고자 한다. 다만, 니토베의 경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895년에 샛포로 인류학회를 창

59) 「統監府 辭令」『朝鮮新報』1907년 1월 16일자, 2면.

60) 『최종보고서』, 134쪽.

설했다는 점, 삿포로 농학교 시절의 사토 마사지로의 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점, 삿포로 농학교를 떠난 뒤에도 사토 쇼스케 삿포로농학교 교장과 교류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sup>61)</sup>등에서 삿포로농학교와 관계가 깊은 인물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발표 후에도 그의 행적에 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佐藤政次郎은 검직근무 명령을 받은 뒤부터 서울과 가까운 수원(水原)과 목포 사이를 왕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서 동학군 유골을 수수(授受)했을 지도 모른다. 『京城新報』를 改題한 『京城新聞(일본어신문)』<sup>62)</sup>에는 사토 마사지로가 서울에 체재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908년 7월 17일자 “그저께 내경(來京) 파성관”

동 7월 21일자 “그저께 수원으로 귀임”

동 12월 8일자 “5일 입성(入城) 파성관”

동 12월 13일자 “11일 수원을 향해 출발”

한편, 홋카이도대학 부속 중앙도서관 북방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삿포로농학교 동창회 보고』에는 농학교 졸업생들이 모교로 보낸 엽서를 자주 게재하였는데, 그 엽서들은 “만주·몽고·타이완·조선 등지에 거주하던 동창생들이 보낸 ‘요세가키’ (여러 명이 함께 쓴 엽서-필자)” 였다.<sup>63)</sup> 그들 농학교 졸업생들은 外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옛 은사나 친구들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또한, 사토 마사지로가 자신의 고향

61) 예를 들면, 사토 쇼스케 교장이 동경 체재 중이던 1906년 12월 15일 니토베는 쇼스케 교장을 방문하고있다. (『최종보고서』, 117쪽)

62) 『京城新聞』은 1908년 7월 5일부터, 記事는 「公人私人」란에서 인용했다. 이 『京城新聞』의 창간 일자는 1907년 11월 3일이다.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所藏)

63) 『최종보고서』, 40쪽.

인 岩手縣(이와테현) 花卷市(하나마키시)로 歸省하던 도중에 삿포로에 들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片道 일정만으로도 며칠씩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귀성을 할 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시점에서 사토 마사지로가 삿포로에 들렀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자료는 한 가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전남 진도의 동학군 지도자 유골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는 경로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목포의 하급 농업관리로 부임한 삿포로농학교 19회 졸업생인 佐藤政次郎이 자신이 직접 삿포로농학교로 보내는 경로

둘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인맥(佐藤政次郎→(중개자)→니토베 이나조 등 삿포로 농학교 은사 또는 삿포로 농학교 졸업생을 경유하는 경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루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입 경로 규명은 佐藤政次郎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운 조사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반입 경로 규명은 삿포로농학교, 즉 홋카이도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朝鮮認識, 조선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 (7) 동학농민군 유골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1996년 4월에 공표된 홋카이도대학의 『중간보고서』는 「첨부문서」와 유골 표면에 쓰여 있던 佐藤政次郎이란 인물이 누구인가는 거의 밝혀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갑오년 12월 말 진도에서 살해된 수백 명의 동학군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그 구체적

인 진압과 학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이 같은 중간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필자는 1996년 5월 29일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에서 행해진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 유해 봉환식” 때 있었던 기자회견 과정에서 엄중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동 봉환식장에서 한국 측 봉환단 대표인 한승헌 변호사<sup>64)</sup>가 낭독한 「고유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서 싸우다 순국하신 님께-」와 봉환단과 함께 동행한 한 MBC(문화방송, 서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님은 누구십니까?」<sup>65)</sup>에서도 역시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에 대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며, 이 유골을 포함한 진도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1996년 4월의 「중간보고서」 발표와 유해 봉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제 2차 한국 현지조사(1996년 7월)가 이루어졌다. 제 2차 한국 현지조사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진압 과정, 진도 지역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조사가 중심이 되었다. 제 2차 현지조사 때에는 준비단계부터 진도의 향토사가 박주언 씨, 목포의 향토사가 이성렬 씨,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인 필자가 전면적인 협력을 하는 동시에 한국 측 조사위원회가 발굴한 관련사료를 기꺼이 제공하였다.<sup>66)</sup> 그리하여 한일 공동으

64) 한국 측 봉환단 대표는 오랜 기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한승헌(韓勝憲) 변호사가 맡았다. 한 변호사는 당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이기도 했다. 유골사건 직후 한국에서는 동학을 제송한 천도교(天道敎)측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등 몇 개의 관련 단체 사이에 ‘유해’ 안치 장소, 봉환식 거행 절차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 같은 대립 상황을 한변호사가 나서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한국 측과 홋카이도대학 측 사이의 이견 조정도 담당하는 등 동학군 유골의 한국 봉환을 위해 여러 모로 진력하였다.

65) 이 기록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1996년 8월 5일에 방영되었다.

66) 이 같은 협력은 1996년 5월의 동학군 지도자 ‘유해 봉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일 두 나라 연구자들 사이에 한일의 과거사에 대한 직시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졌다고 생각된다.

로 이루어진 제 2차 한국 현지조사는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인 井上 교수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분야에 걸쳐 두 나라 연구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동학농민군 후손들로부터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사료제공을 받았다. 한일 공동조사 과정에는 또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소속의 일본인 대학원생과 한국 유학생도 참여하였다. 홋카이도대학 조사위원회 측 역시 동학군 진압과 관련한 일본 측 사료(외교사료관, 국회도서관, 방위 연구소 도서관 자료 등)를 한국 측 연구자 및 관련단체에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등 문자 그대로 공동 연구와 공동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상과 같은 커다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해결의 과제 역시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미해결 과제에 대한 연구는 공식적인 조사가 종결된 지금도 조사에 참여했던 한일 두 나라 연구자에 의한 개별적 연구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 (8) 맺음말 - ‘유골방치사건’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이상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6년 9월 20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 한 사토 마사지로”는 1876년 설립이후 조선침략 및 식민지배 정책을 이론적·실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던 삿포로농학교(현재의 홋카이도대학) 제 19기 졸업생이었다.

둘째 삿포로농학교 제 19기 졸업생 ‘사토 마사지로’는 재학 시절에 식민론, 인종학 등에 대해 수강한 사실이 있었다.

셋째 ‘사토 마사지로’는 삿포로농학교 교장 ‘사토 쇼스케’와 은사 ‘니토베 이나쥔’ 등의 주선에 의해 1906년 5월 4일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지장(1908년에 임시면화재배소로 명칭이 바뀜) 기수로 임명되었다.

넷째 목포에 부임한 ‘사토 마사지로’는 1906년 9월 20일 진도의 면화

재배시험지인 ‘면채종포’에서 이루어진 면화재배 시험성적에 대한 장려금 지급식에 하였다.

다섯째 진도의 면화재배 시험성적에 대한 장려금 지급식에 참여한 사토 마사지로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 유골을 ‘채집’ 하게 된다.

여섯째 1906년 9월 20일 ‘사토 마사지로’에 불법으로 ‘채집’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은 1906년 11월 6일 목포를 방문한 삿포로농학교 은사 니토베 이나쵸에 건내졌으며, 삿포로인류학회를 창설하고 평소 유골에 관심이 많았던 니토베는 동 유골을 모교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유골의 주인공은 진도출신 동학농민군지도자 가운데, 하조도 출신인 朴仲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지지 아니한 문제도 많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 못한 문제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佐藤政次郎으로부터 북해도대학으로 동학군 유골이 반입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하여

몇 가지 경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관련 인물이 대단히 많고 사토 마사지로 자신이 일본으로 돌아온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누군가 중개자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 중에 있다.

- ② 佐藤政次郎이 ‘의도적으로’ 동학군 유골을 ‘채집’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 즉 사람의 ‘두개골’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사토 마사지로 본인이 인류학적 지식이나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인류학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마사지로의 교우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사토 마사지로의 삿포로농학교 시절의 은사인 니토베 이나쵸

등이 삿포로 인류학회를 창설하고, 사람의 두개골 수집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 ③ 佐藤政次郎으로 하여금 朝鮮으로 건너오게 만든 배경은 어떤 것일까?

공식적인 조사가 종결된 현재도 개별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삿포로농학교 시절의 교육, 특히 삿포로농학교 교장 사토 쇼스케로부터 수강한 『식민론』, 니토베 이나쵸 등으로부터 수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종론』강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조사 중이다.

- ④ 삿포로농학교 시절부터 홋카이도제국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두개골에 대한 연구를 담당했던 동 대학의 해부학교실 및 인류학교실의 변천 및 ‘표본’ 입수 경로 등

조사 대상이 된 세 명의 사토 가운데 ‘군산의 사토’ 역시 조선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특히 米穀 수탈구조 속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군산의 사토 마사지로’가 비록 이번에 일어난 유골방치사건에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재조선 일본인 신분으로 조선 땅에서 저지른 침략 및 수탈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유골방치사건이 일본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러시아 등으로 널리 알려지자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하였다. 또한 관련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동학군 유골과 러시아의 율타민족 유골은 정중한 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봉환하고 해당국 정부 및 국민들 앞에 유골을 오랜 기간 방치해 온 잘못에 대해서 사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 같은 사죄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 한·일 두 나라 연구자들의 공동조사, 공동연구는 유골방치사건을 두 나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전향적 계기로 삼고자 노력

했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進一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한국 측이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홋카이도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식하여 대응해 것을 시종일관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골방치사건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학부, 이학부, 의학부 등이 문학부에 의한 공식조사가 종결되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사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홋카이도대학 유학 시절에 필자는 일본의 舊帝國大學을 계승하고 있는 7개의 국립대학 박물관에 식민지시대에 반출된 한국인의 두개골이 1,000구 이상 ‘표본’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sup>67)</sup>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 국립대학 박물관 안의 한국인 두개골 ‘표본’ 들은 그것이 비록 ‘표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집 및 반출과정이 수탈이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이 일어난 홋카이도대학의 경우는 특히 의학부가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홋카이도대학 의학부에서는 사람의 두개골을 연구 재료로 삼기 위해 1945년 이전 인류학자 兒玉作左衛門(고다마 사쿠자에몽, 1895-1970) 등이 중심이 되어 아이누민족 두개골을 대량으로 수집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1천 구 이상의 아이누 민족 인골이 의학부 표본고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홋카이도대학 의학부는 여전히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과 의학부 표본고에 안치된 인골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견해는 어디까지나 의학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이누민족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학부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up>68)</sup> 따라서 이번 동학농민군 유골방치사건은 향후, 어

67)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인류학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68) 北大人骨事件真相究明緊急會議, 『歴史の眞實』 1, (東京, 労働者共闘, 労働運動活動者評

면 형태로는 과거 홋카이도대학 의학부를 비롯하여 구 제국대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일본 내 국립대학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골 수집 방법의 문제나 인골을 조사 연구 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책임 문제를 제기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진상조사의 결과(요약)

##### **【1】 1894년 전라도 진도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한 일본군의 책임**

1894년 7월 이후 전라남도 珍島는 東學 農民軍이 장악하고 있었다. 10월부터는 珍島 監牧官을 비롯한 官吏들이 農民軍을 막아 내기 위한 守城所를 설치하고, 珍島 東學農民軍에 대한 탄압과 진압을 시작하였다. 한편, 1894년 5월 6일 일본군 陸戰隊 488명의 仁川 상륙을 계기로, 朝鮮으로 ‘不法’ 出兵한 日本軍은 6월 21日(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親日傀儡政權을 수립하고 朝鮮軍隊를 武裝解除시키고 그 指揮權을 장악한 뒤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기간 중 동학농민군은 釜山에서 서울(京城)로 이어지는 일본군 병참선 및 일본군 軍用電線을 습격하는 등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각지에서 잇따라 봉기하고 있었다. 이에 히로시마 대본영의 병참총감 카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가 “東學黨에 대한 處置는 嚴烈함을 요한다. 向後 모조리 殺戮하라”는 살륙 명령을 내리고, 조선에 이미 출병하여 일본군 병참선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는 일제히 그 살륙 명령을 실행하기에 이른다. 또한 10월 5일에는 당시 仁川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남부병참감부 사령관 이토 스케요시(伊藤祐義)의 요청을 받아 ‘동학당 박멸의 군대’인 일본군 후비보병 제 19대대의 3개

중대를 조선에 출병시키기에 이른다. 동년 10월 9일 인천에 상륙한 후비보병 제 19대대는 10월 13일에 ‘出軍訓令’을 받고, 10월 15일(양력 11월 12日)부터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서기에 이른다. 즉, 주한일본공사관과 대본영의 지시를 받은 후비보병 제 19대대는 10월 15일(양력 11월 12日) 서울의 龍山을 출발하여 西路 中路 東路 등 三路를 통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南下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비보병 제 19대를 주축으로 한 日本軍은 동학농민군을 세 방향에서 全羅道 방면으로 내몰아 섬멸하는 작전을 취하였다. 이 같은 작전은 동학농민군이 江原道와 咸鏡道 방면으로 도주하여 러시아에 가까운 地方으로 숨을 경우, 後日에 다시 봉기할 염려와 함께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을 일본 정부 및 대본영이 대단히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동학당 진압을 위해 파견대장에게 주는 훈령>,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참조)

이와 같은 조직적이며 치밀한 日本軍의 진압작전에 밀린 동학농민군은 1894년 12월(양력 1月) 경에는 대부분 전라도의 西南部 지역으로 쫓기고 있었다. 특히 1894년 12월 15日-17日(음)까지 3일간에 걸친 전라도 長興 및 康津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海南을 거쳐 珍島와 濟州島 등지로 피신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전담하고 있던 日本軍 後備步兵 제 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는 1894년 12월 10일(양력 1月 5日) 전라도 羅州에 도착하여 3개의 支隊를 편성하여 세 方面으로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후비보병 제 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의 지시를 받은 日本軍 1個 支隊(支隊長은 제 1중대 植野俊成 소위로 판단됨)는 조선군대와 함께 1894년 12월 27日(양력 1895년 1月 22日) 珍島에 도착하여 이미 체포되어 있던 농민군 지도자들을 문초한 후 孫行權, 金允善, 金大旭, 徐奇宅 등을 衆民과 대질시켜 처리(처형)하고, 나머지 죄인인 李方鉉, 朱永白 등을 엄하게 申飭한 뒤 석방하였다.

12월 27일에 珍島에 도착한 日本軍 支隊 및 조선군은 12월 30일(양력 1월 25일)까지 4일간 머물며 진도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체포 처형한 뒤 12월 30일에 철수하였다. 일본군 支隊 및 조선군이 4일간 머무는 동안 진도에서 체포 처형당한 동학농민군의 수는 최소 50명 이상, 최대 2-3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체포된 東學農民軍 指導者 및 일반 농민들은 조선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日本軍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형되었다.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불법 점령으로 조선군대의 지휘권이 일본군으로 넘어간 이래 조선군대에 대한 지휘권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南小四郎)의 보고에 따르면(『駐韓日本公使館記錄』 6(한글번역본), <東學黨征討略記>, 1895년 5월, 51쪽) 珍島에서 체포된 東學農民軍 指導者들은 미나미(南小四郎)가 파견한 日本軍 1個支隊의 責任下에 처형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珍島郡誌(1976년), 201쪽』에 의하면, 당시 50 여명의 農民軍이 처형되어 그 屍身이 솔계치(漢字音 松峴里; 필자 주)에 버려 졌다고 하였으며, <天道教 珍島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 1932년 11월號, 36쪽)에 의하면, 珍島에서 7-80명의 東學 道人이 희생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진도 현지 주민들 사이에 口傳되는 이야기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이길성 웅 증언, 1996년),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했던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가 남긴 문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군 支隊의 지휘 책임 하에 처형당한 농민군의 시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처형당한 농민군들의 시신은 거의 대부분 방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일부 농민군들의 경우는 친지나 가족들에 의해 비밀리에 수습되어 어딘가에 매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군들의 시신은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진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솔계치(松峴里)’ 일대

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는 『진도군지(1976년)』의 기록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진도의 동학농민군은 珍島까지 들어 온 日本軍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이 처형당한 뒤, 솔계치 일대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 진도 농민군 처형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일본군에게 있는 것이다.

## 【2】1894년 12월이후, 솔계치에 방치되어 있던 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에 의해 ‘채집’될 당시 상황

1894년 12월 진도에 진주한 日本軍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 및 일반 농민군들의 시신은 솔계치(松峴里) 일대에 버려진 채, 1906년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농민군들의 시신들이 방치되어 왔다는 뜻은 매장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임시 매장되거나 또는 임시 매장되었을 지라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後代에까지 내려왔다는 뜻이다).

1905년 이른바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사실상 조선을 식민지화한 日本은 미국에서 들여온 陸地棉을 한국에 재배하여 日本의 원료공급지로 삼을 목적으로 1900년대 초부터 육지면 재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에 의해 추진된 육지면 재배정책은 당시 朝鮮에 대한 일본의 經濟的 支配와 侵略정책의 一環으로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珍島는 이 같은 일본의 육지면 재배 계획(그 중심은 1905년 설치된 韓國統監府였다)에 따라 1906년 4월 육지면 시험 재배장소로 지정되었다. 장소는 珍島郡府內面(現 城內面 南洞里 일대)이었다. 이를 위하여 1906년 6월 8일에는 珍島를 비롯한 전라남도 면화 재배를 경영, 감독하기 위해 ‘韓國統監府 勸

業模範場 木浦出張所'가 설치되어 업무를 개시하였다.

1906년 9월 20일에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하게 되는 佐藤政次郎은 1906년 5월 4일 통감부 권업모범장 技手에 임명되었다.('勸業模範場 報告' 第 壹號, 1907년 3월, 3쪽;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周年 記念誌』 上卷, 1931년, 24쪽) 佐藤政次郎이 1906년 5월 4일에 권업모범장 기수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은 그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채집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유력한 근거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한편, 佐藤政次郎은 동학농민군 지도 '遺骨' 採集이 이루어지는 1906년 9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韓國統監府 勸業模範場 木浦出張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朝鮮新報』 1907년 1월 16일, 2면), 1906년 9월 20일 '유골' 채집이 있던 날, 진도군 府內面 南洞里 '棉採種圃(면화재배지)'에서는 한국인 소작인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儀式이 있었다.(『棉花栽培協會 第二回 報告書』, 1907년 참조)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리에는 木浦에 있던 권업모범장 主任과 技手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바로 이 1906년 9월 20일 珍島郡 府內面 南洞里에서 있던 '棉採種圃'에서 장려금을 수여하던 자리에 당시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에 기수로 근무하고 있던 佐藤政次郎은 주임 및 다른 기수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珍島郡 관리로부터 아니면 한국인 소작인이나 진도 주민들로부터, 그도 아니면 진도 출장을 전후하여 1894년 12월말에 처형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및 농민군들의 시신이 면화재배지에서 불과 1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松岬里의 고갯길 근처에 방치된 채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인터뷰를 했던 이길성 옹의 증언에 따르면, 진도 주민들 대부분은 1894년 진도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頭骨에 씌부된 文書>에 쓰여 있는 내용과 같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採集'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에서 낸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도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韓國측 조사자의 입장으로 볼 때 珍島의 東學農民指導者 ‘遺骨’을 ‘採集’했던 인물은 1906年 당시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로 근무하고 있는 佐藤政次郎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권업모범장이란,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설립했던 농업관련 기관으로, 그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면화재배정책 역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정책의 일환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 사토 마사지로란 인물은 일본의 식민정책, 즉 경제적 침략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던 일본의 조선 식민정책 추진의 하수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에서 1997년 7월에 공표한 最終報告書에는 1906年 당시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로 근무하고 있었던 佐藤政次郎의 韓國에서의 행적이 詳細하게 밝혀지고 있으며, 1996년 4월에 공표되었던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中間報告書」에서 밝혀 내지 못했던 佐藤政次郎의 행적이 상세하게 규명되어 있다.(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했던 佐藤政次郎이란 인물이 일본의 식민정책, 즉 경제적 수탈정책을 말단에서 수행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동시에, 1906年 9月경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로 근무하던 佐藤政次郎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遺骨’採集이 있던 날인 9月 20일에 珍島郡 부내면 남동리 ‘면화재배지’에서 있었던 장려금 지급식에 참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치밀한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낸 점에 대하여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3】 1906년 9월 20일 사토 마사지로가 동학농민지도자 유골을 ‘채집’한 목적

1906年 9月 20日에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 佐藤政次郎이 진도로 출장을 와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遺骨을 ‘採集’할 당시, 日本은 1905年 ‘乙巳勒約’ 체결을 계기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바로 이 무렵 日本 國內에서는 言論에 의해 日本人들의 ‘朝鮮進出’(韓國 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한 侵略이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日本 各 大學 教授들은 日本이 수행하고 있던 朝鮮에 대한 植民支配政策의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日本의 朝鮮 進出, 즉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例: 佐藤政次郎의 恩師인 新渡戶稻造 교수의 활동 참조)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採集’했던 佐藤政次郎이 조선으로 건너오기 전에 수학했던 札幌(삿포르)農學校는 일본의 ‘內國植民地’로 불렸던 홋카이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876년에 설립된 국립대학이었다. 이 삿포르농학교에서는 특히 1891년에 ‘植民史’라는 과목이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田中愼一, 「新渡戶稻造와 朝鮮」, 『季刊 三千里』 34, 1983년 5월호, 90쪽), 1907년부터 ‘植民學’이란 강좌가 개설되고 있었다. 또한 人類學 분야에서는 조선인이나 아이누족의 두 개골의 크기를 비교하여 일본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人種論’이란 이론이 유행하고 있었다. 삿포르농학교 출신인 佐藤政次郎은 당연히 수학기간 중에 ‘植民學’을 수강했으며(井上勝生, 「佐藤昌介『植民論』 노트-植民學과 札幌農學校-」,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46-2, 1998년 3월 참조), ‘人種論’과 관련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삿포르농학교에서 ‘植民學’을 수강하고, ‘人種論’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佐藤政次郎은 1901년에 삿포르농학교를 졸업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 때는 1年 志願兵으로 軍에서 服務하였다. 이후 그는 1906年 5月 4일에 東京帝國大學 농학부 목축과 교수 出身인 한국통감부 勸業模範場長인 本田幸介(혼다 고스케)의 주선으로 韓國統監府 勸業模範場 木浦出張所

技手로 발령받아 조선으로 건너오게 된다.

여기서 1906년 5월 4일 이후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는 佐藤政次郎은 조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문제가 된다. 즉 사토 마사지로의 朝鮮觀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의 조선관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조선관 형성에는 그가 삿포로농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대학 내의 조선관, 그리고 당시 일본 언론의 조선관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토의 대학 재학시절을 전후한 1900년대 초 일본의 조선관, 그리고 사토가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는 1906년을 전후한 시기에 日本人들은 朝鮮에 대해 어떻게 認識하고 있었을까?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관을 요약하자면, 첫째 朝鮮은 日本의 利益線이다, 둘째 未開한 나라이다, 셋째 日本人들의 적극적인 朝鮮進出과 移民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近代的 學問 方法論에 의한 연구 대상이 많다(보기-‘草墳’에 대한 관심)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00년대 초와 1906년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인들의 조선관은 朝鮮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傳統 文化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日本人의 朝鮮進出이나 移民 등과 관련된 인식, 또는 日本의 朝鮮 植民支配를 정당화하는 논리, 즉 미개한 조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主流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佐藤政次郎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 받은 조선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06년 9월 20일에 佐藤政次郎이 진도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채집’했던 것은 東學農民革命에 대한 정당한 이해나 긍정적 관심 때문이 결코 아니었으며, 동학농민군 지도자 ‘遺骨’에 대한 敬畏心 때문도 결코 아니었다. 그 보다는 오히려 그가 대학에서 수강했던 ‘식민학’이나 ‘人種論’에서 유래한 朝鮮에 대한 우월 의식, 또는 그 당시 일본 내의 대학사회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植民 지배를 긍정하는 침략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遺骨’을 ‘採集’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사토 마사지로의 恩師 新渡戶稻造의 植民地 朝鮮觀 참조).

#### 【4】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채집’ 된 유골이 일본으로 ‘불법 유출’ 된 경위

1906年 9月 20일에 사토 마사지로는 珍島郡 府內面 松峴里의 고갯길 근처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頭骨)’을 ‘採集’하였다. ‘採集’ 직후 사토 마사지로는 ‘유골’을 木浦의 日本領事館 근처에 있었던 그의 사무실 또는 숙소 등에 임시로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람의 두개골이라는 유골은 ‘특별한’ 물건이었으므로 장기간 사토 자신이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람의 두개골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3자에게 인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 같은 채집과 제 3자에게 인도라는 반출 경로는 조선 정부의 허가라든지, ‘유골’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유가족 등으로부터 허가나 동의를 얻은 ‘합법적’인 반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사토 마사지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채집은 이른바 ‘불법(不法)’ 또는 ‘무단(無斷)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제 3자에게 인도되어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채집’된 ‘유골’이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제 3자에게 인도되었으며, 일본으로 반출되게 되는 것일까?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제 3자에게 인도되어 일본으로 반출되는 경로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1906年 11月 6일에 사토 마사지로의 은사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戸 稻造, 당시 동경제국대학 농과대학교수, 그는 삿포로농학교 재직 시절부터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日本人들의 朝鮮移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식민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가 群山에서 木浦로 출발했다.(『朝鮮新報』 明治 39 = 1906년 11월 10일, 2면 기사 참조) 이때 니토베는 면화제배 성적을 비롯한 농사 상황에 대한 시찰이 목적(『조선신보』 명치 39년 10월

11월 2면 및 11월 10일 2면 기사, 또는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2일, 2면 기사 참조)이었기 때문에 사토와 니토베가 목포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토와 니토베가 만나는 시점인 11월 10일 무렵은 사토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진도에서 ‘채집’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이므로, 일찍이 인류학과 사람의 두개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교의 은사 니토베가 목포를 방문하자 사토 마사지로는 기꺼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니토베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문제에 대해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사토와 니토베가 목포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사토가 니토베에게 유골을 인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1997년 7월, 39쪽 및 146-149쪽 참조)

필자 역시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가 한국의 전라도 서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되는 ‘초분(草墳)’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珍島에는 지금도 草墳이 남아 있다), 또한 그가 삿포로농학교 재직 시절인 1895년 5월에 세키바 후지히코(關場不二彦)와 함께 삿포로인류학회를 조직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사국조선(枯死國朝鮮)」이란 글에서는 한국의 분묘에 대해 상세하고 논하기도 하였다는 사실(『北大百年史 通說』, 年表 참조), 니토베가 1883년에 사람의 두개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수집이나 소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최종보고서, 147-148쪽), 그리고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사토 쇼스케 삿포로농학교 교장과 니토베 이나조와의 관계가 대단히 강고했다는 사실(위 최종보고서, 146-147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도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데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채집을 전후한 시기의 사토 마사지로의 행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
|--------------|---------------------------------------------------------------------------------------------|
| 1878년 6월     | 일본 이와테현(岩手縣) 하나마키초(花卷町)에서<br>출생                                                             |
| 1892년 7월     | 삿포로농학교 입학                                                                                   |
| 1901년        | 사토 마사지로, 사토 쇼스케 쇼장으로부터 「식민<br>론을 수강함                                                        |
| 1901년 7월     | 삿포로농학교(현재의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제<br>19기생으로 졸업                                                       |
| 1901년        | 졸업 후 1년 지원병으로 입영                                                                            |
| 1904년        | 제대                                                                                          |
| 1904년 7월     | 러일전쟁에 응소                                                                                    |
| 1906년 3월 10일 | 소집해제, 쿠시로(釧路)에서 배로 요코하마(横浜)로                                                                |
| 1906년 3월 21일 | 사토 쇼스케 교장이 도쿄의 사토 마사지로에게<br>서간을 보냄                                                          |
| 1906년 4월 2일  | 전라남도애 10개소의 면채종포를 지정함. 이 10<br>개소 속에 진도군 부내면도 포함됨.                                          |
| 1906년 4월 15일 | 진도 면채종포 용지 매입                                                                               |
| 1906년 5월 2일  | 10개소의 면채종포에 일본인 주임과 한국인 조<br>수가 각각 임명됨.<br><br>진도에는 진도군 부내면에 설치되고, 주임에는<br>야마모토(山本金太)가 임명됨. |
| 1906년 5월 4일  | 사토 마사지로,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목축과 교<br>수인 혼다 코스케(本田幸介)의 소개로 한국 통감<br>부 권업모범장 기수에 임명됨                  |
| 1906년 6월 5일  | 사토 마사지로, 도쿄(東京)을 출발함                                                                        |

- 1906년 6월 9일 사토 마사지로, 서울(京城)에 도착함
- 1906년 6월 27일 사토 쇼스케 교장이 서울의 사토 마사지로에게 서간을 보냄
- 1906년 6월 8일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업무 개시
- 1906년 6월 15일 권업모범장 수원본장 사업 개시
- 1906년 8월 7일 사토 쇼스케 삿포로농학교 교장, 한국 목포의 통감부 권업모범장의 오이소 진타로(大磯仁太郎)에게 서간을 보냄(사토 마사지로의 부임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음)
- 1906년 8월 13일 진도 면채종포의 면화가 開花함.
- 1906년 후반 사토 마사지로, 한국 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수로 근무함.  
(『조선신보』 명치 39년 1월 16일자 기사 참조)
- 1906년 9월 20일 사토 마사지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체집함
- 1906년 9월 20일 진도 면채종포에서 한국인 소작인들에게 장려금을 수여함, 이 자리에는 한국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에서 출장 나온 일본인 기사와 기수주임이 참석함
- 1906년 11월 6일 사토 마사지로의 은사, 니토베 이나쵸가 군산을 출발하여 목포로 향함
- 1907년 1월 14일 사토 마사지로, 권업모범장 수원본장 근무(목포업무 겸임)
- 1907년 5월 4일 사토 마사지로, 기수(技手)에서 기사(技師)로 승진함
- 1907년 10월 31일 사토 마사지로, 한국중앙농회 제 1회 총회에서 「

|              |                                                                 |
|--------------|-----------------------------------------------------------------|
|              | 목포에 있어서 면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함                                         |
| 1908년 1월     | 사토 마사지로,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에 기사로 재직함                                   |
| 1908년 3월 31일 | 사토 마사지로, 목포 임시면화재배소(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가 새 관제에 의해 임시면화재배소로 바뀜) 소장 겸임 기사 |
| 1910년 2월 15일 | 사토 마사지로,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 기사 및 임시면화재배소 소장에서 퇴직함                      |
| 1910년 3월     | 사토 마사지로, 목포를 떠나 경상남도 진주로 향함                                     |
| 1910년 4월 30일 | 사토 마사지로, 경상남도 진주실업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함(진주 종묘장장 겸임)                    |
| 1912년        | 사토마사지로, 평안북도 기사에 임명됨                                            |
| 1912년 5월     | 사토 마사지로, 진주를 떠나 평안북도 의주로 향함                                     |
| 1913년 8월     | 사토 마사지로, 샛포로농학교 교장 사토 쇼스케(佐藤昌介)의 조선 및 만주 시찰에 동행하기 위해 만주로 향함     |
| 1916년 8월     | 사토 마사지로, 평안북도 기사 자격으로 조선 농회 농예위원에 위촉됨                           |
| 1919년        | 사토 마사지로, 기사에서 퇴직함                                               |
| 1922년 6월     | 사토 마사지로, 서울(京城)의 야마토쵸(大和町) 니쵸메(2丁目)으로 이사함                       |
| 1932-3년      | 사토 마사지로, 사토농장(佐藤農場)의 형태를 정비함                                    |
| 1936년 11월    | 사토 마사지로, 서울(京城) 미야이쵸(宮井町, 궁                                     |

|           |                            |
|-----------|----------------------------|
|           | 정동 77번지)로 이사함              |
| 1945년 11월 | 사토 마사지로, 서울을 떠나 일본으로 철수함   |
| 1959년     | 사토 마사지로, 회고록(『佐藤政次郎』노트) 집필 |
| 1964년     | 사토 마사지로, 사망함               |

둘째, 니토베 이외 삿포로농학교의 교수 또는 선배, 동창생 조직을 통해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사토의 손에서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토와 삿포로농학교의 교수 및 선배, 동창생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해 주는 사실들이 그 근거라 하겠다. 예를 들면, 통감부 권업모범장의 사토 마사지로는 삿포로농학교의 교수, 선배 등의 방문을 정중히 맞이하곤 하였는데, 1908년 5월 24일에는 삿포로농학교의 선배이자 당시 와세다대학의 강사로 있던 시가 시케다카(志賀重昂)가 목포를 방문하였다. 시가는 24일에 사토의 안내를 받아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를 견학하였고, 다음 날인 25일에는 고하도(高下島)의 면작 시험제배지도 견학하였다. 그런데 사토와 시가가 만난 것은 ‘유골 채집으로부터 이미 1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기’에 이 때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건네졌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하겠다. 그 외, 삿포로농학교 제 19기 동창생 가운데 호시노 유우지(星野勇三)가 홋카이도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1945년 이후), 그는 사토를 방문하여 환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遺族의 증언). 또한, 사토가 통감부 권업모범장(나중에 총독부 농사시험장)에 재직하고 있던 1910년에는 홋카이도제국대학 교수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가 권업모범장 후신인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 장(長)에 취임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관계가 유골의 반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토가 죽기 직전 또는 죽은 직후, 유언에 의해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기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 하면, 사토의 사후 그의 사재(私財) 대부분이 홋카이도대학에 기증되었기 때문이다.(『佐藤政次郎』노트 참조.)

그러나 ‘유골’이 특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가능성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홋카이도대학 측에 의한 두개골 수집은 쇼와(昭和) 초년, 즉 192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하여 1945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1978년에 처음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이누족 인골 1500여 구의 경우, 대부분 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06년에 ‘採集’된 朝鮮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되게 하는 역사적 배경을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의 하나라 하겠으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쇼와(昭和)기’에 반입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다.

#### 【5】사토 마사지로로부터 ‘유골’을 인계받은 뒤 유골이 보관되어 온 경위에 대한 의문점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1969(소화 44)년부터 홋카이도대학 내에 보관되어 왔다고 해명하고 있다.(최종보고서, 9쪽) 그러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1969년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즉 1906년 9월 20일의 ‘채집(採集)’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1969년부터 홋카이도대학에서 보관하게 되었는지, 왜 다른 5구의 두개골과 함께 보관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의 ‘두개골(頭蓋骨)’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꺼려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사람의 두개골이다. 두개골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경이(驚異)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사토 마사지로란 인물은 이처럼 특수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두개골, 즉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채집(採集)' 하면서(또는 채집 후에), '채집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서를 남기고 있다.(유골에 첨부된 문서 및 頭骨에 쓰여진 문서 참조, 필적이 사토의 필적과 대부분 일치함) 그런데, '채집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

한국 측 조사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홋카이도대학에 처음으로 반입되었을 당시의 상황(입수일시, 입수자 등)이 반드시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인들의 철저한 기록 태도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자키 마사카즈(吉崎昌一) 전 홋카이도대학 교수의 증언은 매우 애매모호하며, 그의 증언에 기초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1968(소화 43)년 이전에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어떤 경로를 거쳐 홋카이도대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측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사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 측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되었다. 특히 최종보고서에서는 '유골'을 채집한 사토 마사지로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정책을 말단에서 수행하고 있던 통감부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및 임시면화재배소 기사(技師)라는 사실과 함께, 사토 마사지로가 삿포로농학교 재학 시절에 식민학(인종론)을 배웠다는 사실을 밝혀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이 어떤 경로로 통해 홋카이도대학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수집되었으며, 수집 후 어떻게 보관해왔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은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학자로서 진실을 밝

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시자키 마사카즈 교수의 비협조적 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요시자키 마사카즈 교수의 부임에서 퇴임까지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보관경위

|                    |                                                                                                                                   |
|--------------------|-----------------------------------------------------------------------------------------------------------------------------------|
| 1968년(소화 43) 3월    | 나토리 다케아키(名取武光)교수 퇴임                                                                                                               |
| 1969년(소화 44) 1월 1일 | 요시자키 마사카즈 교수, 나토리 교수의 후임으로 홋카이도대학 이학부 조교수로 부임. 이 때 요시자키 교수가 사용하게 된 교양부 본관 S412호실에는 전임자였던 나토리 교수가 남기고 간 물건 가운데, 사람의 두개골이 이미 존재 있었음 |
| 1969년(소화 44)       | 학원분쟁이 일어남. 요시자키 교수는 학원분쟁 당시 자신의 연구실에 사람의 두개골이 종이상자 안에 들어 있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음. 학생들에게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함                                 |
| 1969년              | 이후 학원분쟁이 끝난 후, 요시자키 교수는 교양부 본관 E동의 E219, 219호실로 연구실을 옮김. 이 때 유골도 함께 옮겨짐.                                                          |
| 1980년(소화 55) 4월    | 요시자키 교수, 교양부 본관에서 후루카와강당으로 연구실 옮김. 유골을 옮기면서 1978(소화 53)년 6월과 7일자 신                                                                |

- 1982년(소화 57) 문지로 싸여 포장됨  
요시자키 교수 연구실이 두 번의 이동을 거쳐 후루카와(古河)강당 구표본고에 정착함(6구의 두개골이 발견된 건물)
- 1995년(평성 7) 7월 26일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후루카와강당 1층 동쪽 끝 구표본고를 정리하던 도중에 아다찌(足立) 조교수 등이 신문에 싸인 채 종이상자에 넣어져 책상 위에 방치된 상태의 사람의 두개골 6구를 발견함.

**【6】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이 홋카이도대학에 반입되어 장기간 방치된 채 보관되어 온 경위**

1996년 4월 13일에 발표된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서』는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이 어떤 목적으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반입(搬入)하였는 지, 반입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해 왔는지 또는 사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종이상자에 넣어진 채 방치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해 온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필자는 1996년 5월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의 한국 봉환을 위해 홋카이도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97년 7월에 공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명되었으나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비롯한 6구의 두개골이 발견될 당시

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6구의 두개골은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중 거로는 ① 오래도록 6구의 두개골을 보관해 온 전임교수로부터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교수가 남기고 간 물품 등을 정리하던 도중에 발견한 점, ② 흰 신문지에 싸인 두개골이 종이 상자에 넣어진 채, 책장위에서 종이상자가 개봉된 상태에서 발견된 점, ③ 1969년 이래 장기간 두개골을 보관해 온 요시자키(吉岐) 전임 교수가 보관경위에 대해 증언하면서 6구의 두개골이 어떤 경로를 거쳐 자신이 보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홋카이도대학 측은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한국에 봉환하기 위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의 두개골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보관해 온 문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한 『최종보고서』에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그 ‘유골’이 홋카이도대학 측으로 반입되게 되는 경로와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둘째 1969(소화 44)년부터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보관해 온 요시자키교수나, 1995(평성 7)년 7월에 방치된 상태의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발견한 아다치(足立) 조교수 등은 모두 인류학 담당교수였다. 이 같은 사실은 홋카이도대학 측이 6개의 두개골을 수집 보관해온 목적은 인류학적 연구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학적 연구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6개의 두개골이 일단 홋카이도대학으로 반입된 뒤 요시자키 교수의 관리 아래로 들어온 뒤인 1969년 이후의 상황을 설명할 뿐,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비롯한 6구의 두개골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1995년 8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홋카이도대학 측에서는 쇼우와(昭和) 초년(1926년 이후) 의학부가 연구용으로 아이누민족 두개골 1,000구 정도를 수집, 보관해 오다가 문

제가 되어 (1982年) 그 해결을 보기까지 5年 半이나 걸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6구의 두개골과 1945년 이전에 홋카이도대학 의학부가 수집해서 보관해 온 1,000구의 아이누민족 두개골과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홋카이도대학 문학부 조사위원회가 공표한 『중간보고서』(1996년 4월) 및 『최종보고서』(1997년 7월)에는 홋카이도대학 측이 무슨 목적으로 6구의 두개골을 반입하여 장기간 보관해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7】 일본 내에는 ‘불법’ 또는 ‘무단’ 으로 반출한 조선인 두개골이 적어도 수백 구 이상 보관되어 있다 — 한일 공동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 측 연구자로서 필자는 1906年 9月 20日 전라남도 진도에서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가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을 ‘채집’해 간 사례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진 일회적 ‘채집’이 결코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차적 근거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침략이었다)이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일본인 학자들의 대다수가 ‘조선 연구’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필자는 1900年 이후 일본인에 의한 한국인 두개골 ‘채집’ 및 반출 사례는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식민지시대에 제국대학(帝國大學)이었던 일본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문헌 조사를 한 결과 1900년대 이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한국인 두개골이 대량으로 수

집되어 일본의 제국대학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경제국대학 의학부의 전신인 제 1대학 의학교를 졸업한 코가네 이(小金井良精, 1858-1944)는 1887년 이전에 코이케(小池)가 ‘채집’한 조선인 두개골 4구에 대한 연구를 1887년 11월 『동경의학회잡지』에 발표한 바 있다. 둘째,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 인류학교실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1863-1913)에게 사사(師事)한 일본의 저명한 인류학자 토리이 유조(鳥居龍藏, 1870-1953)는 조선총독부의 촉탁(勅託)에 의해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연 7회에 걸쳐 조선 각지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1913년 12월 하순부터 1914년 7월 말까지 실시한 조사를 예로 들면, 경상남도 김해, 경상북도 대구, 서울(京城), 전라남도 목포, 제주도, 전라남도 진도, 여수, 순천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며 인류학적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선인에 대한 체질(體質) 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1903(명치 36)년부터 아이치현(愛知縣) 현립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쿠보다케(久保武, 1879-1921)는 1907년 대한제국의 대한의원(大韓醫院) 교수로 초빙되어 1910년 11월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4년여에 이르는 근무 기간동안 조선인 생체(生體)에 대한 계속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조선인 두개골 222구를 비롯한 수천에 이르는 조선인 인골(人骨)을 수집한 바 있다. 넷째 1906(명치 39)년 동경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16년 동북제국대학 교수가 된 하세베 코돈도(長谷部言人, 1882-1969)는 『조선총독부 대정7년도 고적조사보고』(1918년)에 「성주고분(星州古墳) 인골조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 중부지방에서 27구의 조선인 남성 두개골을 ‘채집’하였다고 쓰고 있다. 다섯째 1909년 경도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16년 동(同) 대학 조교수가 된 키요노 켄지(清野謙次, 1885-1955)는 1919년부터 인골(人骨) 수집을 목적으로 일본 각지의 패총(貝塚) 발굴을 개시하였다. 그는 키요노연구실(清野研究室)이라는 별도의 연구

실을 설치하여 1940년까지 운영하였으며, 키요노연구실을 폐지하고, 수집한 인골을 경도대학에 기증하는 1940년까지 약 1400구에 달하는 인골을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4구의 조선인 인골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정성제국대학 의학부 해부학교실의 우에다 츠네토시(上田常吉) 교수를 비롯한 일본인 교수들(시마 고로=島 五郎, 이마무라 유타카=今村 豊, 아라세 스스무=荒瀬 進)이 조선인 두개골 수백 구를 ‘채집’하여 연구한 결과를 일본 『인류학잡지』에 기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마 고로(島 五郎)의 「현대조선인 체질인류학 보유」(『인류학잡지』 49-7, 1934년, 245쪽)라는 논문에 따르면, 1931년에 발표된 우에다 츠네토시(上田常吉)의 “조선인 분포 두개골 남성 175례, 여성 163례 등에 대한 연구”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는 모두 338구의 조선인 두개골이 ‘채집’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채집’된 조선인 두개골 숫자가 모두 595구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06년 9월 20일에 사토 마사지로에 의한 동학농민군지도자 ‘유골’ 채집 이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두개골 또는 인골 ‘채집’이 1945년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조선인 두개골이나 인골 ‘채집’이 불법 또는 무단의 형태로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조선인 두개골 ‘채집’은 일본인 인류학자, 해부학자, 고고학자, 민속학자, 농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를 물론이거니와 사토 마사지로와 같이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와 관련된 하급관리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보통의 일본인에 의해서도 ‘채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각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내에 두개골을 비롯한 한국인 인골이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는 지, 현재 단계로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향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조선인 두개골이나 인골의 ‘채집’은 불법, 또는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다. 조선 측의 허가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분묘를 발굴하거나 심지어는 도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분묘에 대한 도굴은 값비싼 문화재를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두개골을 비롯하여 사람의 인골도 대량으로 도굴되었다. 분묘 도굴 관련기사의 예로는 『경성신보(京城新報)』 1908년 1월 16일 3면의 「또 분묘를 파다」를 비롯하여 동 2월 11일 3면의 「분묘를 발굴하다」 등이 있다. 이들 기사를 통해 당시 분묘에 대한 도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일본 내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인 두개골 보관실태에 관한 한일 공동조사를 홋카이도대학을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공동조사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조선침략에 의해 빚어진 양국간의 불행했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미래에 한일 양국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공동조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철저하게 탄압하여 좌절시키고,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학살’ 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솔직한 반성의 표시가 될 것이다.

## 토론 및 대담(Ⅰ)

발표 : 박맹수(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사회 : 이영일(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 : 박대길(진안군청 학예연구사)

사회자 : 지금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발굴자료 학술세미나중 첫번째로 박맹수교수님의 “진도지방의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발굴자료 학술세미나”는 단일주제로는 가장 큰 주제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실체는 물론 중요한 구체적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진일보한 연구의 장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그간의 연구는 동학에 대한 전체적 연구 및 사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미시적이고 지역사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북해도대학에서 보관중이었던 유골을 중심으로 진도지방의 구체적 동학농민혁명의 모습을 기술한 이번 논문은 매우 가치있는 연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이 논문을 저술하신 박맹수 교수로부터 논문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수 : 소개받은 박맹수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혁명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이하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조출한 발표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위상을 제 정립하는데 중요한 전초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작업에 참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발표할 논문은 1995년의 사건입니다. 지난 10년동안 국내외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는데, 금년(2005) 10월에 진도군청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금번에 최종적인 내용을 제출하고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진도에서 발표를 하지 않느냐 의문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전라북도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사건 당초부터 10년동안 이 사건에 전력을 하게 되어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유골의 주인공이 진도지방 출신의 사람이여서, 고향에 그 유골을 안치해야한다는 것이 한국사람들의 전통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진도군청과 합의를 해서 노력은 전주에서 했지만, 진도에 안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연구의 특허권은 저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웃음) 이런 경위로 논문발표는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박맹수 교수로부터 진도지방의 동학농민혁명과 유골방치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발표내용 및 토론 내용은 새롭게 조성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료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 대하여 진안군청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대길 학예연구사로부터 약정토론을 진행하고, 후에 이 자리에 참가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및 궁금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길 : 소개받은 박대길입니다. 처음 제가 약정토론을 의뢰받은 것은 박맹수 교수께서 저술한 “진도지방의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의의” 였는데, 제가 받은 글은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유골방치사건” 이였습니다. 어쨌든 이 2가지의 주제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발표 및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과 여건 등으로 인해 뒷부분에 우선하여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토론이 진행되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교수님께서 이룩하신 성과를 접할 수 있고, 보다 더 큰 문제제기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과 일제의 만행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제가 자행한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상들을 사실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간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골방치사건은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 두개골을 약탈해 간 역사적 배경, 둘째, 1876년 이래 일본인은 시찰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조선 시찰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셋째, 유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약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훗가이도 대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1894년 12월 말 진도에서 일본군에 자행된 동학농민군 처형 및 진압의 진상과 일본군의 불법적인 행위와 책임은 무엇인가, 다섯째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한 면화제배 사업을 통해 본격화된 일제의 조선침략 실상은 어떠한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박 교수님께서 이러한 과제들을 밝히기 위해서 오랜 기간 진상규명을 해 오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도 학문적인 연구성과를 통해 이와 같은 과제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박 교수님의 연구성과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를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몇 가지 첨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골방치사건’은 발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되리라 봅니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왜 일제가 동학농민군의 유골을 약탈해 갔느냐는 것입니다. - 발표문에는 일제가 사용한 ‘체집’ 그리고 ‘반출반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약탈’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 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약탈의 목적은 두개골 연구를 통해서, 물론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의미의 연구가 아니라 일제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침략과 약탈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두개골을 약탈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골 약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자행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731부대 등에서 자행된 생체실험 등과 연계하여 살펴 볼 수는 없는지요.

두 번째는

일제의 유골 약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골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일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보입니다. - 물론 대학교를 중심으로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목적을 위해서 진행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만, - 즉, 우선적으로 인력 양성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담당할 부서와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있었을 것이며, 이들을 각지에 파견하기

위한 경비 및 일자리 등의 확보, 약탈을 위한 대상 선정 등을 위한 현지에서의 협조자 확보 등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졌는지요.

세 번째는

훗가이도 대학 문학부에서 진상규명과 사죄, 한일 두 나라 연구자들의 공동조사와 연구 등 두 나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전향적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조치 등이 있었으나, 유골 방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인 된 농학부·의학부·의학부 등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 역시 일본의 두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개골을 무슨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학부에서 인류학 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문학부에 미루고, 농학부·의학부·의학부 등에서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하는 행태가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두 얼굴을 상대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지인들과 연대하여 접근하여 연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은 유골에 관한 것으로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군요.

유골의 수입경로 및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정도 와 이 사건이 향후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맹수 :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대하고 10년동안 고심했던 문제만을 골라서 질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웃음).

그래서 오히려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학계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거친 표현을 빌리자면 박맹수는 동학에 미친놈이니까 대학도 4년이나 휴학을 하고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한 것이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연구작업이었습니다.(웃음)

어쨌든 이 연구를 하다가 보면 저도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감정이 묻어나옵니다. 이 논문에 채집이라는 표현은 역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약탈이 맞는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0여개의 유골이고, 여러 연구기관(일본 인류학회)을 통하여 알아보던 추정이지만, 일제시대에 혹은 중일전쟁 시기에 731부대 등과 관련이 있는 전단계로서의 연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벽을 깨고 개인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우리나라 쪽의 기구를 발족하여 공식적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여론화해야 이벽을 뚫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선생이 지적 했듯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져온 자료 중에 인류학문서나 유골자료도 많이 있는데 아직 이런 자료를 목록만 작성을 했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골 약탈의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 만의 모습이 아니고,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유행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흐름의 하나가 식민주위 정책학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힘이 있는 한나라가 다른 식민지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는 심지어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진리다 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류학중에서 인종론이라는 것인데, 이 학문의 근원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를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이고, 인종주의는 가장 열등한 민족 아이누의나 한국, 대만 오끼나와 등이고, 일본은 그 다음으로 우등한 민족이나 역시 백인들에 비하면 열등하다는 식의 인종주의의 연구가 국가적으로 장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에 경제적 혹은 물질적으로 장려가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토리 유조라는 학자로 이 친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7차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베리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진도까지 가게 됩니다. 즉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시네마현이 독도에 대하여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보면 일본에서는 지차체가 하는 일이니 일본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요지의 논리를 펼칩니다. 즉 학교라는 것은 독립된 단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무수히 많은 항의 및 자료요구를 하여도 학교에서 협조를 안하면 일본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되뇌이고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초로 훗가이도 대학 의학부에서 (이 유골에 대하여) 관여를 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선 삿포르 농업학교 시절에는 이학부가 그

리고 그 전에는 농학부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점점 커지면서 농학부와 이학부가 합쳐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으로 관여를 했던 것이 문학부인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최종적으로 문학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단계에 대하여 대학측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것은 학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학계가 공동적으로 모여서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련하여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었고, 2005년 동안에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구가 조성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연구가 거듭되리라 생각합니다.

## 사발통문에 대한 제 고찰

(사)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조광환

### ■ 차례

#### 1. 들어가는 말

#### 2. 여는 말

- (1) 고부농민봉기의 발발 배경
- (2) 사발통문의 발견 경위
- (3) 사발통문을 둘러싼 제 문제
- (4) 제 2의 사발통문
- (5) 사발통문 원본의 향방

#### 3.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자존과 민권회복을 위해 일어난 일대 사건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의지는 결국 봉건정부로 하여금 '신분제 폐지'를 결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민족 저항사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근래 들어 사실 규명과 아울러 그 의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규명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교조신원운동과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갑오농민전쟁 1차 봉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집중되어왔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밝혀지고 또 기존 연구의 오류가 바로 잡히는 성과도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명확하게 서로의 상관관계가 정리되지 못하여 아직도 미진하거나,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 중에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부분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 동학교도의 입장보다는 당시 탐관오리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려는 민중·민족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변혁에 뜻을 둔 일단의 세력(이하 사회변혁주체세력)들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매개로 하여 만났으며 이들은 당시 이러한 사회모순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武裝혁명을 택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선상에서 이들은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인 삼례집회와 복합상소와 보

은·금구집회를 통해서 사회개혁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동학교단내의 상황이 자신들의 뜻처럼 여의치 않게 되자 武裝봉기의 조건이 갖춰진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사전에 구상대로의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는 견해를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고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사발통문을 통해 펼쳐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결론부터 말해 필자는 1894년 1월 10일에 발발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계의 일반적 경향은 고부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며, 지역단위를 벗어나지 못한 단순 민란이므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은 당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때 공개된 사발통문은 비록 동학농민혁명 전반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사료이지만 고부농민봉기의 성격규명과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사발통문 발견 이후 1894년 3월 기포 이후를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그 이전의 고부농민봉기를 기존의 일반 민란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왔지만<sup>1)</sup> 이에 대해 최근 학계에서는 사발통문

1) 김용덕, 《동학혁명 혁명투사 전봉준》 1부, 同學出版社, 1973. p.112.에서는 “사발통문은 먹색으로 보거나 발견경위로 보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고부봉기가 우발적·촉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것이며 처음부터 왕조전복을 기약하는 혁명운동의 起點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 權貴를 盡滅하겠다는 白山盟約後述은 결코一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조되는 혁명기운의 頂點이라는 것을 이 통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또 김의환은 같은 책 2부, p. 132에서 “「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趙秉甲을 효수할 것. ② 軍器倉과 火藥庫를 점령할 것, ③ 군수에게 아유하여 인민을 침어한 貪吏를 격정할 것. ④ 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로 直向할 것」 등을 결의하여 이를 목표로 삼고 동학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보다 넓게 동지들을 규합하여 1894년 1월 10일(陰) 전봉준의 지도 아래 고부에서 봉기한 것을 보면 고부봉기는 오래 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부봉기를 일반 민란으로 보고 3월

에 기재된 결의사항 4개 항이 사발통문의 본내용이 아니며 고부농민봉기의 성격을 크게 확대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발통문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발통문에 의한 4대 결의사항은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해석하여 고부농민봉기의 성격을 사발통문 발견 이전처럼 일반 민란으로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무장(茂長)봉기를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sup>2)</sup>

이는 기존에 발견된 사발통문이 계사년부터 갑오년 3월에 이르기까지의 4~5개월의 기간이 이 한 장의 종이에 수록되어있는 것이며, 내용상 갑오년 12월의 고부농민봉기 뿐만 아니라 3월의 제 1차 농민혁명의 일까지를 합쳐 놓은 것이라고 보는 주장<sup>3)</sup>에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계의 이러한 주장에는 “고부농민봉기와 무장봉기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은 단절된 것인가?” 라는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는 기존의 사발통문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사료의 발견이 있다면 그런 의문점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무장봉기라는 단정적 흐름 또한 재고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제 2의 사발통문이라 부를만한 사료가 최근 입수되

기포 이후를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보아온 견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1994. p.39.에서는 “사발통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부농민봉기는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원대한 혁명적인 거사 계획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부성(古阜城)을 격파한 후 전주영(全州營)을 함락하고 경사(京師·서울)로 향한다는 계획이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고부농민봉기를 민란으로 규정하려는 종래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2) 1985년 『한국학보 1985 여름호』에서 “동학농민혁명의 1차 농민전쟁”에서 전봉준 판결문을 들어 신용하 교수가 무장봉기 설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뒤 역사학회 월례발표회(1992. 3. 14)에서 『수록』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주장한 노용필 교수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역시 무장봉기 설을 주장한 정창렬 교수가 있다. 이 외 많은 학자들이 무장봉기 설을 주장하거나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3) 愼鏞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一潮閣, 1996. pp. 125 ~ 126.

어 미흡하나마 먼저 문제제기를 위한 글이 필요하다 여겨 본고를 정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직접 들은 구전과 1968년에 소개된 사발통문과 제2의 사발통문이 수록되어 있는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를 중심으로 2개의 사발통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고부 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 2. 여는 말

### (1) 고부농민봉기 발발 배경

19세기 후반 봉건정부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아래 신음하던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은 동학교인들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사회변혁을 위한 세력들이 성장하고 결합하는 토양이 되었다.

당시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일시에 수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정부에 맞서는 시위를 전개한 조직은 동학뿐이었으며 동학의 상층부는 이러한 힘을 토대로 동학의 공인을 이루려했다. 이와는 달리 이를 통해 잘못된 사회 자체를 바꿔보려는 또 다른 입장을 지닌 서장옥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에 의해 투쟁의 형태와 성격이 이원적으로 진행되어 갔으며, 이들은 교조신원운동 과정을 통해 서로 결합되면서 동학 조직 내에서 이른바 남접이라 일컬어지는 사회변혁의 주체세력을 형성해갔다.

그리고 사회변혁의 주체세력 중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등은 이미 삼례집회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일단의 세력을 형성하여 갔으며, 또 이를 통해 교조신원과 동학의 종교적 자유, 동학교도에 대한 지

방관의 탐학 금지 외에 보다 정치적 구호인 외세배격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1893년 동학교단 복점에서 준비한 복합상소가 이뤄질 때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지는 않았으나 이들 남접 세력들은 상경한 동학교도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무장을 시켜 궁궐을 습격하여 중앙고관들을 제거하고 조정을 개혁하고자하는 가히 혁명적인 항쟁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절국 서장옥과 전봉준 등 남접 세력들은 사회변혁을 위해 동학교단 상층부를 움직이는 것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남접 또는 전라도 고부(古阜)라는 한 고을의 농민무장봉기로 그 방향을 바꾸어 추진하였던 것이다.

1890년대의 고부는 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수탈 그리고 전운사(轉運使) 조필영, 균전사(均田使) 김창석의 탐학까지 가세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드높아 농민봉기의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때마침 전봉준을 비롯한 남접의 농민군 지도부는 1893년 교단주도의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단순 종교운동이 아닌 사회변혁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비록 그들의 뜻대로 교단조직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민중들의 뜨거운 사회변혁 요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변혁에 뜻을 같이 할 농민군 지도부가 새롭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은 교조신원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침 1893년에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농민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1893년 11월 40여명이 고부관아로 몰려가 만석보의 물세를 감면해달라고 진정했으나 군수 조병갑은 오히려 양민을 선동하는 난민(亂民)으로 몰아붙여 그 가운데 대표 몇 사람을 구금하였다.

그 후 농민들의 진정은 계속되어 다음 선달에는 또 60여명이 몰려갔으나 쫓겨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대한 한계를 절감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무력항쟁을 위한 사발통문(沙鉢通文) 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2) 사발통문의 발견 경위

현재 널리 알려진 사발통문은 계사년(癸巳年, 1893) 11월에 고부 서부면 죽산리(現 井邑市 古阜面 新中里 舟山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전봉준·최경선 등 20명이 결의사항과 함께 사발모양으로 등글게 서명된 문서로서 1968년 12월 4일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에 거주하는 송기태씨가 신문에 발표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후 《나라사랑》 제15호에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사발통문의 발견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의환(金義煥 《全瑋準傳記》, pp. 53-54.)에 의하면 그가 1972년 8월 23일 고부 신중리를 찾아가 사발통문을 보관해 온 송후섭(당시 63세)을 만나 다음과 같은 증언을 들었다 한다. 송후섭이 9세 되는 해 그의 부친인 송대화(宋大和: 사발통문 서명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물려받은 서류 껍적이 있었으며, 그것을 보관해오다가 그가 26세 되는 해에 그 껍적을 정리하다가 보니 도장이 찍혀 있는 봉투 2개(하나의 宋大和에 대한 大接主任命狀)가 나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는 국한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여산송씨가보(礪山宋氏家譜)』(1935년 8월 15일 편집 겸 발행 宋柱文) 뒤표지 속에 넣어서 간직해 왔는데, 그것을 1968년 12월 4일 송기태(宋基泰: 宋後燮의 一族)가 족보를 보다가 끄집어내서 보고 세상에 발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100년》(김은정, 문경민, 김원용. 나남출판1995.p. 107)을 보면 송기태(사발통문 서명자 20인 중 하나인 송국섭의 자로 1971년 7월 5일에 작고함)는 처음에는 자신의 가전 유품 속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그 아들 송중수는 송후섭의 집 마루 밑 땅속에서 『여산송씨가보(礪山宋氏家譜)』가 나와 그 가운데 사발통문이 들어 있었다고 전한다. 그 후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4일(음력 10월 보름달) .

정읍시 고부면 강교리 종암마을 송씨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주산마을 송후섭(송대화의 아들)집에 모여서 문중이야기를 하던 중 보첩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기남 옹은 송후섭의 책상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사발통문 작성지로 알려진 고부 신증리 죽산마을 송두호 집터

이상을 살펴보면 그 발견경위가 각각이나 그 중 공통적인 증언은 처음 소장자는 송후섭이었으며 그는 그의 부친 송대화로부터 사발통문을 유품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1968년 12월 4일에 송국섭의 아들 송기태가 가보(家譜)를 보다가 발견하여 정읍 향토사가인 최현식 선생에게 전하였으며, 최현식 선생은 이것이 다시 김재 김상기 박사에게 전해져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후 1969년 11월부터 사발통문 발견 사실이 국내 각 언론에 보도되어 동학농민혁명이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라는 종래의 주장과는 달리 사전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의 노력으로 1969년 12월 1일에 정읍시 고부 신중리 주산마을 입구 언덕에 “동학혁명모의탑”을 세우게 되면서 사발통문은 이를 영구히 안치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뜻에 따라 탑 밑에 묻어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사발통문의 진위논란 및 사료적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정읍)와 정읍군 문화공보실에서 사발통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1970년 3월 4일에 탑을 해체하고 사발통문과 임명장 등 고문서 5점을 발굴하여 당시 문화공보부로 보내서 감정을 받게 되었다.

문화공보부에서는 문화재위원 이흥직 박사에게 감정을 맡겼으며, 감정결과 문화재로 지정가치는 없으나 역사적 가치는 중요하니 지방문화재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지의 감정통보가 있었고(문화공보부 1028.2-2157.<1970. 4. 7.>)이어 전라북도에 지방문화재로 추천보고 되었다. 그 뒤로 사발통문은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할 때 대여 요청을 받아 7월 6일부터 기념관에 전시되어 널리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발통문도 10여 년이나 대여한 터이어서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아 현재 송종수가 보존하고 있다.

### (3) 사발통문을 둘러싼 세 문제

사발통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이 진위문제와 4대 결의항이 사발통문 작성 시에 써어진 것이 아니며 갑오년 3월 봉기 이후의 일을 회고해서 쓴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사발통문 진위문제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사발통문이 진본이 아닌 필사본이라는 주장은 같은 마을에 사는 임두영(1930년생 :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거주, 전화 063-536-8474)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발통문 원본을 유일하게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두영씨가 처음 사발통문을 접하

게 된 것이 1946년(당시 16세)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로 송창운씨와 함께 송재섭씨 집에 가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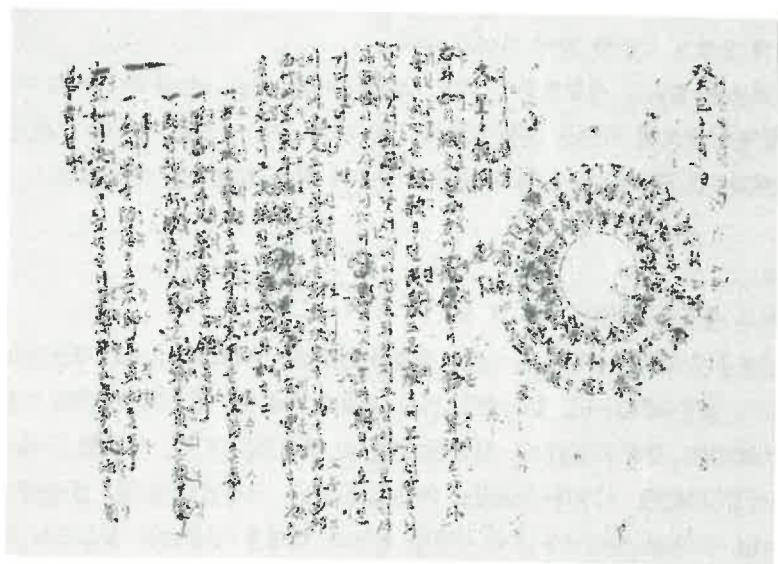
당시 임두영은 송창운의 요청으로 송씨 문중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송후섭의 부엌에서 처마 밑 환기구멍에 끼워 두었던 보자기에서 사발통문과 송대화를 동학 접주에서 대접주로 한다는 칙령장, 송두호 교장칙령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원본은 창호지 1장 크기(가로 50×세로 70센티 정도)로 현존하는 사발통문의 서너 배 크기이며, 종이도 검붉게 퇴색되었으며 한자로 된 서명자

이름 옆에 현재 전하는 사발통문처럼 한글 이름도 달아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서명자의 글씨체 또한 각각 달랐으며, 이름까지는 몰랐으나 박(朴)씨가 한 사람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하는 사발통문은 훗날 동학혁명모의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송기태가 송창운과 함께 자신에게 협조요청 차 왔을 때 처음 보았다는 것이다. 송기태가 그때 가져왔던 현존하는 사발통문에는 박씨가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송기태의 부친인 송국섭이 들어있어 이 문제로 송창운(용섭)과 송기태가 싸웠는데 그때 송창운이 송기태에게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니 애비(송국섭)는 나보다 4살 더 먹었어. 빼려면 다른 사람을 빼지 하필이면 기섭이 할애비(박병록)를 뺏느냐? 기섭이 할애비는 고부관아에서 혀를 물고 죽었는데 그를 왜 빼버렸느냐’ 라고 꾸짖었다 한다.

여산송씨 판결사공과 족보(礪山宋氏 判決事公派 族譜-1935년 간행)에서 사발통문 제작 당시(1893) 송국섭의 나이를 살펴보면 만 14세임이 확인되었고, 송창운의 나이는 만 10세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1969년 동학혁명모의탑 건립준비 시에 임두영의 집에서 송창운이 송기태와 싸우면서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니 애비는 나보다(송창운은 혁명 당시 본인의 나이를 9세로 기억함) 4살 더 먹었어” 라는 임두영의 증언과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1968년 12월 4일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에 거주하는 송기태씨가  
신문에 발표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발통문

#### ▶ 참고문헌

무엇보다도 당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중차대한 거사계획에 불과 14세 소  
년이 참여했다는 점에 무리가 따른다. 다시 여산송씨 판결사공파 족보를  
살펴보면 사발통문 서명자 20명 중 송씨 일족으로는 송두호, 송대화 송주  
옥, 송주성, 송국섭 등 5명이며, 이들 모두가 혈족관계임을 알 수 있다. 송  
두호의 큰아들이 송대화이고 작은 아들이 송주성이며, 송대화의 중형이 송  
주옥이고 그의 아들이 송국섭이다. 그렇다면 한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함께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참여한 것이 되는데 이점 또한 당시 사회 통념상 무리한 일이 아닌가 싶다.

기존에 알려진 사발통문은 가로 48.5센티미터 세로 33.5센티미터 크기의 1장짜리 한지에 국한문 혼용으로 총 330 자의 글을 붓으로 기록해 놓은 문전이다. 그 중 서명자 20명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원형으로 적혀 있다.

가)

계사 십일월 일(癸巳 十一月 日)

전봉준(全琫準), 송두호(宋斗浩), 정종혁(鄭鐘赫), 송대화(宋大和), 김도삼(金道三), 송주옥(宋柱玉), 송주성(宋柱晟), 황홍모(黃洪模), 최흥열(崔興烈), 이봉근(李鳳根), 황찬오(黃贊五), 김응칠(金應七), 황채오(黃彩五), 이문형(李文炯), 송국섭(宋國燮), 이성하(李成夏), 손여옥(孫如玉), 최경선(崔景善), 임노홍(林魯鴻), 송인호(宋寅浩)(등글게 서명한 서명자 20명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정리함.)

각리리집강 좌하(各里里執綱 座下)

나)

우(右)와 여(如)히 격문(檄文)을 사방(四方)에 비전(飛傳)하니 물론(物論)이 정비(鼎沸)하였다. 매일난망(每日亂亡)을 구가(謳歌)하던 민중(民衆)들은 처처(處處)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百姓)들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하며 기일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다)

이때에 도인(道人)들은 선후책(善後策)을 토론결정(討議決定)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면 죽산리(古阜 西部面 竹山里) 송두호가(宋斗浩家)에 도소(都所)를 정(定)하고 매일운집(每日雲集)하여 차서(次序)를 결정(決定)하니, 그 결의(決議)된 내용(內容)은 좌(아래 - 인용자)와 여(如)하다.

1. 고부성(古阜城)을 격파(擊破)하고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을 효수(梟首)할 사(事).

1. 군기창(軍器倉)과 화약고(火藥庫)를 점령(占領)할 사(事).

1. 군수(郡守)에게 아유(阿諛)하여 인민(人民)을 침어(侵漁)한 탐리(貪吏)를 격징(擊懲)할 사(事).

1. 전주영(全州營)을 함락(陷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사(事).

우(右)와 같이 결의(決議)되고 따라서 군략(軍略)에 능(能)하고 서사(庶事)에 민활(敏活)한 영도자(領導者)될 將…(여기서부터 누락됨,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바꿈) “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 ~ 다)항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3개항의 내용이 모두 1893년 11월의 정소운동을 위한 사발통문과 직결되는 사건이며,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1월 말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임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sup>4)</sup> 이 문서가 계사년부터 갑오년 3월에 이르기까지의 4~5개월의 기간이 이 한 장의 종이에 수록되어있는 것이며, 내용상 갑오년 1·2월의 고부 농민봉기 뿐만 아니라 3월의 제 1차 농민혁명의 일까지를 합쳐 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5)</sup>

먼저 자료의 구성을 보면 가)는 1893년 11월에 고부읍의 각 리 집강들에게 돌린 사발통문의 일부이다. 나) 부분은 “우와 여히 격문을 사방에 비전하니”라는 구절로 미루어볼 때 이 무렵에 나온 어떤 격문에 대한 민중의

4)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하), 韓國史研究, 1985. pp. 101 ~ 105.

5) 愼鏞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一潮閣, 1996. pp. 124 ~ 126.

반응을 적은 기록이다. 따라서 사발통문의 내용은 가) 부분에서 끝내고 사발통문에 실린 내용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sup>6)</sup>

이에 대해 신용하 교수는 다)의 4개 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4개 결의사항 중에서 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趙秉甲을 효수할 사, ③ 군수에게 아유하여 인민을 침어한 貪吏를 격정할 사만이 고부민란 때의 것이다. 고부민란 때 亂民들은 고부 郡衙를 점령하여 약 10 일 가까이 古阜郡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아 내에 있는 軍器倉과 火藥庫를 점령하지도 않았으며, 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서울)로 向할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포함된 ② 軍器倉과 火藥庫를 점령할 사, ④ 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로 直向할 사의 결의항은 古阜民亂이 일단 끝나고 按察使 李容泰가 800명의 驛卒로 구성된 官軍을 끌고 와서 고부민란의 수모자와 東學徒를 색출하여 체포하려고 농민들에게 극악한 횡포와 탄압을 가하자 全琫準 등이 茂長으로 잠행하여 孫化中, 金開男 등 大接主들과 함께 北接에서 분리 독립된 茂長南接都所를 차린 이후의 일이다.<sup>7)</sup>

그러나 비록 이 주장처럼 어떤 東學徒가 자기도 참가한 癸巳年 等狀과 甲午年 고부민란 및 동학농민혁명을 회고하여 기록한 ‘진짜’ 회고록을 일부 필사한 것<sup>8)</sup>이라 할지라도 이 통문을 잘못 誤讀한 부분이 있다. 앞의 글에서 말한 회고자는 분명히 이 4개의 결의 사항을 송두호家에 모아서 일의 순서를 결정하였다고 그 결의 장소까지 정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 때 결정

6) 위 논문, p. 124

7) 愼鎭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一潮閣, 1996. pp. 125~126.

8) 위의 책, p. 129.

된 내용은 左와 같다고 하며 좌측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4개항을 나열해 놓았다. 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趙秉甲을 효수할 사. ② 軍器倉과 火藥庫를 점령할 사, ③ 군수에게 아유하여 인민을 침어한 貪吏를 격정할 사. ④ 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로 直向할 사.

또 위의 주장대로라면 회고자나 필사자가 그 배열의 순서를 굳이 ①②③④의 순서가 아닌 ①③②④로 배열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② 軍器倉과 火藥庫를 점령할 사의 사항이 갑오년 정월의 고부농민봉기 때가 아니고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에 재차 일어나 고부를 점령했을 때 이뤄진 사항이라는 주장은 더욱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목숨을 걸고 일어난 고부농민봉기의 상황 속에서 고부관아를 점령한 농민들이 고부관아에 있던 병장기들을 그대로 두고 그 후 말목장터와 백산에 留陣할 수 있었겠는가?

問 軍器軍糧 自何處區劃乎

供 軍器軍糧 皆民間措辦矣

問 古阜軍器庫軍物 汝不爲奪取耶

供 其時則無奪取<sup>9)</sup>。

이상의 문답은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으로 재차 기포 했을 때 전봉준의 주모 여부를 묻은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기서는 오히려 재차 기포 시에는 ‘고부 군기고의 군물을 그때는 탈취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1894년 정월 말목장터에서 고부관아를 점령할 때 군물을 이미 탈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군물을 탈취한 적 없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앞서 민간에서 마련했다는 답변은 그가 말목장터에서 해산하여 무장으로 피신하기 전 말목장터 근처 민가에 숨겨 놓았던 군물을 되찾았다는 것

9) 「全琿準 供草」, 初招問目

으로 봐야 할 것이다.<sup>10)</sup>

신용하 교수의 위의 주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전과정을 4단계로 나누고 그 중 1단계를 “고부민란”의 단계로 보고 단순 民擾의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2단계를 “동학농민혁명”의 제 1차 단계로서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 이후 茂長에서 일어난 농민군이 고부를 제차 점령했을 때로 구분 설정하여,<sup>11)</sup> “고부민란”을 과거 삼례집회나 보은금구집회 등 여러 변혁운동을 하나의 연장선으로 파악하지 않고, 또 “고부민란”과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로 인식한 결과였다.<sup>12)</sup>

#### (4) 제 2의 사발통문

최근 필자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설득력을 더해줄 수 있는 제 2의 사

10) 장봉선, 〈전봉준실기〉, 《갑오동학혁명사》, p. 406. “興奮된 군중은 병갑의 부하 卽傲吏輩를 一一히 찾았으나 亦是 避身하였으므로 家屋만 顛覆하고 刑獄을 毀破하여 冤囚를 放送한 後, 軍器庫를 激波하여 軍器를 所持하고 翌日에 馬項市場에 退屯하였다.”

11) 신용하, 위의 책, p. 130.

12) 줄고 전봉준의 생애연구, “고부봉기 및 갑오농민혁명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전봉준이 최소한 1892년 11월 삼례집회 때부터 서장옥을 비롯한 남접세력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거사였다. 이 때 전봉준은 柳泰洪과 함께 관찰부에 訴狀을 提呈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또 전봉준은 광화문 복합상소에 앞선 1893년 正月 初에는 昌義文을 著作하여 同月 10일 전라도 각 邑 衙門에 榜文을 붙였다. 이렇듯 전봉준이 지은 글이 各郡衙門에 게시될 정도로 동학 조직 내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거기에 호응하는 전라도 각지의 인물들과 조직적 연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듯 동학 조직 내에서 전봉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김개남, 손화중, 김덕령, 황하일 등의 남접세력은 1893년 3월 금구 원평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금구 집회의 주도세력들은 보은 집회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집회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동학교단 상층부가 주도한 보은집회가 해산되자 금구집회 역시 후일을 기약하며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전봉준은 1893년 11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사회변혁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사발통문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1894년 정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발통문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서가 나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송재섭이 1954년에 쓴 것으로 전해지는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이하 실기)이다. 이 자료는 그 동안 학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김용섭(金容燮) 씨가 《한국근대농업사연구 Ⅲ》(2001. 7. 지식산업사)란 저서에 사발통문 관련부분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이 문건의 입수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자는 진암(進菴) 송재섭(1889~1955)이 단기 4287년(1954)에 펜으로 쓴 필사본인데 필자는 박영재(朴英宰) 교수를 통해 박명도(朴明道) 선생(父 朴來源, 祖父 朴寅浩)대에 소장되어 있는 원고본의 복사본을 기증받아 보고 있다”

위의 『실기』를 저술한 송재섭은 사발통문 서명자 20명 중 한분인 송주성의 차남이다. 그는 1889년생으로 그의 나이 35세 때인 1924년에 송주성이 사망하였고 그 후 1932년에 만주로 이주하여 1945년 8. 15 해방 후 귀국하여 고부 강고리로 되돌아와 천도교 고부교구 활동을 하다가 1955년에 사망하였다.

필자가 이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해본 결과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난 후에 씌어진 회고록이긴 하지만 기존의 사발통문과 내용이 동일하며 사발형태의 원형으로 둘러 쓴 형식마저 동일한 사발통문이 실려 있어 사료적 신빙성이 높다고 확신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문건에는 사발통문 거사계획의 전문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전봉준이 쓴 비격(飛檄)과 통문이 차례로 사발통문 앞에 실려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飛檄

今之爲臣은 不思報國하고 도절늑위하며 掩蔽聰明하고 加意도容이라 충간지목을 謂之妖言하고 正直之人을 위之比도하여 內無포圍之제하고 外多학

民之官이라 人民之心은 日益유變 入無학생之業하고 出無保子策이라 학政이  
日사에 怨聲이 相續이로다

自公卿以下로 以至方伯守令에 不念國家之危殆하고 도절비己운家之計와  
進選之門은 視作生화之路 요 응試之場은 舉作交역之市라

許多화뢰가 不納王庫하고 反充사장이라 國有累積之債라도 不念國報요 교  
사음이가 無所위기라 人路魚肉에 萬民도탄이라

民爲國本이니 本削則國殘이라 吾道는 유초야유민이나 食君之土하고 服君  
之義(衣)하며 不可坐視國家之危亡이라 以報公輔國安民으로 爲死生之誓라

癸巳仲冬下旬 罪人 全琫準 書

#### (나) 通文

右文爲通諭事 無他라 大廈將傾 比將奈何오 坐而待之可乎아 扶而救之可乎  
아 奈若何오 當此時期하야 海內同胞의 總力으로 以하야 撐而擎之코저하와  
血淚를 灑하며 滿天下同胞의게 衷心으로써 訴하노라.

吾儕飲恨忍痛이 已爲歲積 悲塞哽咽함은 必無贅論이어나와 今不可忍일새  
玆敢烽火를 舉하야 其哀痛切迫之情을 天下에 大告하는 同時에 義旗를 揮하  
야 蒼生을 濁浪之中에서 救濟하고 鼓를 鳴하야 卍滿朝의 奸臣賊子를 驅除  
하며 貪官汚吏를 擊懲하고 進하야 倖倖을 逐하고 洋를 斥하야 國家를 萬年  
磐石의 上에 確立코자 하오니 惟我道人은 勿論이요 一般同胞兄弟도 本年十  
一月二十日를 期하야 古阜馬項市로 無漏內應하라 若不應者 有하면 梟首하  
리라

癸巳 仲冬 月 日

(다) 전봉준(全琫準), 송두호(宋斗浩), 정종혁(鄭宗赫), 송대화(宋大和), 김도삼  
(金道三), 송주옥(宋柱玉), 송주성(宋柱晟), 황홍모(黃洪模), 황찬오(黃贊五),  
송인호(宋寅浩), 최홍열(崔興烈), 이성하(李成夏), 최경선(崔景善), 김응칠(金應  
七), 황채오(黃彩五)

(라) 各里 里執綱

座下

右와 如한 檄文이 四方에 飛傳하니 物論이 鼎沸하고 人心이 惴惴하였다. 每日 亂亡을 謳歌하던 民衆들은 處處에 모혀서 말하되, ‘낫네 낫서 亂離가 낫서, 에이 참 잘되얏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百姓이 한 사람이나 남 어잇겟나’ 하며 下回만 기다리더라.

이때에 道人들은 先後策을 討議하기 위하여, 宋斗浩家에 都所를 定하고 每日雲集하여 次序를 따라 條項을 定하니 左와 如하다.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一, 郡守의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魚한 吏屬을 擊懲할 事

一, 全州營를 陷落하고 京師로 直向할 事

(마) 右와 如히 決議가 되고, 따라서 軍略에 能하고 庶事에 敏活한 領導者를 將材를 選擇하여 部署를 定하니 下와 如하다.

一, 一將頭에 全琫準

一, 二將頭에 鄭鍾赫

一, 三將頭에 金道三

一, 參謀에 宋大和

一, 中軍에 黃洪模

一, 火砲將에 金應七

여기서 (가) 부분은 전봉준의 이름으로 작성된 비격(飛檄)으로 봉기의 당위성을 밝히는 내용이다. (나) 부분은 통문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봉화(烽火)를 들어 그 애통하고 절박한 사정을 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의로운 깃발을 들어 창생(蒼生)을 구하고 복을 올려 조정에 가득 찬 간신도

적 무리들을 쫓아내고 탐관오리를 물리치며, 나아가 왜와 서양세력을 몰아내고 국가를 튼튼히 하고자하니 동학을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동포형제도 1893년 11월 20일에 고부 말목장터로 모이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효수하겠다.” 는 것이다.

여기서 동학교인과 백성들에게 말목장터로 1893년 11월 20일에 모이라는 대목은 실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던 1894년 1월 10일 이전에 농민봉기를 시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불발에 그치자 갑오년 1월 10일 봉기하게 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㉔) 부분은 통문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여기에서는 그 서명자 숫자가 기존의 사발통문 서명자 숫자인 20명이 아닌 15명으로 나와 있다. 즉, 기존의 사발통문에 나오는 서명자 중 임노홍(林魯鴻), 손여옥(孫如玉), 송국섭(宋國燮), 이문형(李文炯), 이봉근(李鳳根) 이상 다섯 사람의 이름이 없다. 이는 『실기』가 위 다섯 사람의 이름을 일부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발통문이 더 첨가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누락된 다섯 사람 중 사발통문 진위논란의 주인공인 송국섭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㉕) 부분은 기존의 사발통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격문을 사방에 보낸 후 ‘낮네 낮서 난리가 낮서. 예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사람이나 남아있겠나’ 하는 민중들의 반응과 4대 결의 향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사발통문과 내용과 일치하며, 그와 일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발통문이 僞作이라는 설을 일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실기』에는 사발통문 작성일자가 癸巳 11월이 아닌 계사 仲冬으로 나와 있으며 사발통문에 ‘期日’이라는 글자가 『실기』에는 ‘下回’로 나온다. 이 점을 빼고는 4대 결의 향이 기존의 사발통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고부농민봉기를 이끌 지도자 명단까지 연결되

어 기록되어 있는 점과 그 지도자들 모두가 고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기존에 발견된 사발통문이 계사년부터 갑오년 3월에 이르기까지의 4~5개월의 기간이 이 한 장의 종이에 수록되어있는 것이며, 내용상 갑오년 12월의 고부농민봉기 뿐만 아니라 3월의 제 1차 농민혁명의 일까지를 합쳐 놓은 것이라고 보는 주장은 잘못된 억측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실기』에 따르면 전봉준은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송두호, 송대화와 함께 상의하였으며 거병(擧兵)의 의의를 밝히는 글을 써서 송주성을 시켜 최시형에게 전하도록 하여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면 호서에서도 기포하여 빨리 내용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태인의 최경선, 금구의 김덕명, 남원의 김개남, 무장의 손화중, 부안의 김낙철, 등 각군의 대접주에게 일일이 격문을 보내 함께 일어나도록 촉구한 다음에 고부 각면 각리에 사발통문을 일시에 포고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 이전에 미리 최시형에게 고지를 했으며 호서에서의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또 전봉준은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당시 고부와 행정구역이 다른 태인의 최경선, 금구의 김덕명, 남원의 김개남, 무장의 손화중, 부안의 김낙철 등에게 일일이 격문을 보내 봉기를 촉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히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한 일시적 감정의 폭발로 일어난 민란이 아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거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고부농민봉기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고부라는 일개지역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발통문에 결의한 내용과 같이 고부에서 일어나 전주를 점령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가 중앙정권을 쳐서 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 공초기록(심문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問(질문): 너의 작년 3월에 행한 기포의 뜻은 백성을 위해 제해 할 뜻으로 하였다 하는데 과연이나?

供(응답): 그렇다.

問: 그런 즉 내직에 있는 자들이나 제외임의 관원도 모두 더불어 탐학인가?

供: 내직에 있는 자들도 매관육작을 일삼으니 내외를 물론하고 다 탐학이다.

問: 그런 즉 전라일도 탐학의 관리를 제거코저 기포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팔도를 한 가지로 이같이 할 의향이었느냐?

供: 전라일도 탐학을 제거하고 또 내직의 매작권신을 쫓아내면 팔도가 자연히 한 몸이 될 것이다.

問: 너는 고부군수에게서 피해가 많지 않았는데 어떠한 의견으로 연유하여 이 거사를 행하였는가?

供: 세상살이가 날로 그릇되어 가는 고로 개연히 한번 세상을 건져 보고자 하는 의견이었다.

또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의 진중(陣中) 수행원임을 밝힌 김홍섭(1965년 10월28일 92세를 일기로 사망)의 회고기록을 보면

“ 읍접주들(邑接主)과 기병모의(起兵謀議)

김웅이 전봉준 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893년 12월10일 무장군 동음치 당상리(현 고창읍 공음면)의 송문수(宋問洙)씨택에서 전 장군이 잠시 몸을 피하면서 동학교 접주 손화중, 김성칠(金聲七), 정백현(鄭伯賢), 송문수(宋問洙)등 네 사람과 자리를 같이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의 폭정에 일어날 것을 약속기병(起兵)을 모의할 때였다.

그 후 1894년 2월19일엔 당시 동음면 신촌리(冬音面 新村理)의 김웅집에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하였는데 여기모인 사람은 전기 손, 김, 정, 송씨 외에 김개남, 서인주(徐仁周), 임천서(林天瑞), 김덕명, 강경중(姜敬重), 김영달(金永達), 고영숙(高詠淑), 최재형(崔載衡)들이었다. 김웅의 부친 김성칠 접주는 그 준비공작금으로 쌀50섬을 내놓았다.” <1965년 11월5일자 중앙일보>

여기서도 전봉준은 서인주와 손화중, 김개남, 정백현, 김덕명, 강경중, 고영숙 등 훗날 백산봉기에서 농민군 지도부가 되는 납접의 유수한 수령들과 고부봉기 이전부터 혁명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발발한지 3일 만에 전봉준이 무장으로 달려가 앞에 거론한 인물들과 거사논의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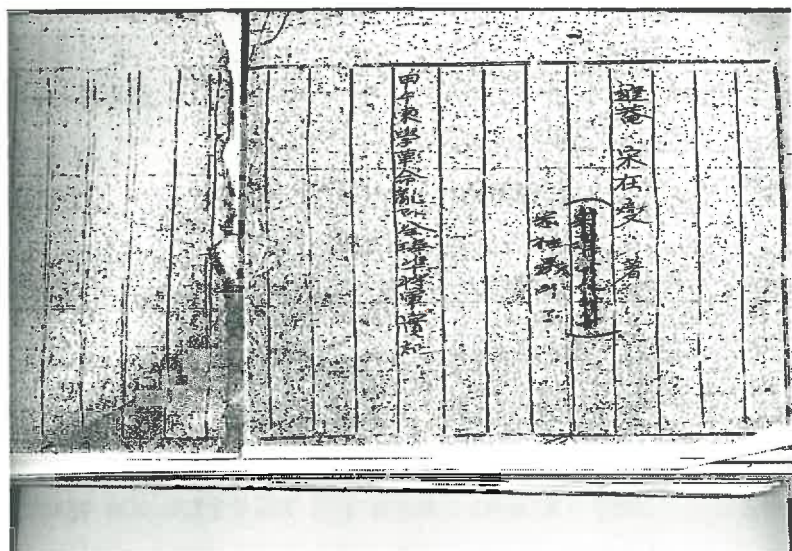
따라서 “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로 直向할 사의 결의 항은 古阜民亂이 일단 끝나고 按察使 李容泰가 800명의 驛卒로 구성된 官軍을 끌고 와서 고부민란의 수모자와 東學徒를 색출하여 체포하려고 농민들에게 극악한 횡포와 탄압을 가하자 全琫準 등이 茂長으로 잠행하여 孫化中, 金開男 등 大接主들과 함께 北接에서 분리 독립된 茂長南接都所를 차린 이후의 일이다”라는 신용하 교수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고 그와는 단절된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지방 민란으로 보던 종래의 시각도 또한 재고되어야 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 또한 무장봉기가 아닌 고부농민봉기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부분은 고부농민봉기를 이끌어 갈 영도자를 정하였는데 기존의 사발통문에는 “우(右)와 같이 결의(決議)되고 따라서 군략(軍略)에 능(能)하고 서사(庶事)에 민활(敏活)한 영도자(領導者)될 將…” 까지만 나오고 그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기』에서는 전봉준을 최고 우두머리로 정하고 2, 3 번째 우두머리로 각기 정중혁과 김도삼을, 참모에 송대화, 중

군에 황흥모, 화포장에 김응칠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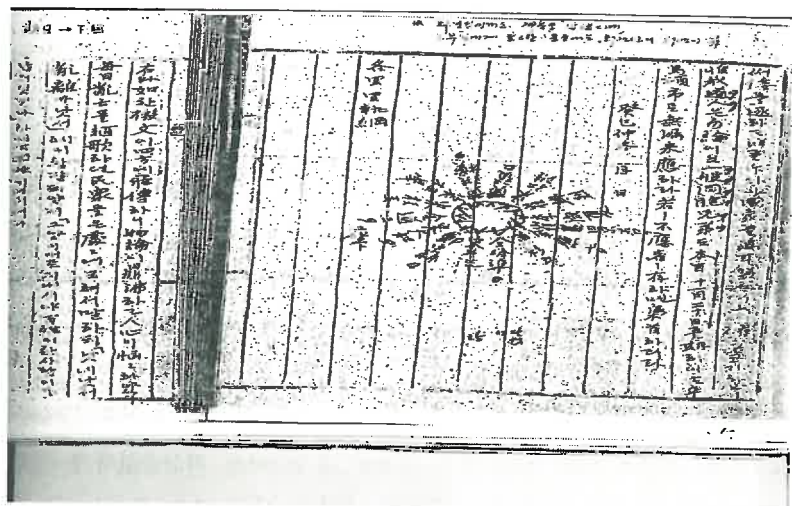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봉준 등 고부농민봉기의 주도자들은 고부 농민봉기를 신호탄으로 하여 호남과 호서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함께 일어나, 한양으로 올라가 중앙 권신들을 처단하고 왜와 서양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혁명을 계획한 것이다.



송재섭이 1954에 기록한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

##### (5) 사발통문 원본의 향방

사발통문에 서명하였던 20인 중 전봉준·최경선은 1895년 3월 서울에서 사형 당하였고 송두호·송주옥·김응칠·황채오·손여옥 5인은 1894년 12월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에 실려 있는 사발통문

또는 그 이듬해 1월에 나주에서 희생되었으며 김도삼·황흥모·황찬오 3인 또한 같은 시기에 전주에서 희생되었다. 그리고 당시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황해도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대부분 변성명으로 고향을 등지고 유리절식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기』의 저자인 송재섭이 쓴 「고부교구실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집터는 본시 송대화씨 집 자리라. 갑오년에 동학대접주의 지목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고로 성명을 변하여 도주하고 그 부친 두호씨와 그 종형 주옥씨는 또한 동학 혐의로 잡혀 전라남도 나주군 옥중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 아우 주성과 기호씨는 황해도 송화군으로 귀양살이 가고 그 집은 경군이 다 불살라버리고 빈터만 있더니<sup>13)</sup>

13) 「고부교구실기」, 17-18면.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재인용.

여기서 사발통문을 자손에게 전해 준 사람으로 지목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송대화(송두호의 장자로 앞뒤 집에서 살았다)와 송주성(송대화의 아우)이다. 이 중 송대화(1858~1919)는 사발통문을 작성한 때 장소를 제공했던 송두호의 큰아들로서, 1894년 9월에는 동학의 접주에서 대접주로 승격한 중요한 인물이다. 『전봉준 전기(정음사, 1974.)』를 쓴 김의환은 고부 신중리 주산마을에 와서 당시 80세인 임기인(林基寅 : 사발통문 서명자 20인 중 1인인 임노홍의 아들)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동학농민혁명 이후 송대화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송대화는 계사년 동학의 두목으로 이 마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갑오동학란 이후 관군에 의해 집과 가구 일체를 소각당하고 피신하였다가 잡혀 일족의 구명운동으로 풀려 나와 도피해 버렸다. 당시 소유 토지는 2천여 평으로 자작농이었는데 그 후 관군에 의해 몰수당했다. 도피 후 임피로 가서 성을 바꾸어 장성팔(성을 팔아 장으로 한다는 것)이라 하여 고용살이를 하다가 부인을 얻어 송후섭을 낳았다. 그 후 다시 강원도로 가 훈장노릇을 하다가 甲辰年(1904)에 고향으로 돌아와 丁未年(1907)까지 흥덕 일진회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천도교가 생긴 후 그만 두었다’

한편 임두영의 증언을 살펴보면 송대화는 동학농민군 훈련대장이었으며 동학농민군이 참패하자 전봉준과 나주에서 헤어져 군산 임피로 가서 장성팔로 이름을 바꿔 신분을 숨긴 채 머슴살이를 하던 중 주인의 눈에 들어 그 집 데릴사위가 되어 살다가 훗날 고부 신중리로 돌아 와 송후섭을 낳았다는 것이다.

또 송기남의 증언을 들어보면 송대화는 진등(고부 신중리와 만화리 접경)에서 충을 맞고 죽은 채 하여 위기를 넘긴 후 임피로 가서 변성하여 장성팔이라 하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 집 데릴사위가 되어 큰딸을 낳고 작은

딸을 임신한 채 이곳으로(고부 신중리) 왔으며 후에 송후섭을 낳았다고 한다.

다시 송중수의 증언으로는 송대화가 1894년 겨울 나주전투를 끝으로 각기 분산하여 고향근처에 잠입했다가 현 정읍시 입석리 부근에서 관군의 총탄을 어깨에 맞고 쓰러져 있다가 생포를 모면하고 임피로 도망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장성팔이라는 이름으로 강씨 집 머슴살이를 하며 숨어 지내다가 그 집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가족상황은 전처 박씨한테 딸 하나를 두었고, 후처 강씨에게서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그 중 큰딸은 임피에서 출생하였고 작은 딸은 임신한 채 1905년 초에 귀향하여 1911년 뒤늦게 아들 송후섭을 낳았다고 한다. 그는 고향에 설치된 천도교 487교리강습소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1919년에 사망했다고 전한다.

이들 증언 중 임기인은 송대화가 관군에게 잡혔다고 하고, 송기남은 진등 전투에서 총을 맞았다고 하며, 임두영은 관군에게 체포되거나 총을 맞은 적이 없이 나주에서 임피로 피신했다는 점에서는 세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증언하고 있으나 그 후의 행적은 대체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발통문과 『실기』가 동일한 내용으로 필사된 것이라면 필사에 필요한 원본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사발통문 원본은 어디로 갔을까? 고증에 의하면 원본은 송주성(宋柱晟 : 서명자 20인 중 1인이며 송두호의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인 송재섭(『실기』의 저자)이 가지고 있다가 1932년에 만주로 이주한 후 1945년 8. 15 해방 후 귀국하여 고부 강고리로 되돌아와 살던 중 1946년 1월경 임두영(중2, 당시 16세)이 송창운과 함께 송재섭의 집으로 가서 처음 원본을 보았는데 크기는 창호지 1장(가로 50×세로 70센티 정도)크기로 필사본의 3~4 배 크기이며, 검붉게 퇴색된 종이에 한자로 된 서명자 이름 옆에 필사본처럼 한글 토도 달아져 있지 않았으며 각기 서명자의 글씨체도 달랐다고 증언했다.<sup>14)</sup>

이어 임두영은 전주공고 역사교사이자 담임인 칠보 송갑수에게 사발통문

을 봤다고 말하자 송갑수는 임두영과 송창운을 대동하고 송재섭 집으로 가 사발통문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1947년 초 송재섭의 처남인 이충재(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세상에 알려줬다며 가져가 결국 보지 못했고 그 후 이충재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원본도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한편 1968년에 송후섭(송대화의 아들)집에서 발견되었다는 현존하는 사발통문은 송씨 집안을 잘 아는 어느 인물(임두영은 송기태로 추정함)이 필사한 필사본이다. 이 사발통문은 송대화가 필사해 둔 것을 송후섭에게 남겨주었으며,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이 사발통문이 송기태가 아닌 송후섭의 가전(家傳)유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두영은 필사자로 송기태를 지목하고 있다. 송기태(1908년생)는 1938년에 만주로 건너가 활동하다 1941년에 귀국 하였다. 송재섭이 만주에서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할 때 그 밑에서 일을 도왔던 송기태가 송재섭이 지닌 사발통문 원본을 보고 필사해줬거나, 귀국 후 특히 1963년 황토현 정비가 이뤄지는 등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지자 만주에서 보았던 원본을 기억하여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송재섭 또한 귀국하여 생을 마감하기 직전인 1954년 사발통문 원본 등 각종 자료를 보고 『실기』를 저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발통문은 그 발견경위가 명확치 않고 진위논란에 의문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섭이 쓴 『실기』와 현존하는 사발통문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며, 사발통문 문서가 당시 사발통문거사계획에 참여한 20인(또는 15인) 중의 하나이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농민군 훈련대장으로 활동한 송대화의 집안에서 나왔다는 점, 또 서명자 모두가 실존인물로서 그 가운데 전봉준, 최경선은 서울에서, 송두호, 송주옥, 황찬오,

14) 『실기』가 소개되기 이전인 1993년에 들은 고증이기 때문에 송재섭이 사발통문 원본을 소지했으리라는 얘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채오, 손여옥은 나주에서, 김도삼, 황홍모, 김웅철은 전주에서 처형당하였는데 10명 모두 1894~1895년 사이에 처형당한 사실이 확인된 점, 문서 내용에 나타난 사실이 후에 모두 실제로 일어났거나 추진되었다는 점과 당시의 정황 상 그러한 사실적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서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교조신원운동과 고부농민봉기의 연관관계와 함께 고부농민봉기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의 이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부농민봉기 및 동학농민혁명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최소한 1892년 11월 삼례집회 때부터 서장옥을 비롯한 남접세력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거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전봉준은 柳泰洪과 함께 관찰부에 訴狀을 提呈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또 전봉준은 광화문 복합상소에 앞선 1893년 正月 初에는 昌義文을 著作하여 同月 10일 전라도 각 邑 衙門에 榜文을 붙였다. 이렇듯 전봉준이 지은 글이 各郡衙門에 게시될 정도로 동학 조직 내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거기에 호응하는 전라도 각지의 인물들과 조직적 연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듯 동학 조직 내에서 전봉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황하일 등의 남접세력은 1893년 3월 금구 원평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금구집회의 주도세력들은 보은집회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집회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동학교단 상층부가 주도한 보은집회가 해산되자 금구집회 역시 후일을 기약하며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전봉준은 1893년 11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사회변혁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사발통문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1894년 정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사발통문이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알려진 사발통문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파악하기엔 부족한 사료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부족을 메워주는 제 2의 사발통문으로 볼릴 수 있는 사료가 최근 필자에게 입수되어 이 두개의 사발통문을 상호 분석해본 결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바로 고부농민봉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목격되거나 전해지는 사발통문은 모두 원본 1종과 필사본 2종이 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2종은 모두 필사본이며 원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사본 두 문서 중 어느 쪽인가는 원본대로 필사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시기적으로 사발통문은 1968년에 공개되어 언제 작성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실기』는 1954년에 쓴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다만 『실기』에는 기존의 사발통문에서는 볼 수 없는 앞부분의 내용(飛槓)과 누락된 뒷부분이 기술되어 있어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실기』의 발견은 전봉준을 비롯한 사발통문 서명자들은 癸巳年(1893년) 사발통문 거사 계획 단계부터 이미 고부농민봉기를 통해 호남과 호서가 함께 봉기하여 전주성을 점령한 후 서울로 직행하여 당시 조선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했던 일련의 활동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부농민봉기를 현재 학계의 “주장처럼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단순 민란으로 평가되어 온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무장(茂長)봉기 설 또한 일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발통문 거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이렇듯 사회 변혁을 꿈꿔왔던 남접세력들이 사전 계획하고 준비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은 계사년 겨울에 실행되지 못하고 보류되고 말았다. 고부고을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중앙에 보고하여 고부 군수 조병갑을 11월 30일자 로 익산군수(益山郡守)로 발령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12월 한 달 동안에 다섯 사람이나 차례로 고부 군수를 임명했으나 모두 갖은 핑계로 부임하지 않았다. 이들이 풍요로운 고부를 마다한 이유는 당시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인 이조 판서 심상훈이 조병갑과 사돈지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조정에서는 조병갑을 다시 고부군수로 재 발령을 내게 된다.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발령 나게 되자 1차 공격 목표를 상실하게 된 전봉준 등은 거사를 미루어 오다가 갑오년 정월(正月)에 와서 조병갑이 다시 고부 군수로 유임되자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하여 고부관아를 습격, 군수 조병갑과 향리(鄕吏)들을 처단하기로 하였다.

갑오년 정월 10일에 예동(禮洞)마을에 풍물패를 일으켜 사방으로부터 모인 군중의 대오를 정비하고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 무장을 시킨 뒤 2개진으로 나누어 1진은 전봉준 장군과 정익서가 인솔하여 정읍시 영원면 운학동을 거쳐 고부 뒷모실 방죽으로 가고, 2진은 김도삼이 인솔하여 산매와 도계리를 거쳐 뒗모실 방죽 끝에서 전봉준 장군과 합세하여 고부관아를 기습 습격하니 조병갑 군수는 어느새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하여 일어난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창고에 쌓인 곡식을 인근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준 후 말목장터로 나와 진을 쳤다.

이 때 고부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상당한 조직력과 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기 직후인 11·12·13·14일에 가담한 촌락 수가 무려 15개 마을이며 이를 통할하는 사람을 각 촌마다 5명씩을 두었고, 농민군 지휘부가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한하지 않고 각각 마을의 동장·집장에게도 공동책임을 지우게 하였던 것이다.

또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징표로 동학농민군 왼손에 노끈을 매도록 한 사

실은 고부농민봉기 당시부터 전봉준을 위시한 지도부는 상당한 조직적인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 또한 고부농민봉기가 우발적인 단순 민란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상으로 필자는 미력하나마 사발통문을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학계에서 주류를 이뤄오던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을 무장봉기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재고와 함께 그 동안 단순 민란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던 고부농민봉기의 올바른 재평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終〉

## ▶ 참고문헌

### 1. 사 료

- 黃 玿, 「梧下記聞」,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1, 여강출판사, 1994.  
 黃 玿 지음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吳知泳, 「東學史」,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1, 여강출판사, 1994.  
 吳知泳, 『東學史』, 대광문화사, 1994.  
 「聚語」,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여강출판사, 1994.  
 「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여강출판사, 1994.  
 金邦善, 「林下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2, 여강출판사, 1994.  
 崔永年, 「東徒問辯」,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6, 여강출판사, 1994.  
 李復榮, 「南遊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3, 여강출판사, 1994.  
 鄭碩謨, 「甲午略歷」,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5, 여강출판사, 1994.  
 金允植, 「沔陽行遣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4, 여강출판사, 1994.  
 張奉善, 「全琫準實記」, 『甲午東學革命史』, 신아출판사, 1994.  
 「本敎歷史」, 『東學農民運動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朴晶東, 「侍天敎宗繹史」, 『東學農民運動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吳尙俊, 「本敎歷史」, 『東學農民運動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박형채, 『侍天敎 宗繹史』, 『東學農民運動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천도교회사초고」, 『동학사상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78.
- 崔疏鉉, 「侍天敎歷史」, 『동학사상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78.
- 이돈화, 「天道敎創建史」, 『동학사상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78.
- 崔炳鉉, 『南原郡東學史』, 복사물, 1924.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국사편찬위원회, 1986.
- 李相堯, 朴孟洙, 洪英基 編, 『全南地方 東學農民革命 資料集』, 전라남도, 1996.

## 2. 연구저서

-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신아출판사, 1994.
- 金容燮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지식산업사, 2001. 7.
-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 신순철·이진영·원도연,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1998.
- 이이화, 『조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한길사, 1994.
- 구양근, 『갑오농민전쟁 원인론』, 아세아문화사, 1993.
-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 김용덕, 『동학혁명 혁명투사 전봉준』, 同學出版社, 1973.
-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 우 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3.
- 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전쟁』, 평민사, 1985.
-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1983.
- 신복룡, 『전봉준의 생애와 사상』, 양영각, 1982.
- 노태구 編, 『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춘추문고, 1975.

- 김의환, 『전봉준 전기』, 정음사, 1974.
- 『갑오농민전쟁 100돌 기념논문집』, 집문당, 1995.
- 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 장효문, 『전봉준을 위하여』, 자유세계, 1993.
- 『전라문화론총』 제7집, 전라문화연구소, 1994.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4.
- 김은정·문경미·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 『한국 근현대 사회과학 주요 논문대계』 제7권. 전태일 노동자료연구실, 1991.
- 최현식, 『新編 井州井邑 人物誌』, 정음문화원, 1990.

### 3. 연구 논문

- 정진상,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 농민군의 역사적 지향과 전쟁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1991.
-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생활 정치 사상 연구」, 연세대학원 정치학과 논문, 1994.
- 정창규, 「1893년 보은집회투쟁의 성격에 대하여」, 『한국 근현대 사회과학 주요 논문대계 제7권』, 전태일 노동자료연구실, 1991.
- 김의환, 「1892.3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84.
- 김의환, 「갑오농민전쟁과 남·북접 문제」, 『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 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전봉준 회전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1988년 9월 창간호.
-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4.

조경달,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역사연구』 제2호, 거름, 1993.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 운동과 ‘척왜양’ 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4.

송정수, 「전봉준 장군 출생지에 대한 고찰」,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1998.

한우근, 「동학의 성격과 동학교도 운동」,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84.

송정수, 「전봉준장군 가계에 대한 검토」, 『호남사회연구』 제2집, 호남사회연구회, 1995.

이진영, 『東學農民戰爭과 全羅道 泰仁縣의 在地士族』,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토론 및 대담(Ⅱ)

발표 : 조광환(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사회 : 이영일(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 : 김병남(종이박물관 학예연구사)

홍성덕(전북대 학예연구관)

송만오(전주대 교수)

최옥환(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사회자 : 그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발굴자료 학술세미나중 두번째로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조광환 이사장님으로부터 “사발통문의 재고찰”이라는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약정토론자로 종이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병남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약정토론 이후에 이 주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환 : 소개받은 조광환입니다. 저는 논문을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문을 읽기에 앞서서 박맹수 교수님의 발표는 다소 좀 무겁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주제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사발통문 이외에 제2의 사발통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건을 가지고 기존의 사발통문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적 봉기로서만 혹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의해 일어난 우발적 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고부농민봉기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조광환 이사장님으로부터 “신 사발통문의 제고찰” 이라는 발표내용을 들었습니다. 발표내용 및 토론 내용은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료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 대하여 종이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병남 학예연구사로부터 약정토론을 진행하고, 후에 이 자리에 참가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및 궁금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 소개받은 김병남 입니다. 조광환 선생님이 발표한 이 논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고부농민봉기를 사발통문을 통하여 살펴본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읽게 될 독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태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조광환 선생님께서 정읍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민간단체의 이사장님으로 읍지에서 무척 고생하시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하여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문과 시민운동을 겸하여 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입장에서 발표문에 대하여 소소한 의문점 및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은 지난번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향토사 논문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논문에 대한 체제나 부수적인 사항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정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이 논문의 제목과 목차만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사발통문의 의미와 특징만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논문에서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발통문의 분석을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면서 조직적으로 준비된 거사였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 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목이나 목차를 좀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컨대 “사발통문의 재고찰” 보다는 “사발통문의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이해” 나 아니면 “사발통문의 분석과 고부봉기의 의미의 재해석”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발통문의 진위여부입니다. 이 논문이 논문으로서 빛이 나려면 우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발통문은 진본이 아니고 필사본입니다. 내용면에서 따져봐도 20인의 사발통문 서명자중 가장 어린 송국섭이 14살의 어린 나이로 이 거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기존의 사발통문이 진위문제에 관한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송국섭의 문제는 발표자가 중요시 여긴 실기의 내용(15명의 서명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기존의 사발통문의 내용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가필이 되었거나 혹은 착각에 의하여 잘못 기술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 중 어떤 경우도 사료라는 가치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 기본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신 사발통문을 근거로 기존의 사발통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사발통

문은 위작이라는 설을 일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사발통문이 기존의 (사료적 가치가 없는) 사발통문 때문에 더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드는 데 발표자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자가 주목한 제2번째 사발통문도 송재섭이 단기 4287년(서기1954년)에 펜으로 쓴 필사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표자는 제2의 사발통문도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난 일에 대한 회고록에 지나지 않지만, 기존의 사발통문의 내용과 일치하며 사발 형태로 된 형식마저 비슷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사발통문도 펜으로 쓰여진 필사본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환 : 네 논문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사발통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한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부농민봉기와 사발통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때 조그마한 참고자료가 될까하여 이 논문을 저술하였는데 이런 맥락에서 제목도 사발통문의 재고찰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들어보니 “사발통문의 재고찰” 보다는 “사발통문의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 이해” 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발통문의 진위여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진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간절히 바랬습니다. (웃음) 저도 사발통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토론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제2의 사발통문도 여러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역시 진본이 아니고 필사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필사본이라 해서 그 내용까지 부정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어서 그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로서도 충분한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발통문 자체가 사료적 유물로서는 그 가치가 부족하지만 그 실체적 내용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제2의 사발통문을 가지고도 그 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발통문의 서명자들에 관한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의 자료가 나오거나 후학들의 더 심도있는 연구가 나온다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발통문과 제2의 사발통문의 내용적 일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명자의 숫자를 제외한 내용의 일치는 지금까지 기존의 사발통문에 던져진 많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2의 사발통문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 사발통문이 쓰여져 있는 “갑오동학난과 전봉준실기”의 필사본 자체가 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사본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는 원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장자 즉, 박명도선생의 조부는 박인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화문복합상소때 총책임자였습니

다. 그리고 갑오년 제2차 삼례봉기때 서산지역 농민군 지도자로 충청도 2만여 농민군을 이끌고 당진, 신리원, 예산, 홍주 등지에서 관군을 격파했던 호서지방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훗날 1907년에 3대교주 였던 손병희의 뒤를 이어가지고 천도교 제4대 교주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송재섭 즉, 실기의 저자인 송재섭은 천도교 최고지도자인 박인호에게 이 “갑오동학난과 전봉준장군 실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송재섭이 다음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책으로 출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사료에는 “제1장 이조말기의 부패한 정치”부터 “제14장 청일전쟁과 동양대세의 변천”까지 전개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의 사료인 동학사나 여러 사료들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발통문과 고부농민봉기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고부출신이고 또 사발통문의 서명자 송주성의 자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사발통문과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발통문이 논란 중에서 지엽적이지만 그것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논문을 저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발통문의 재고찰이라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사발통문이나 기존의 사발통문의 서명자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처형당한 판결문이나 죽보 등을 참조해보면 모두 사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사발통문은 사료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조신원

운동이 고부에서 가장 격렬했다 따라서 교주 최시형의 승낙을 얻어  
 전주 송주성등이 교조신원운동을 고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등의  
 글을 올리니 최시형이 이를 말렸다 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기존의 사발통문은 여타 제반의 설명이 없이 한  
 장의 문서로 존재하는 것에 비하여, 제2의 사발통문에는 “갑오  
 동학난과 전봉준장군 실기” 라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사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혹 다른 반론이나 질문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네 전주대 송만오 교수님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송만오 :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갑오동학난과 전봉준장군 실기” 내용중에  
 문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논문에 나오는 용어중에 일  
 반동포라는 단어는 근대용어로 한참 뒤에나 사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당시 문서인 실기에 등장하는 것이 좀 이상하군요. 더구나  
 제2의 사발통문 말미에 모이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혁명을 주도하는데 한사람의 힘이라도 더 필요한 전봉준 입장에  
 서는 불리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을 폄하하는 문구  
 인데 과연 이렇게 사용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그리고 “갑오동학난과 전봉준장군 실기” 가 왜 2가지의 이색적인  
 주제로 책제목이 짜여졌는지도 궁금하군요. 후에 원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책에 대해 물어보게 되냐면  
 저는 다음에 발표할 주제로 “1920년대 정읍지역의 청년회”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정읍지역에는 천

도교 관련 청년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한천면의 양안을 보면 동학도와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탄압이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책이 보관될 수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홍성덕 :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듣기 전에 더 물어 질문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 가장 중요한 것은 송재섭이 쓴 필사본인 “실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에 그 일부분인 사발통문이 분석이 되어야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사발통문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회고록이라는 것은 부정적 측면에서 과장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과 자료에 의하지 않는 회고록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고록인 “실기”안의 사발통문이 사료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기 자체가 갖는 모든 기록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논문으로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송재섭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적 일을 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적은 것이기 때문에 회고록을 기록하려면 제반의 기록들을 꼼꼼히 들고 다니다가 이것을 참조하여 회고록이 저술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랬을지 의문이군요 그리고 이 회고록이 작성된 시기가 1954년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로 이런 일련의 자료를 가지고 회고록을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녔다면 이 자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만오 교수의 지적처럼 전봉준장군이 실지로 “실기”의 내용처럼 비격을 이런 식으로 썼을 리가 없거든요 어려운 글자들은 한글로 쓰고 쉬운 글자들은 한문으로 쓰는 등의 서술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억으로 썼다는 것입니다.(웃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발통문의 진위에 관하여 신용하 교수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것이 거사 당시에 썼던 것이 아니고 후대에 정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대에 사발통문을 가지고는 신용하 선생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기속에서 또 다른 단초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제2의 사발통문이 기존의 사발통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여 이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작성시점의 사발통문은 이랬고 후에는 저랬다는 내용이 비교분석이 되야 하는데 제2의 사발통문만으로는 이런 시점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내용만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자 :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환 : 네 먼저, 일반동포형제라는 용어가 과연 이 시기에 사용되었을까라는 문제는 실지로 논란이 되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사발통문도 먹이랄지 종이를 원광대 신순철 교수와 함께 서지학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는 시대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고, 종이는 당시의 것일 수도 있겠다고 했구요. 전봉준 장군이 내용 중에 말목

장터로 모이지 않으면 효수하겠다는 얘기는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봉선의 전봉준 실기나 최현식 선생의 갑오동학혁명사에 보면 1월10일날 말목장터로 고부농민들이 모였을 때에 노약자나 아녀자들을 제외하고 이 자리를 뜬 자는 참수하겠다는 얘기를 전봉준 장군이 실지로 했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송재섭의 “실기”에 대하여 사료비판을 좀 더 해야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전체는 하지 못했지만 고부농민봉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료들과 흐름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대원군과 관련하여 대원군이 전봉준에게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냐는 답으로 나는 보국 안민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교조신원운동을 이용하여 봉기를 하겠다는 대답을 했고 이에 대원군이 크게 기뻐하며 손에다가江를 써주면서 한강까지 봉기하여 올라온다면 내가 호응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고부에서 봉기를 했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실기가 회고록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자세히 기술하고 들어서 얻은 전문에는 소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료의 내용과 별반 다름 없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다가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사회자 : 사료에 대한 비판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좋다고 보고요 동학사나 오하기문도 동학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료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학농민난과 전봉준장군 실기” 도 수차례에 걸친 사료의 비판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옥환 : 저는 반론 이라기보다는 문건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비격의 끝부분에 죄인 전봉준이라고 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한 죄인이라는 것이며, 또 통문 끝부분의 효수에 관한 부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조광환 : 저는 이 부분의 죄인이라는 표현은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한 죄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구요. 통문의 효수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격과 통문의 내용은 비교할 만한 문건이 없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제2의 사발통문 경우는 기존의 사발통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기존의 사발통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부정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자 : 제2의 사발통문은 기존의 사발통문을 포함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의 문구에 대한 논란은 이곳에서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비격에 있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마 이 사발통문이 작성될 당시 전봉준 장군이 아버지 전창혁의 상중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군요

조광환 :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광환 선생님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송만오(전주대)

### <목차>

1. 머리말
2.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
3. 정읍지역 청년회의 활동
4. 정읍지역 청년회의 해체와 정읍청년동맹의 탄생
5.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청년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전덕기 목사가 상동교회 안에 엠뿔청년회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sup>1)</sup> 이보다 6년 후인 1903년에는 질레트 선교사가 서울에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러나 청년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은 3.1 운동 이후인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마다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청년회들이 조직되어 지역민들의 의식을 계몽하고 개혁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이 일제 하 민족의식 고취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1) 尙同靑年會는 1898년 전덕기 목사가 민족적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尙同敎會 內에 조직한 것이다. 상동청년회에 대해서는 한규무, 「尙洞靑年會에 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71, 1990.

청년회의 활동은 정읍 지역에서도 매우 활발하였다. 정읍에는 1920년대 초부터 1927년 사이에 井邑青年會, 泰仁青年會, 古阜青年會, 山外青年會 등 모두 9개의 청년조직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들 청년회 중에는 정읍청년회처럼 郡단위로 조직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정읍군에 속했던 면의 수를 감안하면 정읍지역의 청년회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1920년대 당시 정읍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청년회가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누가 주로 청년회의 창립에 관여하였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와 함께 1928년에 정읍 지역 내의 청년회들이 해체된 후 정읍청년동맹이 결성되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듯하다.<sup>2)</sup> 이에 본고에서 이상 열거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1920년대 정읍지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20년대 정읍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청년회는 모두 11개가 있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井邑青年會(정읍군), 泰仁青年會(태인면), 古阜青年會(고부면), 互扶青年會(칠보면), 笠岩青年會(임암면), 所聲青年會(소성면), 德安青年會(고부면), 山外青年會(산외면), 詩山青年會(칠보면), 五成青年會 등이다.(아래 표 참조) 이들 중 정읍청년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面 단위에서 조직된 것이었다. 1920년대 정읍군에 속

2) 정읍지역의 청년회에 대해 주목한 논문은 아직 없는 듯하다. 다만 개략적인 설명은 趙燦錫, 「1920년대 전라북도 지방의 청년운동」(『인천교대논문집』 인문사회 편 22, 1988)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서는 1920년대 정읍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회들이 모두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했던 면이 12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읍지역의 청년회 활동은 전라북도 내의 다른 시군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자청년회<sup>4)</sup>나 또는 基督青年會(YMCA), 女子基督青年會(YWCA), 基督勉勵青年會, 衡平青年會 등과 같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청년회의 지부가 정읍에서는 조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읍 지역 내에서 설립 시기가 가장 앞섰던 청년회는 고부청년회가 아니었을까 한다. 고부청년회는 1920년 8월에 이미 세 번째의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데,<sup>5)</sup> 이로 미루어 본다면 그 설립 시기는 1920년 초였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1920년 12월 경성 종로에서 열린 朝鮮青年會聯合會 제 1회 창립총회에 고부청년회가 정읍지역 내 청년회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설립 당시에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고부청년회는 고부 내에 거주하고 있던 전체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조직된 청년회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줄곧 청년회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요직을 모두 殷氏 집안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점만 보아도

- 3) 현재 필자는 1920년대 당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있었던 청년회 조직을 조사 중에 있다. 따라서 아직은 각 시군별 청년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면 단위의 청년회 수는 정읍 지역이 전라북도 내 다른 지역 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 4) 정읍 지역에서 여자 청년회가 조직된 것은 1939년이였다. 소위 정읍여자청년단이 그것인데, 그러나 이 단체는 천일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동아일보 1939년 11월 21일의 기사를 보면 “시국의 중대성에 의하여 가정의 부녀자도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주읍에 거주하는 내지인(즉 일본인-필자 주)과 조선인을 무론하고 15세 이상 25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사상 온전한 부녀자로 정읍여자청년단을 조직, 15일 오후 2시부터 발단식을 거행” 이라고 나와 있다. 당시 정읍여자청년단의 단장은 일본인이었으며, 단원이 7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 5)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현황-시대별〉<sup>6)</sup>

| 청년회명                 | 설립시기     | 주요 인물                          |
|----------------------|----------|--------------------------------|
| 古阜青年會                | 1920년 초  | 殷熙淳, 殷致宰, 殷彦基, 殷熙相, 殷必秀 등      |
| 泰仁青年會                | 1920년 6월 | 柴在鈺, 金鎮永, 宋榮根, 宋直相, 金大坤, 鄭邦謨 등 |
| 井邑青年會                | 1920년 7월 | 車敬三, 朴種奎, 朴基敦, 朴治奎, 洪迥根, 朴二湧 등 |
| 詩山青年會 <sup>7)</sup>  | 1920년 6월 | 金東柱, 劉載翊, 宋滄                   |
| 所聲青年會                | 1923년    | 金京鉉, 柳元哲, 韓光鎬, 朴諄相, 韓台鎬, 李相滿 등 |
| 德安青年會                | 1923년    | 확인되지 않음                        |
| 互扶青年會                | 1925년    | 李喜穆, 金煌, 李汝安                   |
| 五成青年會                | 1926년 이전 | 朴辛奎, 柴重錫, 趙紀贊, 吳寅泳, 金東煥, 李祺錫   |
| 笠岩青年會                | 1927년    | 柳然基, 邊昌鎬                       |
| 山外青年會                | 미상       | 殷成天, 宋旺起                       |
| 新泰仁青年會 <sup>8)</sup> | 미상       |                                |

- 6) 이 표는 동아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존재한 청년회였으나 신문에서 언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누락된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7) 동아일보, 1920년 7월 3일 기사에 의하면 시산청년회는 1920년 6월 23일 칠보면 武城學校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김동주씨가 회장으로, 총문에 유재익씨가 그리고 송창씨가 學務部長으로 선임되었다. 청년회의 회관은 신축하기 전까지 무성학교를 잠시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아마도 이 시산청년회는 칠보면의 興學을 위해 결성된 모임이 아니었을까 한다. 송창씨는 당시 무성학교 교사로서 재직 중이었다.
- 8) 신태인에도 청년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아일보, 1927년 10월 3일의 “全北 新泰仁青年會에서도 今番 共產黨 公判에 辯護士에 대하여 激勵文을 보냈다”라는 것과 1930년 3월 21일의 “新泰仁青年會 復興準備委員會 21日 同會館에서 開催”라는 기사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위 신문의 1920년 6월 17일 기사를 보면 “新泰仁青年俱樂部와 勞働會 發起豫定”이라는 제목 하에 “近日 青年邊의 宋直相 金鎮永씨 등의 發起한 青年俱樂部와 老人邊의 金南植 宋靚鏞氏 등의 發起한 勞働會 등이 아직 初步에 在하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송직상과 김진영은 본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신태인청년구락부가 아니라 태인청년구락부의 설립 멤버였다. 태인청년구락부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명칭을 정읍청년회로 바꾸는데, 아무튼 위 6월 17일의 기사만 본다면 신태인청년구락부와 태인청년구락부는 별개가

알 수 있다.<sup>9)</sup> 고부청년회는 아마도 고부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성씨 가운데 하나였던 辛州殷氏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따라서 청년회의 활동 역시 다른 일반적인 청년회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sup>11)</sup>

정읍지역에서 고부청년회에 이어 두 번째로 조직된 청년회는 태인청년회였다. 태인청년회는 1920년 6월 27일, 鄭邦謨, 宋直相, 金鎮永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는데, 동아일보 1920년 7월 2일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이고 있다.

爾來 組織 中에 在하든 泰仁靑年會는 6月 27日 午後 1時에 當地 公立 普通學校에서 創立總會를 開하고 100餘 名의 會員이 參席하여 臨時議長 宋直相氏의 鄭重한 開會辭와 趣旨說明이 有한 後 順序에 依하여 會則을 通過하고 來賓側並松公普校長의 祝辭와 宋直相氏의 “以文會友” 金鎮永氏의 “우리의 進路” 宋榮根氏의 “誠心誠力” 이라는 演題로

아니라 동일한 단체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신태인회는 태인과는 별도의 청년구락부가 분명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태인청년구락부의 조직이나 활동을 알려줄 만한 자료를 전혀 구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신태인청년구락부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였다.

- 9) 예를 들어 1920년 8월 20일 제 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고부청년회 임원 중 중요한 물줄을 살펴보면, 會長 殷熙淳, 副會長 殷致宰, 總務 殷彦基, 德育部長 殷熙相, 體育部長 殷必秀 등이었다.(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 10)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펴 낸 『朝鮮의 聚落』(日語), 468쪽을 보면, 1930년 당시 고부 내에 살고 있던 신주은씨는 모두 210호 1,300명이었다. 고부 내의 은씨들은 주로 高阜, 南富, 長文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존재는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 11) 한편 고부지역에서는 고부청년회 외에 덕안청년회가 1923년 경에 조직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덕안청년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무 것도 없다. 이는 이들 청년회의 활동이 극히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덕안청년회의 존재는 동아일보, 1923년 12월 16일자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熱烈한 辯論이 畢함에 無記名式 投票로 定式任員을 選定하니 會長에 鄭邦謨<sup>12)</sup> 副會長 宋直相 總務 金鎮永 以下諸氏더라. 會館은 爲先 新築하기 前에 金鎮永氏가 自己所有家(二十餘間)을 臨時會館으로 提供하였으며 當日 席上 會員 中에서만 義捐한 金額이 一千十三圓에 達하였다더라

태인청년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불과 한 달 후에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과 회칙을 변경하게 된다. 태인청년회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임시총회에서는 초대회장이었던 정방모가 물러나고 시재옥이 새로운 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泰仁靑年會에서는 本月 2日 오후에 臨時總會를 當地 公立普通學校 內에서 開催하였는데, 順序에 依하여 會長 鄭邦謨氏의 開會辭가 有한 後 本會組織을 變更하여 會則을 改定하고, 任員 全部를 改選하였는데 當日 被選된 諸氏의 氏名은 如左하며 本會 維持方策에 對하여 諸氏의 互相 討議가 有하였고 金大坤氏의 “德育의 必要性”과 宋直相氏의 “智識은 人生의 生死와 如하다” 함과 金鎮永氏의 “우리는 이 社會의 사공이 됩시다”는 熱烈한 雄辯으로 拍手喝采 裡에 閉會하였는데 時는 午後 10시 頃이더라<sup>13)</sup>

- 12) 태인청년회의 초대회장직을 맡은 정방모는, 직원록에 의하면 1916년 이후 1924년까지 태인공립보통학교에 선생으로 재직하던 자였다. 그러나 창립총회에서 자기 집을 태인청년회 임시청년회관으로 사용할 것을 선뜻 허락한 김진영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을 찾지 못하였으나, 태인지방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13) 동아일보, 1920년 8월 6일. 이번의 임시총회에서 피선된 임원들을 살펴보면 會長에 柴在鉉, 副會長 金鎮永, 總務 宋榮根, 議事部長 宋直相, 智育部長 彙編輯部長 金文謨, 德育部長 金大坤, 體育部長 鄭邦謨, 社交部長 林楊周 등이었다.

태인청년회의 설립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강연을 했던 鄭邦謨, 宋直相, 宋榮根, 金鎮永, 金大坤 등이었다. 이 밖에 또 宋建相, 柴在鈺, 朴昌琯, 宋元奉, 宋憲相, 金東賢 등이 1922년 이후에 태인청년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sup>14)</sup> 이들의 이름을 보면, 태인청년회도 태인의 주요 씨족 가운데 하나였던 여산송씨들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태인청년회의 성격은, 殷氏 집안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고부청년회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宋榮根 등 태인 지방의 3.1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청년회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정읍 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읍군 전체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한 정읍청년회는 정읍청년구락부(Club)에서 출발한 단체였다. 정읍청년구락부는 1920년 7월 4일, 車敬三, 朴種奎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였는데 구락부의 창립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井邑 內 靑年 諸氏는 以來 郡中에 一個 靑年集會機關이 無함을 遺憾으로 思하여 屢屢諸種計劃이 有하였으나 種種한 外界의 事情으로 因하여 今日까지 遷延하다가 遂히 今月 四日에 郡內 有志 朴興奎 朴種奎 車敬

14) 이들은 1922년 8월 11일 제 6회 태인청년회 정기총회에서 임원들로 선발된 자들이었다.

15) 태인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자들 중 상당수는 태인 지방의 3.1운동에 관여한 자들과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었던 듯하다. 아직 저들의 족보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태인지방의 3.1운동에 가담하여 징역형을 언도 받은 宋鎮相, 宋根相, 宋文相 그리고 金賢坤, 金富坤, 金達坤과 태인청년회의 宋直相, 宋建相, 宋憲相 그리고 金大坤, 金禎坤과 行列이 같아 서로 같은 집안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들 사이의 혈연관계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태인지방의 3.1운동 과정 및 운동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읍시사」, 정읍시, 2003, 486쪽-48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三 諸氏의 發起로 當郡 城山下亭에서 創立總會를 開하고 諸般 組織 節次를 協議한 후 順序의 依하여 會則을 制定 通過하고 部員을 公選하였는데 部長 車敬三 總務 朴種奎 諸氏이더라<sup>16)</sup>

정읍의 청년들이 구락부를 결성하게 된 것은, 위의 기사에서도 보이듯, 정읍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모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이나 혹은 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청년단체들이 결성되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전주 지역의 경우만 해도 1920년 초에 이미 전주청년구락부와 全州天道敎青年會 등이 조직되어 있었는데<sup>17)</sup> 이러한 사실들이 정읍 지역의 청년들로 하여금 모임을 결성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sup>18)</sup>

16) 동아일보, 1920년 7월 20일. 한편 정읍청년회의 창립일이 7월 4일인지 혹은 5일인지 분명하지 않다. 본 인용문에는 4일로 나와 있지만, 동아일보 1920년 7월 15일 기사를 보면 “井邑青年俱樂部에서는 本月 5日 第1回 總會를 本郡 射亭에서 開催하고” 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17) 전주시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송만오, 「1920년대 전주시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2005년 11월 25일, 제 2회 전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을 참고.

18) 당시 정읍청년구락부의 창립총회가 열린 곳이 “城山下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城隍山 아래 後松亭” 이 될 것이다. 정읍시 칠보면 무송리 院村에 위치한 후송정은 春雨亭 金永相이 1399년에 지은 亭子로, 그 이름은 후송정 주변에 있는 松亭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송정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의 廢庶人 조처에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던 七狂과 인목대비의 폐모조처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10賢의 뜻을 기리기 위해, 1621년에 지은 정자이다. 그러니까 後松亭이라는 이름에는 송정에 담긴 뜻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후송정을 건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김영상은 정읍 지역의 대표적인 애국지사였다. 그는 일본의 天皇이 조선 선비들에게 恩賜金을 내리자, 은사금 사령서를 찢어 버린 불경죄로 1911년 4월에 群山獄에 수감되었다가 그곳에서 옥사하였다. 정읍청년들이 구락부 창립총회를 후송정에서 치르고자 한 이유도 아마 후송정이 담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감안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읍청년회에 가

1920년 7월 4일에 창립한 정읍청년구락부는 바로 그날,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차경삼의 사회로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락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부장, 총무, 회계, 서기 등을 선출하였다. 이들의 직책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部長 車敬三, 總務 朴種奎, 幹事 金明錫 朴基敦, 會計 朴治奎, 書記 李炯雨 朴喜東, 智育部 洪迥根, 體育部 朴二湧 등이었는데,<sup>19)</sup> 이들은 모두 정읍 지역 내에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자들이었다.

정읍청년구락부는 그러나 창립총회를 가진지 불과 20여 일만에 그 이름을 정읍청년회로 바꾸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 “井邑青年俱樂部 諸氏は 現在한 狹意的인 俱樂部體制로는 도저히 精神上 進就의 慾望을 充하기 不

답했던 인물들의 성향을 보면 반일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오히려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조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 중 송정과 후송정 그리고 七狂과 十賢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윤희면, 『朝鮮 後期 兩班士族의 鄉村支配 -全北 井邑의 松亭, 後松亭의 建立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5, 1997을 참고할 것.

- 19) 동아일보, 1920년 7월 15일. 이날 총회에는 정읍지역 내의 有志들은 물론이요, 여러 교회에서 牧師와 傳道師들까지 참석하여 구락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 신문기사에 “井邑 青年俱樂部에서는 本月 5日 제 1회 總會를 本郡 射亭에서 開催하고 그 臨時會長 車敬三君의 本部趣旨 說明이 有한 후 任員選舉를 行하고 內賓側으로 基督教會申牧師, 川原教會傳道師, 其他有志 諸氏의 懇切한 祝辭가 有한 후 閉會하였는데, 當日은 雨天임에도 불구하고 部員八十名 內賓 二十餘名으로 當地 未曾有의 盛況을 모한 바”라는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정읍청년구락부의 회장이었던 차경삼은 정읍군 정읍면 연지리 37번지에 그本社를 두었던 정읍전기 주식회사의 감사를 지낸다. 정읍전기주식회사는, 정읍청년구락부가 정읍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후 초대 부회장을 맡은 박흥규가 梁川德一, 松本健三郎, 岡長次郎, 金森玄三, 朴碩奎, 金箕東, 車敬三 등과 함께 1923년 9월 20일에, 전등, 전력, 전열의 공급, 전기 기구의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朝鮮銀行會社要錄』, 1925) 당시 이 회사의 주식 분포를 보면 松木健三郎(215주), 朴興奎(212주), 金箕東(200주), 朴碩奎(200주), 朴明奎, 殷萬基(각 100주)로 되어 있어 박흥규의 財力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박흥규가 정읍청년구락부나 정읍청년회를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읍청년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차경삼은 1930년대에 이르러 전북 마약류중독자치료소 정주지소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에는 대구에서 東洋醫學講習會를 설립하고 그 회장을 역임하였다.

能함을 感하고 同部 臨時青年會를 7월 26일 當地 佛教布教堂 內에서 開하고 遂히 舉會 一致로 名稱을 青年會라 改定하고 智體二部를 設하였으며 無記式 投票로 任員을 選定하니 會長에 前部長 車敬三 副會長 朴興奎 總務에 朴種奎씨더라<sup>20)</sup> 라 하여 정신상 진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나, 사실은 전주, 군산 등지의 예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임원진 역시 구락부체제로 있을 때와 전혀 변함이 없었으며 조직상의 변화도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한편 1920년대 정읍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청년회로는 또 所聲青年會라는 것이 있었다. 소성청년회는 정읍군 소성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동아일보 1923년 4월 25일의 기사를 보면,

井邑郡 所聲面 青年會 創立總會는 去四日當日 私立所聲學校에서 開한 바 出席會員이 二百餘名에 달하였는데 會則通過와 任員을 左와 如히 選舉하였으며 當日 同會를 爲하여 義捐한 人士는 左와 如하더라.<sup>22)</sup> 會長 金京鉉, 副會長 柳元哲, 總務 韓光鎬, 書記 朴淳相, 理事部長 韓台鎬, 德育部長 鄭泰文, 財務部長 羅〇〇, 智育部長 李相滿, 體育部長 申秉均, 庶務部長 金在龍, 顧問 李喜鶴 金百鉉, 評議員 曹光承 外 十五人, 財務部員 朴官 外 十三人

이라 하여 회장, 부회장, 지육부장, 덕육부장, 평의원, 재무부원 등의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임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알 수 없으나 부회장 유원철은 그 이름이 조선신사대동보에도 나오고

20) 동아일보, 1920년 8월 2일.

21) 전주청년회도 처음의 이름은 전주청년구락부였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청년회로 그 이름을 바꾸는데, 군산, 남원, 김제 등지의 청년회도 마찬가지였다. 구락부를 청년회로 바꾼 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다.

22) 동아일보, 1923년 4월 25일.

있으며<sup>23)</sup> 박순상은, 청년회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동아일보 井邑分局 記者兼 外交員으로 재직했던 자이다.<sup>24)</sup> 그런가 하면 소성청년회의 고문인 이희학은 1920년 정읍군 書記를 지낸 후 1922년 이후부터 1930년 초반까지 所聲面長으로 재직하였는데, 임원진들의 이러한 경력으로 보아 이 소성청년회의 활동이 소성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데까지는 전개하지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sup>25)</sup> 요컨대 소성청년회는 소성 지역 내 유지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한편 칠보면에서는 李喜穆, 金煌 등이 중심이 되어 1926년 互扶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호부청년회의 설립 목적은 농촌의 진흥이었는데, “大衆을 위한 新社會를 建設하자”, “大衆을 위한 新文化를 建設하자”, “最後까지 오직 眞義에 順從하자”는 등의 綱領도 정하는 등 자못 모습과 규모를 갖춘 청년회로 출범하였으나,<sup>26)</sup> 그러나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그 활동을 거의 접게 된다. 즉 동아일보, 1928년 7월 3일의 기사를 보면 “전북 정읍군 七寶面에 있는 互扶青年會는 창립된 지 于今 三箇年에 會務가 不振하여 沈滯狀態에 있음으로 當地 靑年들은 此를 一大遺憾으로 여겨 그간 復興準備에 분주하던 바 去 六月十九日에 復興大會를 開催

23) 『조선신사대동보』, 766쪽. 소성청년회의 임원 중 金百鉉의 이름도 『조선신사대동보』, 244쪽에 보이고 있다.

24) 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

25) 이 소성청년회는 창립된 지 불과 3년이 지난 1927년쯤에 거의 해체지경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全北 井邑郡 所聲面에 있는 所聲靑年會에서는 創立 後 數三年間 沈滯狀態에 있어서 同會 有志諸氏는 會勢振興策을 講究하던 바 지난 五日 午後 三時에 同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한 바 出席會員이 不過 二十人 以內이므로 規約上 總會는 開會치 못하였으나 同會는 自然解散이 되고 같은 形態이므로 出席한 會員 諸氏는 同會를 振興키 爲하여 革新準備委員으로 柳元吉氏 外 七氏와 扶約改正委員으로 朴淳相氏 外 一人을 選定하고 一般會員을 訪問하여 入會手續을 更히 한 후 今月 中 革新總會를 開하도록 一任하고 同 六時에 閉會하였다더라.”라는 기사의 내용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동아일보 1927년 6월 9일)

26) 동아일보 1926년 12월 27일.

하고 李喜穆君의 심각한 開會辭가 있는 후 議長 李汝安君이 被選登壇하여 여러 가지 當面 問題를 토의하고 左의 任員을 選舉하였다더라”<sup>27)</sup>라고 나와 있다.<sup>28)</sup>

1920년대 정읍 지역 내에서 설립 된 청년회 가운데 소성청년회의 경우처럼 현재 그 이름만 전하고 있는 것으로는 또 五成青年會가 있다. 오성청년회에 대해서는 시대일보 1926년 2월 1일에 “井邑 五成青年會는 지난 달 28일 오후 7시에 同面 上里 朴辛奎氏 宅에서 제 16회 執行委員會를 열고 朴辛奎氏 사회로 同氏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任員被選과 左記 事項을 결의하였다고 한다.”고 하고 이어 總務部 朴辛奎, 柴重錫, 趙紀贊, 敎養部 吳寅泳, 金東煥, 勞農部 李祺錫을 선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결의 사항은 “月例會 개최에 관한 건”, “討議會 개최에 관한 건”, “素人演劇 개최에 관한 건”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결의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오성청년회도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춘 청년회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창립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정읍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청년회 가운데 그 설립 시기가 가장 늦었던 것은 아마도 笠岩青年會와 山外青年會가 아닐까 한다. 입암청년회는 동아일보 井邑支局의 記者를 지낸 柳然基가<sup>29)</sup> 邊昌浩와 함께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1927년 1월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비로소 출범하는데, 설립 당시의 회원은 56명이었다고 한다.<sup>30)</sup> 창립총회 때는 당시 全北青年聯盟의 代表

27) 이 모임에서 선출된 임원은 會長 李汝安, 庶務委員 金甲述 등이었다.

28) 호부청년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인물 중 현재 그 활동이 확인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호부청년회도 그 지역 내 몇 몇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29) 동아일보, 1927년 7월 2일. 한편 이 유연기는 1928년 정읍지역 내 청년회들이 정읍청년동맹으로 통합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연기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30) “井邑郡 笠岩面에 居住하는 人士는 青年敎養機關이 없음을 遺憾으로 알던 바 同面 川原里를 중심으로 인접한 각리 청년들의 발의로 客年末부터 이래 創立準備에 奔忙

로 있던 崔成龍<sup>31)</sup>씨가 직접 축사를 하는 등 정읍 지역 내 다른 청년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산외청년회는 정읍군 산외면에서 결성되었던 청년회였다. 산외청년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중의일보, 1928년 8월 28일 기사에 보이는,

井邑 山外面에 在한 山外靑年會에서는 朝鮮靑年總同盟 井邑靑年同盟이 創立되면서 바로 解體하고 井邑靑年同盟 山外支部를 設置하자고 準備 中에 奔忙하던 中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언제 누가 창립을 주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산외청년회의 성격은, 정읍 지역 내 다른 청년회들이 주로 지방 유지나 또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이다. 산외청년회는 소위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히 표방한 청년회였던 것이다. 산외청년회는 이러한 점 때문에 정읍 지역 내의 청년회로서는 유일하게 일본경찰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정읍 내의 모든 청년회가 정읍청년동맹의 지부로 편입된 후로는, 정읍 지역 청년회 활동을 거의

하던 바 去十七日 午後 二時에 川原里 禮拜堂 內에서 柳然基씨 司會로 創立總會를 開한 바 會員은 五十六人이며 방청석에도 滿員을 이룬 盛況裡에서 무사히 진행하고 全北靑年聯盟代表 崔成龍씨 祝辭와 會員 中 邊昌鎬氏 答辭가 있는 後 無事히 閉會하였다더라” 동아일보, 1927년 1월 21일.

- 31) 최성룡은 1926년 동아일보의 井邑支局이 設置되었을 때 記者로 任用된다.(동아일보, 1926년 11월 1일) 최성룡이 전북청년연맹대표로 있으면서 입암청년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도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全北靑年聯盟은 전라북도 내 모든 청년회 조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第1回 定期大會가 1926년 7월에 전주靑年會館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靑年運動에 關한 件”, “郡聯盟에 關한 件”, “財政에 關한 件”, “敎養에 關한 件” 등을 決議하면서 전북 지역 내의 청년조직들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북청년연맹에 대해서는 훗날 稿를 달리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주도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금까지 필자는 1920년대 정읍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청년회에 대하여, 그 설립시기와 설립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읍의 청년회들 중에는 특정 문중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었으며, 또는 지역민들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정읍 지역 청년회들의 이러한 성격은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의 청년회가 으레 계몽운동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설립되었던 점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 기독교청년회, 형평청년회 등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었던 청년회들이 정읍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32)</sup>

### 3. 정읍지역 청년회 활동

1920년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대부분의 청년회들은 지육부와 체육부를 두었다. 이는 그들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직이었다. 체육부는 체육대회를 담당하였고 지육부는 강연회와 야학, 그리고 토론회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정읍지역에서 창립되었던 청년회도 대부분 위와 같은 조직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회는 정읍청년회와 태인청년회 고부청년회 등이다.

정읍 지역 내의 청년회 가운데 그 활동이 가장 주목되는 청년회는 정읍청년회이다. 정읍청년회에서는 창립된 지 2년 후인 1922년부터 남녀야학

32)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읍 지역에는 천도교청년회가 조직 되지 못한 것 같다.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요, 따라서 천도교의 勢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른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혹 동학에 대한 일제의 지나친 탄압으로 말미암아 1920년대 정읍지역의 천도교의 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높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듯하나, 현재로서는 어떤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정읍청년회는 대정 9년도에 조직되었는데 本年度에 당하여서는 유지청년제씨의 多大한 찬조로 本館修理及諸具를 완비케 하고 지식향상을 촉진케 하기 위하여 금월 一日부터 노동약학을 개최하였는데 현금학생은 七十餘名에 달하며<sup>33)</sup>

라는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한편 야학은 태인청년회에서도 1927년 2월 이후부터 운영하였는데 그러나 태인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은 부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sup>35)</sup>

정읍청년회에서는 또 水災를 입은 동포와 일본 관동 대지진 때 피해를 입은 동포를 돕기 위한 기금의 마련을 위해 素人劇을 공연하기도 하였다.<sup>36)</sup> 소인극이란 비전문연극인에 의해 행해지는 연극으로, 오래 집단의 화합이나 단결, 계몽과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을 말한다. 따라서 이 소인극은 정읍청년회 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회에서도 자주 공연하였을 것

33) 동아일보, 1922년 8월 18일. 여기서 보이는 70명이라는 학생이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만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34) 정읍청년회에서는 남자 야학과 여자 야학을 따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야학은 “전북 정읍청년회에서는 음악계에 명성이 있는 洪月波君의 來井을 기회로 去九日 秋山座에서 음악대회를 開한 바 경각 전부터 대만위를 이루어 동회여자학생들의 합창과 독창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라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26년 11월 13일) 한편 정읍청년회의 이 야학운동은 청년회의 이름이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로 바뀌는 1929년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 1929년 11월 4일의 기사에 “전북 정읍 청년동맹 정읍지부에서는 同 회관에서 과거 7년 동안 지부집행위원 諸氏의 文盲退治라는 목표 하에 犧牲的 활동으로 갖은 고난과 싸워가며 근근이 유지하여 오던 바 현재는 남녀 학생이 이백 명에 달하여 전북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타이프로”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35) 동아일보, 1927년 2월 12일.

36) 동아일보, 1923년 9월 30일.

으로 추측된다.

체육대회도 당시 청년회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읍청년회는 1922년 南鮮蹴球大會에 참가하였으며,<sup>37)</sup> 1926년 7월에는 제 2회 남조선축구대회를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정읍 지국의 후원을 받아 직접 주최하기도 하였다.<sup>38)</sup> 또한 1928년에는 제 4회 南朝鮮庭球大會를 정읍으로 유치한 바도 있는데<sup>39)</sup> 정구대회와 축구대회는 같은 정읍 지역 내의 청년회를 과도 드물지 않게 실시했던 운동이었다.

음악회는 계몽뿐만 필요한 청년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였다. 정읍청년회는 1926년 11월 洪月波<sup>40)</sup>가 때마침 정읍을 방문하자 이를 계기로 홍월파와 음악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약학운영비로 썼다. 한편 이 홍월파와 음악회에서는 정읍청년회원이었던 김중태, 유신옥 두 사람이 바울을린 합주를 하여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sup>41)</sup>

고부청년회에서는 호열자가 창궐하자 방역대와 구급대를 조직, 소독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극빈환자들에게 식료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장례를 대신 치르기도 했다.

고부군에서는 去十三日부터 俄然 虎熱刺가 발생하여 불과 三四日間に 사망자가 八人に 至하고 又現患者가 十有餘名에 至하였으며 점차 漫然의 憂가 有함으로 當地 청년회에서는 防役隊及救護班을 조직하고 당지

37) 동아일보, 1922년 8월 19일.

38) 이 축구회는 청년단과 소년단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청년단은 5원을 소년단은 2원을 주취 측에 납부해야 했다.(동아일보, 1926년 7월 21일)

39) 당시 정구대회가 열린 곳은 정읍군 東潤井邑에 있는 전용 코트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28년 7월 20일)

40) 홍월파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41) 동아일보, 1926년 11월 13일.

경찰관원의 원조를 得하여 소독약을 구입하여 주야를 불구하고가가호호에 예방소독과 환자의 치료에 전력하여 일방으로는 白米及食料品을 구입하여 극빈환자에게는 식료품을 급여하고 사망자에게는 葬式의 준비를 주선하는 등 其功效가 불감하여 有志 諸氏의 寄託 등이 亦多하다더라<sup>4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읍 지역의 청년회들은 지역민의 보호와 친목도모, 또는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의 청년회의 활동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읍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개선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읍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청년회들이 시국의 문제를 주제로 한 강년회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의아스럽다. 전주의 경우만 해도 청년들의 진로 등을 주제로 한 강년회를 개최하여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그러나 정읍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정읍 지역의 청년회들이 주로 지역 유지인 재력가나 혹은 문중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43)</sup>

#### 4. 정읍지역 청년회의 해체와 정읍청년동맹의 탄생

42) 동아일보, 1920년 9월 23일.

43) 이 점에 있어 산의청년회는 예외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편 동아일보, 1927년 12월 15일의 기사를 보면, 정읍지역 청년회와 소년회가 연합하여 제만동포옹호 시위운동을 전개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11명을 연행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는 있으나, 청년회의 구체적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부터 전라북도 내의 각 지역에 있던 청년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각 시군별로 특정 청년회를 중심으로 서로 통폐합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통폐합이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간의 부진했던 활동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의 청년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전라북도에서 청년회의 통합 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은 전주가 아니었을까 한다. 1924년 8월 19일, 전주청년회를 중심으로 一新青年會, 素成青年會 등 전주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청년회가 전주청년동맹으로 연합하게 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 全州青年同盟의 誕生

전주에는 모두 3개의 청년단체가 있어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서로 단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다.<sup>44)</sup> 그리하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기존의회는 모두 해체한 후, 지난 16일 오후 4시 천도교 구실에 모여 三會合一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즉석에서 규약을 제정하여 통과 시켰다<sup>45)</sup>

그러나 전주에서 전주청년동맹이 새로 결성될 무렵 정읍에서는 청년회를 통합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비록 자세한 바는 아니지만, 기존에 결성된 청년동맹들이 주로 사회주의의 성향이 강한 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전주청년동맹은 李平權<sup>46)</sup>, 宋寧燮<sup>47)</sup> 등 당시 일본경찰로부터

44) 여기에서 말하는 3개의 청년 단체란 아마도 一新青年會와 素成青年會, 그리고 전주청년회 등 전주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청년회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전주청년회 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2005년 11월 25일 제 3회 전북사학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1920년대 전주시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을 참고할 것.

45) 동아일보, 1924년 8월 19일.

집중적인 감시를 받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점은 정읍 지역 내 청년회를 이끌고 있던 井畝의 유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전북청년동맹을 이끌고 있던 이평권은 정읍지역 청년회의 이러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1927년 9월 30일의 전북청년임시대회와 1927년 10월 30일의 전북청년도위원회를 정읍에서 개최하게 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전북청년도위원회의 정읍개최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전북도의 청년운동은 날로 진퇴의 과정을 지남에 따라 전북청년 운동의 중진인 전북청년 도위원회에서는 추기를 이용하여 운동의 정황이 침체되어 있는 정읍에서 개최하기로 작정되어 지난 十月 三十日 午前十時 정읍청년회관에서 전북도위원회 대회를 이명수씨의 개회선언으로, 이평권씨의 의미심장한 폐회사가 있는 후 各團 대의원 자격을 심사한 결과 二十六個 단체에 六十二人의 대의원이 출석되었다 하며, 수백명의 방청객은 장내, 장외에서 대만원을 이루었다는데<sup>46)</sup>

46) 고려공산당 전북간부를 지내고, 1929년 제 3차 조선공산당사건과 깊숙이 개입했던 경력을 지닌 이평권은 사실 전라북도의 사회주의 연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평권은 정읍을 찾은 일이 있었는데 한번은 1927년 9월 30일 전북청년임시대회를 정읍청년회관에서 개최할 때 임시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았을 때요, 두 번째는 그 해 11월 4일, 전북청년회가 조선청년총동맹 전북연맹으로 그 명칭을 바꾼 후 정읍에서 道委員會를 개최할 때였다.

47) 전주에서 일신청년회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宋寧燮은 民衆運動聯盟會員으로 활동하다가 한 때 군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일본 동경에서 발간한 『斥候隊』라는 잡지 속에 숨겨 몰려 들어 온 불온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金炳麟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法廷에 서기도 했다. 또한 잡지 『農民運動』을 발행하던 일본 東京의 雜誌社 農民運動社の 朝鮮支部를 經營하였으며, 1929년 11월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48) 동아일보, 1927년 11월 4일.

요컨대 이평권은 정읍의 청년운동의 활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평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 지역 내 청년회 조직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정읍 지역 내의 청년회들이 통합을 이룬 것은 위 대회가 있은 후로 근 8개월이 지난 1928년 5월이었다. 이때는 이미 전라북도의 거의 모든 시군에 있던 청년회들이 靑年同盟으로 편입되고 또 전라북도 내에 全北靑年聯盟이 조직되어 道內的 모든 청년조직을 관할하기 시작한 후였다. 정읍의 청년회 통합도 이러한 주변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정읍청년동맹의 탄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산외청년회였다.

朝鮮靑年運動이 分散에서 統一로 飛躍되어 組織이 漸漸深刻하여 가는 이즈음에 井邑郡 內에서 散在한 靑年團體는 너무나 睡眠狀態에 있음을 一大有感으로 생각하여 山外靑年會의 發起로 郡同盟創立準備會를 去五日 同會館에서 舉行하였는데 準備委員及決議事項은 如左하다더라<sup>49)</sup>

산외청년회의 발기로 탄생하게 된 정읍청년동맹은 그러나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새롭게 탄생하게 된 정읍청년동맹이,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간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읍청년동맹의 창립대회가 경찰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 진행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49) 동아일보, 1928년 5월 9일. 이날 준비위원으로 선거된 사람은 은성천, 송금상, 김진영, 김환익, 조기준 등이었으며, 결의사항은 오는 5월 12일 태인청년회관에서 정읍청년동맹 창립대회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井邑青年同盟 創立準備委員會에서는 準備에 沒頭하여 오든 바 예정대로 今月 12일 오전 11시경 泰仁 萬化樓에서 金鎮英君의 開會宣言으로 井邑青年同盟 創立大會를 開하자 井邑署로부터 出張해 온 高等係主任 이하 正私服 警官이 大會의 場内外를 물샐틈 없이 嚴重히 警戒하여 一般의 空氣가 더욱 緊張하였는데 尹東鎮君의 意味沈痛한 開會辭를 비롯하여 盟員點名及資格審査를 마치고 임시의장 金鎮英君 副會長 殷成天君 書記 閔丙觀君 查察 宋銀祥君을 選舉한 후 各地에서 온 祝電 祝文을 朗讀하였는데 任實青年同盟에서 온 祝文은 不穩하다는 이유로 경찰서 당국으로부터 금지를 당하고 綱領 規約 政策 및 標語를 통과할 때 준비위원 丁琢君으로부터 강령 1항은 금지를 당하였다는 보고가 있자 일반은 그것이 각 青年同盟의 共通綱領이므로 다른 곳에서는 다 통과되어 늘 紙上에 발표되는 것임을 불구하고 오직 정읍경찰서만 이를 금지함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항의가 있어 議長 金鎮英君이 질문함에 入江 高等係主任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 駐在所로 오라함으로 어쩔 수 없이 제 1항만은 통과를 못하고 2항과 3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이어 規約 政策 및 標語를 통과하였는데 政策 중 公普校에 관한 2개 정책은 미리 금지를 당하여 발표 통과치 못하였고 左記 執行委員은 銓衡選舉한 후 토의사항에 入하여 一瀉千里의 勢로 左記의 諸件을 決議 후 來賓 축사로 山外青年會委員長 洪鍾洛君 山外農民組合代表 宋祥文君의 열렬한 축사가 有한 후 世界無產青年萬歲 朝鮮青年總同盟萬歲 井邑青年同盟 萬歲 三唱으로 閉會하였더라<sup>50)</sup>

50)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 이날 3개의 강령을 채택하는데 그러나 제 1항은 경찰의 지시로 삭제될 당하여 알 수가 없다. 2항은 “全朝鮮青年 大衆의 의식적 敎養及訓練의 徹底를 기함” 이었고 제 3항은 “全朝鮮 青年大衆의 革固한 조직의 완성을 기함” 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정읍청년동맹에는 정읍 내의 어떤 청년회들이 참여하였던가. 정읍청년동맹이 결성된 후 여기에 동참한 기존의 청년회의 명칭은 支部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보면 정읍지부, 태인지부, 산외지부였다. 그러니까 정읍청년동맹에는 정읍청년회, 태인청년회, 산외청년회가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공식명칭은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 정읍청년동맹 태인지부, 정읍청년동맹 산외지부로 바뀌게 된다.<sup>51)</sup>

이후 각 지부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청년회를 조직하게 된다. 정읍청년회의 경우를 보면 1928년 8월 17일 제 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sup>52)</sup> “委員長及委員辭任에 관한 件”, “女性運動促進에 관한 件”, “盟員募集에 관한 件”, “講習會 開催에 관한 件”, “夜學에 관한 件”, “會館修理에 관한 件”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 중 여성운동문제 등 몇 가지 사항은 정읍청년회 시절에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읍지부의 성격이나 지부를 이끌어 간 집행부는 정읍청년회 시절과는 달랐다. 예를 들어 1930년 3월 25일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 제 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입집행위원과 토의사항을 보면,

#### <집행위원>

- 51) 정읍지역에 있었던 여러 청년회 가운데 정읍, 태인, 산외청년회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회들은 정읍청년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52) 정읍청년회에서는 7월 15일에 이미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를 설치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동아일보, 1928년 7월 18일의 기사를 보면 “全北 井邑靑年會에서는 去十五日 午後 三時 同會館에서 定期總會를 開하고 會員 二十名 出席으로 臨時議長 朴辛奎氏의 司會下에 同會 解體를 一致可決하고 卽席에서 井邑靑年同盟 井邑支部 設置大會를 開催하고 任員을 選舉한 後 重要事項은 新任委員에게 一任하고 來賓祝辭로서 閉會하였다더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委員長: 車守岩

委 員: 徐奉玉, 權孝燮<sup>53)</sup>, 崔在成, 梁奉雲, 朴錦愛

查委員: 柳在民, 金奏炳, 金重石

#### 〈토의사항〉

- 己組織 青年大衆 교양에 관한 건 · 班組織에 관한 건
- 同盟大會促成에 관한 건 · 未組織 青年大衆 組織에 관한 건
- 井邑 각 勞働組織 再建에 관한 건 · 井邑農民組合運動에 관한 건
- 井邑女性運動促進에 관한 건

등이었다. 정읍청년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정읍 有志인 박씨들의 이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지부 활동 영역도 그 폭이 매우 넓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민조합운동이나 혹은 노동조직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던 점은 당시 정읍지부의 성격이 정읍청년회 시절과는 매우 달라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sup>54)</sup>

그러나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는 회원들 중 재력 있는 모두 자들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창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심각한 재정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곧 청년활동의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읍지부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나,<sup>55)</sup> 그러나 그러

53) 권효섭은 1930년 동아일보 정읍지국 기사를 지내다가, 해방 이후 국회 의사과에서 공직생활을 한다.

54) 중의일보, 1928년 7월 22일의 기사를 보면 “전북 정읍군 중앙지대에 있는 정읍청년회는 재래의 조합주의적 조직일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로써 미루어 보면 정읍청년동맹이 창립되기 불과 1달 전만해도 정읍청년회는 처음 설립을 주도했던 정읍의 유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성격을 띠게 되는 정읍청년동맹의 탄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으리라 짐작되는데, 이 반대를 누가 어떻게 누르고 정읍청년동맹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55) 참고로 동아일보, 1929년 11월 4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이고 있다. 즉 “전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상태는 결국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정읍청년회와 함께 정읍청년동맹에 가담했던 태인청년회도 그 이름을 태인지부로 바꾸고 과거와는 다른 성격으로 탄생하게 된다.

井邑青年同盟이 單一的 組織을 부르짖고 今年 五月에 泰仁에서 創立되었음은 既報와 如하거니와 泰仁은 在來의 青年會가 없지 않음이 아니나 그나마도 有若無의 沈滯狀態에 빠졌음으로 井邑青年同盟의 創立을 契機로 泰仁支部 設置에 많은 애를 써 오던 바 該 青年會 臨時大會를 七月 二十四日 午後 一時 半에 該 會館 內에서 宋金相君의 司會로 열고 青年會 解體와 支部設置의 件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其席에서 泰仁支部 設置를 열었는데 宋金相君의 開會宣言으로 點名及盟員資格審査가 있는 후 臨時執行部에서 議長 宋金相君 副議長 金鎭器君 書記 金益坤君이 被選 登壇하여 規約을 통과하고 銓衡委員 三人을 選舉하여 左의 執行委員을 選定한 후 討議事項에 들어가 左의 各 項을 一瀉千里로

북 정읍 청년동맹 정읍지부에서는 同 회관에서 과거 7년 동안 지부집행위원 諸氏의 文肅退治라는 목표 하에 犧牲的 활동으로 갖은 고난과 싸워가며 근근이 유지하여 오던 바 현재는 남녀 학생이 이백 명에 달하여 전북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터이므로 동지부 위원 일동은 元氣百倍하여 방금 私學舍에 의한 학원으로 만들어 해산명령의 비운에서 건져내려고 노력 중이며 오래된 건물이라 校舍가 퇴폐하여 서리 찬 초겨울 밤에 어린 無產兒童들의 벌벌 떨어 가면서 남과 같이 배워보려고 모여드는 양은 참으로 가련하다 하며 同 支部에서는 校舍修理문제를 當面 임무로 하고 갖은 창피를 받아가며 각 방면으로 활동하였으나 하등 성과를 얻지 못하여 혈빛은 어린 아이들과 손을 마주잡고 느끼다가 돌아오는 십일월 일일부터 삼일 간 열리려는 궁술대회와 자전거 대회로 우리 일은 우리가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同 支部 집행위원 일동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양복等屬을 典當하여 多少의 資金을 만들어 대회장이 三十里나 山路를 隔하여 있는 곳까지 등에 혹은 어깨에 상품을 메고” 라고 하여 정읍지부 위원들이 허물어진 교사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양복을 팔거나 혹은 장사를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決意하였는데 井邑青年會館 位置에 관한 件은 議論이 百出타가 결국 中央地帶인 井邑郡內로 定하기로 하고 該同盟에 建議案을 보내기로 하였다<sup>56)</sup>

정읍청년동맹 태인지부 임시집행부에서 의장을 맡았던 송금상은 1924년 정읍노동조합원으로 朝鮮勞農總同盟의 간부를 지낸 경력의 소유자<sup>57)</sup> 1928년 이후에는 동아일보 정읍지국장으로 재직하였다.<sup>58)</sup> 또 집행위원장을 맡은 金益坤은 1919년에 설립된 新泰仁金融組合의 이사로 재직하면서<sup>59)</sup>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자이다.<sup>60)</sup> 이러한 자들이 주도한 태인지부의 성격은 분명 태인의 유지들에 의해 장악되었던 청년회의 시절과는 달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읍청년동맹의 탄생을 주도한 산외청년회도 산외지부로 그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러나 산외지부는 정읍지부와 태인지부와 달리 처음부터 일본 경찰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다. 이는 물론 산외청년회의 성격과 청년회를 이끌던 인물들의 성향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

56) 동아일보, 1928년 7월 30일. 이날 선출된 집행위원을 보면, 위원장, 金益坤, 金鎭英, 金鎭器, 宋金相 外 8인이었다. 그리고 토의 사항은 “맹원 모집에 관한 건”, “재정문제에 관한 건”, “예산편성에 관한 건”, “교양에 관한 건”, “군 동맹 위치 定定の 건”, “군 동맹 대의원 선출의 건”, “전 청년회 잔무처리에 관한 건”, “소년운동에 관한 건” 등이었다.

57) 시대일보, 1924년 5월 7일.

58) 송금상은 1928년 4월 동아일보 정읍지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28년 당시 전북정읍 소년동맹의 회장도 같이 맡고 있었다.(동아일보, 1928년 4월 30일 및 8월 18일) 그는 또 정읍지역 勞農總同盟의 간부를 지낸 자이다.(시대일보, 1924년 5월 7일)

5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7년. 김익곤은 또 1921년에 苗浦金融組合을 설립에도 관여하는데(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년) 이러한 경력의 소유자가 송금상과 함께 활동한 점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도 김익곤이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상의 전환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60) 동아일보, 1928년 9월 12일.

하여 먼저 다음의 기사를 주목하기 바란다.

전북 井邑郡 山外面에 在한 山外青年會에서는 朝鮮青年總同盟 井邑青年同盟이 創立되면서 바로 해체하고 井邑青年同盟 山外支部를 설치하려고 준비에 奔忙하던 중 去 八月 十九日 오전 十一時에 同 支部 設立大會를 개최하였는데, 定刻 前에 本 駐在所로부터 宣言, 綱領, 政策, 標語 規約, 祝文 등을 전부 가지고 오라 하여 동대회대표로 殷成天君이 갔던 바 정책, 표어는 可謂 전부가 금지를 당하고 축문 중 임실청년동맹에서 來한 一通도 압수를 당하였으며 규약이 滿 十六歲 이상이라는 것을 십 팔세 이상으로 改正하라 하기에 그 이유를 질문한 즉 署長의 명령이라 하여 절대로 아니 된다는 동시에 학생은 일절 盟員됨도 불허한다 하여 동 대회는 개최하기 전부터 매우 긴장하였는데 정각이 되자 사회로부터 개회를 선언한 즉 臨席警官은 아직 경관이 다 오지 아니하였으니 잠깐 중지하라 함으로 어쩔 수 없이 경관이 다 오도록 기다리다가 드디어 六十名 正私服 警官 臨席한 후 개최하게 되었는데 장내는 물론 장외까지도 경계하다가 천진난만한 五六의 유아가 장외에 있음도 불구하고 축출을 명하니 그 유아는 질겁하여 달아나는 등 회장은 긴장에 긴장을 가하였다. 이에 殷成天君이 개회를 선언한 후 이어서 同君의 意味深長한 개회사가 있는 후 點名을 약한 후 임시집행부에 들어가 의장 은성천, 서기 趙乙奉 兩君이 피선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좌기 임원을 선정한 후 토의 사항에 들어가 勞動農民運動에 관하여 宋旺起君의 열렬한 이론이 전개되자 注意中止를 연호하여 중지를 당하고 장재선군이 소년운동에 관하여 토의하다가 역시 중지를 당하는 등 주의 중지 후에 좌기 사항을 결의하고 閉會하니 오후 一時 半이었다<sup>61)</sup>

61) 중의일보, 1928년 8월 28일.

정읍청년동맹 산외지부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위 대회에서 議長으로 뽑힌 殷成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1924년 중국 상해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사상의 전환을 하고 국내로 들어온 인물이었으며, 1929년 전라북도 공산주의자들의 비밀결사 조직에 관여한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바 있으며,<sup>62)</sup> 1930년대 초에는 시국사범으로 정읍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경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sup>63)</sup> 뿐만 아니라 산외지부 창립대회 때 토론한 내용을 보면, 형평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이 있었는데,<sup>64)</sup> 당시 형평운동은 전주의 一新靑年會나 全州靑年同盟 등 소위 사회주의 路線을 표방한 단체에서 주로 다루던 사안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읍청년동맹 산외지부는 설립초기부터 일본 경찰의 심한 견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읍청년회, 태인청년회, 산외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탄생하게 된 정읍청년동맹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가 궁금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읍청년동맹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경찰이 정읍청년동맹의 모임조차 허락하지 않아 결국 서면으로 모임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으며,<sup>65)</sup> 1930년 2월 28일, 당시 정읍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있던 崔基洪, 金鎮英, 丁琢,

62) 중의일보, 1929년 5월 7일. 당시 온성천과 함께 체포된 자들 중 정읍출신을 보면 吳台泳, 柳澤基, 柳然基, 張世澤 등이었다. 이 중 유언기는 온성천과 함께 동아일보 기사를 지냈으며 입암청년회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 1928년 이후에는 정읍청년동맹의 핵심멤버로도 활동하게 된다.

63) 온성천은 정읍청년동맹이 창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일보 태인지국 기자직을 사임한다.(동아일보, 1928년 11월 3일) 이후 그는 정읍청년동맹의 핵심멤버로 활동하는데, 조선일보, 1931년 12월 30일을 보면 “전북정읍경찰서는 모 사건의 용의자로 宋洙洛(山外面), 金容憲(梨平面), 殷成天 외 6명을 검거한 바 신년을 맞게 되자 이들은 고통을 참지 못해 단식을 단행하다” 라고 나오고 있다.

64) 중의일보, 1928년 8월 28일.

65) 중의일보, 1930년 4월 13일.

金昌乙, 李守岩 등이 3.1절 예비검속을 이유로 사전에 검속되었다가 일주일 이 지난 3월 5일에서야 석방된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필자는 지금까지 1920년대 정읍지역에 설치되었던 청년회의 조직과 그 활동 그리고 1920년대 후반 정읍지역 청년회가 정읍청년동맹의 지부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 문제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920년대의 전후반을 기준하였을 때 정읍지역에는 모두 10개의 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井邑靑年會와 같이 군 단위에서 조직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泰仁靑年會, 古阜靑年會와 같이 면을 단위로 설립한 것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어느 특정 문중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도 있었으며 그래서 특정의 성씨가 주도하는 청년회도 있었다.

1920년대 정읍지역의 청년회 현황을 보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은, 기독교청년회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청년회가 정읍 지역에는 단 하나도 설립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요, 그래서 천도교의 성세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였을 것임을 감안하면, 천도교청년회 정도는 설립되었을지도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궁금하다.

정읍 지역의 청년회는 문맹퇴치와 지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야학을 운영하거나 또는 음악회, 연극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이 점을 필자는 특히 정읍청년회와 태인청년회, 고부청년회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들 청년회들이 시국문제를 다룬 강연회

등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점은 아마도 청년회의 조직에 지방 유지들이 주로 관여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전북청년연맹이 결성되던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정읍 지역의 청년회는 소위 정읍청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의 과정을 겪는다. 당시 이 정읍청년동맹에 참여한 청년회는 정읍청년회, 태인청년회, 산외청년회 뿐이었다. 아마도 다른 청년회들은 활동이 매우 미미하여 그 이전에 이미 해산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의 청년동맹은 그 탄생이 매우 늦은 것이었다. 전주에서는 이미 1924년에 전주청년동맹이 탄생하고 또 전라북도 내 다른 지역 역시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그러나 정읍에서는 192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필자는 정읍 지역의 청년회를 이끌었던 자들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리라 보았다. 청년동맹이 탄생하면서, 대부분 사회주의를 표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정읍에서는 유독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정읍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시 전북청년동맹을 이끌었던 이평권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산외청년회가 주도하여 탄생한 정읍청년동맹은 이전의 청년회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이에 따라 설립초기부터 일본의 심한 경계와 간섭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연맹의 모임조차 허락받지 못해 결국 서면으로 그 모임을 대신하여야만 하였으며, 삼일절을 앞두고 연맹의 집행위원들이 경찰로부터 사전 검속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정읍의 청년조직은 1930년대 이르러서도 그 명맥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그 활동은 극히 미약해 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아마도 일제의 탄압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그 대신 친일의 성격을 띤 청년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단체가

지는 언급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1920년대의 신문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실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수가 없었다. 이 점이 본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 토론 및 대담(Ⅲ)

발표 : 송만오(전주대학교수)

사회 : 이영일(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토론 : 김병남(종이박물관 학예연구사)

홍성덕(전북대 학예연구관)

조광환(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최옥환(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박재상(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사회자 : 그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발글자료 학술세미나중 세번째로 전주대 송만오 교수님으로부터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연구”라는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약정토론자로 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관 홍성덕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약정토론 이후에 이 주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오 : 소개받은 송만오입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발표를 부탁받고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제 전공이 동학과는 시기가 좀 다른 개화기 이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지역 청년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읍지역의 청년회가 동학의 후예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정읍의 역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규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저도 논문을 읽어가면

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만오 교수님으로부터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연구” 라는 발표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논문을 의뢰하면서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1895년에 동학농민혁명이 끝이 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읍에 뿌리를 내렸는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당시 정읍지역에서 힘있게 활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 속시원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정읍지역의 청년회를 이정도로 규명해준 송만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내용 및 토론 내용은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료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 대하여 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관로 제직하고 계시는 홍성덕 학예연구사로부터 약정토론을 진행하고, 후에 이 자리에 참가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및 궁금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 소개받은 홍성덕 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론이기 보다는 첨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연구를 기획한 것은 나름대로 기획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자체의 문제보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읍지역의 사회구조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어 가느냐에 대한 의문이고 특히 정읍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철저히 관군과 일본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식 및 방향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거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사적인 연결고리들만을 연구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러한 연구는 지역사의 내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읍지역 청년회가 다른 지역의 청년회와 다르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단위의 청년회 조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MCA나 YWCA같은 전국단위의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천도교 청년회 조직은 전국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조직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정읍지역은 조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회 활동 면에서 여타의 지역들은 시국강연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문예쪽이나 생활개선쪽에 관련된 강연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전주지역 청년회에서는 역시 민족해방이라는 강연 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청년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외청년회를 제외하고는 사회적인 혹은 시국적인 강연들이 열리지 않았고 특히 민족해방이라는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강령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읍지역의 움직임들을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동학에 대한 그 지역의 기억 혹은 인지가 이런 청년회의 모습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읍지역의 전근대 이후의 사회여론의 형성방식이라든지 혹은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의 관점에서라든지의 분석의 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20년대 정읍지역의 청년회 가담세력들이 상당한 재력이었다는 것은 매우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894년에 이지역(정

읍)에서 농민혁명이 발발하기는 했지만 농민들 자체가 정읍지역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주도세력은 아니었다 라는 거죠. 여전히 정읍에도 반농민적 성향을 가졌던 유림의 세력이 강했고 이 유림의 세력들이 후에 의병으로 연결되어 1894년의 동학이라는 봄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지역의 시류에 부의하면서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해 나갔던 인물들은 전근대부터 존재해왔던 유림계층 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림계층들이 일제시대 이후에 일제자본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친일자본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정읍지역의 유력한 지도계층으로서 청년회라는 활동을 끌어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물결이 여타지역과 달리 정읍지역에 투영되지 못한 것이 정읍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 한 것인지 예컨대 동학이라는 혹은 시대를 개혁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때 아픈 추억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혁신적 사상들이 이데올로기로서 작용되지 못하는 한계점 등인지 아니면 정읍지역의 초창기 사회주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여타지역에서처럼 지주집안 출신들이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화 되어 귀국한 후에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어 내는 데 이런 것이 어려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조선총독부의 정읍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있어서도 정읍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전라북도의 한지역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이 사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의 시초였기 때문이고 일본의 이런 의도에 가장 극렬하게 반발했던 지역도 역시 정읍이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이것은 정읍지역의 일본인들의 진출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제·정읍·군산으로 이어지는 수탈기지로서의 지역적인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지 불과 20년 뒤 정읍의 모습도 동학 당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앞으로도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청년회와 농민군과의 연계성은 앞으로도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추정컨대 거의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지역의 청년회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1890년대에 기층민에 속했던 계층이 1920년대 문화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청년회 조직에서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농민 계층이 1920년대 청년회조직에 포함되어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학의 후예들이 3·1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청년회의 태동이 철저하게 만세운동의 실패에 의하여 기인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만세운동으로는 사회구조의 내부적 개혁이나 민족해방 등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회 활동이라는 것이 지극히 민족적인 문제를 외부적으로 표방은 하고 있으나, 사실 활동은 사회 내부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와 농민군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 반론이라기보다는 논문의 부연설명처럼 들리는군요(웃음) 사실 저도 논문을 미리 읽으면서 혹시 1920년대 청년회 조직이 비록 동학농민혁명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기는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이 1895년 이후 바로 그 움직임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다

는 사실 때문에 조금은 동학의 후예들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1920년대 청년회 조직들이 동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 하는 것은 좀 설부른 생각이 드는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송만오 : 제가 요즘 정읍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청년회 조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정읍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커다란 하층민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의 청년회 조직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런 청년회의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읍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는 이조말의 정서로 회귀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태인지방의 해주은씨는 전국적인 별죽집안으로 동학농민혁명 후 정읍지역의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지역적인 모습은 동학농민혁명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철저한 탄압 때문인 것으로 추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지역의 청년회가 다른 여타지역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역으로 이런 탄압에 기인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청년회 구성원들의 족보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고 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이후 정읍지역이 이조말의 사회

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십니까?

박재상 : 저는 정읍지역 청년회 자체를 1928년도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정읍지역은 사회자체가 이조말의 사회 즉, 전근대적인 사회로 돌아갔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는 발표문에서 얘기하는 청년회는 명칭상 청년회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조직자체는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동계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1928년에 있었던 신간회운동과 함께 좌우 합작문제 이런 것들의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청년회조직이 어떻게 보면 주도층들이 친일적인 성격인데, 고부군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부지역이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동계형태로 움직였다고 하는 가설이 성립을 한다면, 고부지역의 사람들이 친일적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청년회 조직이) 친일단체였다고 보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만오 : 청년회가 친일단체라는 것은 아니구요 친일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논문의 차경삼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싶군요 정읍전기주식회사의 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읍전기주식회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곳에 박흥규도 들어가고 차경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에 이사로 참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지 저항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청년회의 성격이 친일단체는 아니지만 친일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초창기 청년회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주 청년회도 초창기에는 1924년에 이런 성격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전에는 친일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예컨대 박영철이 만든 회사에 대주주로 있었던 사람이 거의 청년회의 회장을 맡습니다. 이것이 1924년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침투를 하여 조직의 성격이 바뀌게 되고 이것이 곧 전주 청년동맹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인 지방의 청년회는 왜 이런 성격의 변화가 늦게 일어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태인 지방 사람들의 반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평권이라는 사람은 고려 공산당 간부를 지내는 데 이사람이 정읍에 가서도 정읍지역의 청년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정읍지역의 청년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현재의 청년회운동을 사회주의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데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안되느냐? 이것이 바로 송씨나 은씨들의 반발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1928년에 되어야 가능했었고, 이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즉, 손을 떼어버린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청년회에 가담을 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청년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읍지역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조광환 : 네, 선생님의 정읍에 대한 논문은 정읍 향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읍에 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연구를 더욱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청년회를 통한 접근보다는 정읍지역의 반농민군 활동의 흐름 쪽에서 접근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읍지역의 동학농민후예들과 청년회의 사람들과 관계는 애초부터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읍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청년회 활동이 미비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더 의미 있는 논점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관련하여 유족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부녀자들은 보쌈을 당하거나, 그나마 남은 재산은 지역의 유지들이 갖은 명목으로 약탈을 해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후예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버금가는 영학당 운동을 또 벌이면서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의 후예를 추적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영학당의 후예나 부안 및 서해안 일대를 확보했던 활빈당 또는 정읍 일대의 보천교활동 등을 조사하는 것이 훨씬 접점을 찾기에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홍성덕 : 그전의 토론에 동계라는 얘기가 나왔고, 송만오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주역사박물관의 향안을 보면 동학농민의 후예하고는 결혼도 하지마라는 내용이 실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학당이나 운동사적인 측면에서만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데, 지역의 내부적인 구조 및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끝이 난 후에도 운동사적으로 끈임없이 연결되는 운동사적인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읍 지역사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학이 일어나기 전의 정읍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읍은 유학으로도 전라북도 지역에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의 정읍지역에 대한 사회분석적 측면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존재했던 계라고 하는 조직의 측면이 동학이후 근대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이후에 이런 계들이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청년회라는 조직들인 것입니다. 이 청년회는 비록 동계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사회가 큰 변혁을 겪은 후에는 나타나는 것이므로 초창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만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역할론 에서 볼 때 기념관은 운동사적으로 볼 때는 동학부터 시작하여 민주화운동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하고, 사회 내부적인 연구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조말 이후 동학에 대한 연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학과는 직접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송만오 교수님의 연구처럼 다양한 지역사적 연구의 시도들이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송만오 : 고맙습니다. 어쨌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꼭 동학에 관련된 자료 및 연구에 치우치지 말고 보다 많은 지역사적 연구를 병행해서 훌륭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세우기를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논의가 되는 그런 바람직한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자평해봅니다.

최옥환 : 이 주제의 토론에 합당한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임실·남원지역의 사례를 살펴 보면서 정읍지역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임실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오랫동안 동학의 후예들이 남아 있다가, 초창기부터 천도교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지역은 (동학교도에 대한) 오랫동안 탄압 및 감시를 하면서 동학의 씨를 말렸던 것에 비하여 임실지역에서는 동학과 관련하여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임실·남원지역에서는 (동학도가) 일본이나 관군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민보군 박봉양 부대와 주로 싸움을 했지 관군이나 일본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실·남원)탄압이 비교적 덜 했고, 남원지역은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지만 임실지역은 일부가 회문산이나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대개 6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탄압의 강도가 덜해지기 때문에 (산속을) 그때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족에 증언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도 감시가 너무 심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살짝 왔다가 밤에 다시 도망가는 그때까지도 귀향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니다. 예컨대 사발통문 서명자 중 한사람인 최홍렬의 후손이 증언하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정읍·고부지역은 끝까지도 탄압이 강했고 감시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특히 임실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전투와 관련하여)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남원지역은 약 40여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지역은 그때 조직되었던 천도교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장 : 오늘 학술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진지하게 동학농민혁명에 관하여 토론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찍 세미나를 준비해서 분야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발표를 했으면 더 훌륭한 논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촉박하게 세미나를 준비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학술세미나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좀 더 훌륭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만오 교수님의 지적처럼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신발굴자료 학술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全瑋準의 家系와 出生地에 대한 研究

송 정 수(전북대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丙戌譜』의 發見經緯와 內容檢討
  - 1) 『丙戌譜』의 發見經緯
  - 2) 『丙戌譜』의 全瑋準 관련 내용 검토
3. 全瑋準의 家系와 家門
4. 全瑋準의 出生地에 대한 검토
  - 1) 出生地에 대한 기존의 諸說
  - 2) 全瑋準 家系의 이동경로와 出生地에 대한 검토
5.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에 일어난 이른바 東學農民運動은 한국 근현대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1)</sup> 그렇지만 이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아직도 견해의 일치를 보

---

1)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 연구의 단일 주제로 가장 방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金東洙 編, 『韓國史論著分類總目』 3, 사회 「농민항쟁 편」(해안, 1996); 朴孟洙, 「東學天道敎關係 論著目錄」 『신인간』 482-8; 全北大 全羅文化研究所 編, 『全北研究論著目錄』, 역사지리 한국사 조선시대편(해안, 1997) 참조.

이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sup>2)</sup> 그것은 이 사건을 배태시킨 시대적 상황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문에서 아직도 해명되지 못한 문제점이 散在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민운동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 봉기의 주체가 누구였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했는가 라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고찰은 단순히 어느 한 인물의 傳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 역시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최고 지도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그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명되어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점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많은 異論도 제기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가 어디에서 출생하였고, 어디에 묻혔는지조차도 확실치 않으며, 그가 과연 동학교도였는지, 그의 출신은 兩班이었는지 良人이었는지, 아니면 殘班이었는지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거니와, 또 그의 思想이나 行蹟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여러 異說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뒤늦게 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의 유동

2) 이 사건의 성격규정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명칭만 해도 ‘東學農民革命’, ‘東學農民運動’, ‘東學農民戰爭’, ‘甲午農民戰爭’, ‘1894년 農民革命運動’, ‘東學農民蜂起’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용어문제에 대해서는 왕현종, 「1894년 농민봉기,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0호, 1990년 가을호 참조 바람. 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에서 통용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적인 생활에서 기인하는 한편 극히 제한적이고 불명확한 자료와 口傳에 의해 기술될 따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거니와 새로운 많은 자료의 발굴에도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자에 전봉준 장군의 家系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는 『天安全氏世譜丙戌譜』<sup>3)</sup>가 발견되었거니와 본인은 이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하여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출생지에 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피력된 바 있고,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자료나 구전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으며, 때문에 여러 이설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族譜는 어느 인물의 가계를 살피는 데 있어 어떠한 여타 자료보다 根幹이 되는 필수적인 자료인 것이다. 특히, 『丙戌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886년(丙戌年)에 간행이 된 족보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 전봉준 장군의 가계는 물론이고 그의 身上 및 그에 관한 상세한 여러 정보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본인은 이 족보를 대하면서부터 전봉준 장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의 가계와 출생지 및 그의 신상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心證을 정리한 바 있다.<sup>4)</sup> 그러나 종래의 글에서는 『丙戌譜』에 수록된 全炳鎬와 전봉준 장군의 同一人 여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

3) 『天安全氏世譜丙戌譜』의 발견경위와 내용검토에 대해서는 2장을 참고바라며, 이하에서는 『丙戌譜』로 略稱함.

4) 拙稿, 「全瑋準 將軍 家系에 대한 檢討 - 『天安全氏世譜』의 全炳鎬와의 同一人 여부 -」, 『호남사회연구』 2집, 1995. 및 「全瑋準 將軍 出生地에 대한 考察 - 『天安全氏世譜』를 통해서 본 全瑋準 將軍 家系와 高敞 堂村 出生說 -」(신순철 이진영 원도연 편,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1998 所收)

로 전봉준 장군에 관한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관계로 여타의 관계 자료들을 충분히 참고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짜임새 있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하였거니와 몇몇 부분에는 오류도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서술된 내용이 학계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으로 해서 次第에 이를 보강하여 보다 충분한 내용으로 서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의 연구를 토대로 하되, 전봉준 장군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광범하게 수집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정리하고자 한다.

## 2. 『丙戌譜』의 發見經緯와 內容檢討

### 1) 『丙戌譜』의 發見經緯

1886년에 간행된 『丙戌譜』가 세상의 빛을 보게된 것은 이를 소장해 온 全聖泰(全東根)氏<sup>5)</sup>의 끈질긴 노력과 1993년 당시 고창문화원장인 李起華氏가 이 『丙戌譜』를 토대로 해서 「全奉準은 高廠 堂村 胎生」<sup>6)</sup>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 『丙戌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천안 전씨 문중에서조차도 이 족보의 존재는 물론 그 간행 사실조차도 전혀 몰랐던 듯하다. 그것은 1986년도에 간행이 된 『天安全氏大同譜』總卷에 수록된 「天安全氏世譜 編修內譯」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편수내역에는 그

5) 1923년 2월 14일생으로 고창군 신흠면 만화동에서 부친 全長壽와 모친 光山 金氏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天安全氏丙戌譜』에 전봉준 장군과 동일인으로 기술되어 있는 全炳鎬와는 11수간이다. 그는 1961년에 부안에서 생활의 터전을 이룬 후 부안군 부안을 서외리에 살다가 1987년 12월 16일에 타계하였다. 위 주소에는 유족들이 계속 살고 있으며, 『天安全氏丙戌譜』의 原本은 그의 장남인 全龍虎氏가 소장하고 있다.

6) 李起華, 「全奉準은 高廠 堂村 胎生」, 『郷土史料(12·13집)』(고창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1993)

동안 편수된 여러 천안 전씨 세보의 편찬연도와 편수장소, 편집임원 등의 내용이 보이는데, 이를 우선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회수  | 권수  | 편찬연대             | 편수장소    | 편집임원            |
|-----|-----|------------------|---------|-----------------|
| 1회  | 逸傳  | 宣祖20년(1587년, 丁亥) | 公州 新院寺  | 全世翼             |
| 2회  | 逸傳  | 光海원년(1609년, 己酉)  | 天安 豐歲   | 全有道             |
| 3회  | 單卷  | 顯宗15년(1674년, 甲寅) | 公州 甲寺   | 全克亨 全克諧         |
| 4회  | 3권  | 肅宗30년(1704년, 甲申) | 鎭安 金塘寺  | 全一會 全有海 全時和 全爾常 |
| 5회  | 5권  | 英祖44년(1768년, 戊子) | 錦山 身安寺  | 全在泰 全在成 全始述 全始德 |
| 6회  | 9권  | 正祖24년(1800년, 庚申) | 天安 儉溪書院 | 全始祿 全光魯 全命性     |
| 7회  | 12권 | 純祖30년(1831년, 辛卯) | 天安 儉溪書院 | 全泗性 全宗源         |
| 8회  | 18권 | 哲宗13년(1862년, 壬戌) | 錦山 廣業齋  | 全默容 全基弘 全宗燁 全永升 |
| 9회  | 16권 | (1914년, 甲寅)      | 天安 儉溪書院 | 全達弘 全定奎 全泳奎 全載敏 |
| 10회 | 13권 | (1931년, 辛未)      | 天安邑     | 全載敏 全箕欽 全海龍     |
| 11회 | 10권 | (1957년, 丁酉)      | 天安 儉溪書院 | 全海龍 全泰鎮 全海一     |
| 11회 | 5권  | (1957년, 丁酉)      | 全州      | 全基洪 全性旭 全彩烈     |
| 12회 | 17권 | (1968년, 戊申)      | 大田      | 全中權 全永泰         |
| 13회 | 7권  | (1986년, 庚戌)      | 天安      | 全甲植 全泳俊 全行秀     |

이에 의할 것 같으면 『丙戌譜』는 1886년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sup>7)</sup> 1862년에 8회 제 편수된 『壬戌譜』와 1914년 9회 제 편수된 『甲寅譜』 사이에 당연히 위치되었어야 하지만 전혀 그 편수된 내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위 편수내역의 편찬연도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世譜는 대체로 25년 내지 30년 주기로 간행되고 있다. 이로 볼 때, 『壬戌譜』와 『甲寅譜』의 편수시기의 간격은 52년으로 양 세보 사이에 『丙戌譜』가 간행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丙戌譜』事蹟篇에 실려있는 「天安全氏世譜舊序」를 보면 己酉譜의 舊序로부터 壬戌舊譜序까지 『丙戌譜』 이전의 여러 세보의 序文이 기록되어 있거니와 「天安全氏世譜舊跋」에도 戊子舊譜跋에서부터 壬戌舊譜跋의 跋文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

7) 『丙戌譜』의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항을 참조.

대 본 世譜는 『壬戌譜』 다음으로 간행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sup>8)</sup> 아무튼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건대 1886년에 간행된 『丙戌譜』는 이 세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천안 전씨 문중에서조차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전성태씨가 소장하고 있는 『丙戌譜』는 아마도 唯一本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전성태씨의 先親께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丙戌譜』를 없애지 않고 은밀하게 보관해 왔고, 전성태씨에게 전해져 뒤늦게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전성태씨는 어려서부터 선친(長壽)으로부터 『丙戌譜』에 수록되어 있는 全炳鎬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이며, 이 世譜를 남에게 보이면 죽는다는 말을 줄곧 들어왔다고 한다. 동학 농민운동 직후 농민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색과 함께 살육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은 물론 조상까지 숨기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 자신의 姓氏까지 바꾸어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여러 천안 전씨 집안에서는 대대로 간직하고 있던 세보를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世譜를 간직해 온 전성태씨의 선친은 자신의 뿌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한 마음이 남달랐다고 할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당시 전성태씨의 선친들은 高敞郡 德井面 堂村에서 世居하였다.<sup>9)</sup> 그러나 농민군에 대한 剿討작전이 전개되자 이들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들 가운데 전성태씨

8) 『丙戌譜』 事蹟篇

9) 현재 堂村에는 천안 전씨 성을 가진 호구는 한 가구도 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전성태씨도 그렇게 증언한 바 있고, 현지의 주민들도 예전에 천안 전씨들이 이곳에 상당한 勢力을 이루고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흔적도 찾기 어렵지만 당촌 마을 오른쪽에는 천안 전씨의 무덤 4, 5기가 있었으며, 전성태씨는 살아 생전에 이 묘지를 해마다 별초하곤 했었다.

집안은 고창군 신흥면 더그물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다시 인접해 있는 무림이라는 마을을 거쳐 만화동이라는 곳에 정착하였다. 전성태씨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그의 선친은 다른 세간살림은 다 버렸지만 『丙戌譜』만은 숨겨 가지고 왔다고 한다. 전성태씨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그는 생계를 위해 부친과 동생(영수)을 집에 남긴 채 집을 떠나 고입살이로 전전하다가 외가의 인척들이 살고 있는 부안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부친은 돌아가시고, 동생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뒤늦게 서야 옛 고향집에 돌아가 동생이 죽기 전 만화동에 인접한 농암촌에 살고 있는 친척 全良山氏에게 맡겨 놓은 『丙戌譜』를 챙겨 부안으로 가져왔던 것이다.

이후 전성태씨는 생활에 쫓겨 여념이 없다가 회갑이 가까워져야(1980년대 초)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이루자 『丙戌譜』를 챙겨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분주하였다. 특히 당시 천안 전씨 여러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天安全氏大同譜』에 자신의 집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전봉준 장군이 천안 전씨 三帝公派에 수록되어 와전되고 있음을 안 전성태씨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가 소장하고 있던 『丙戌譜』를 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뛰어 다녔다. 본인이 이 『丙戌譜』를 대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당시 전봉준 장군의 가계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던 족보는 1953년(癸巳年)에 발간된 『天安全氏 三帝公派譜』와 1966년에 간행이 된 『天安全氏大同譜』였다. 이에 의할 것 같으면, 전봉준 장군은 천안 전씨 三帝公派 40대 孫으로 부친인 亨鎬(字는 亨祿, 乙巳生, 1845년 생)와 모친인 光山 金氏(戊辛生, 1848년 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初名은 瑋準, 항렬명은 泳準이고 字는 明淑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봉준 장군이 1855년 생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겨우 10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한 그의 어머니와는 8살 차이로 나타난다. 이것

은 위 족보들이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위작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찍이 신복룡 교수도 이들 족보를 근거로 해서 전봉준의 가문을 설명하면서도 위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족보는 크게 신뢰할 수 없으며, 간행될 당시 전봉준 장군의 威名을 기리기 위하여 新編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up>10)</sup>

아무튼 전성태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丙戌譜』는 이후 천안 전씨 문중에서도 받아드려져 이를 토대로 1986년에 새롭게 『천안전씨대동보(庚戌譜)』가 간행이 되었거니와, 또 이기화씨에 의해 『丙戌譜』에 있는 전봉준 장군 관련 내용이 소개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2) 『丙戌譜』의 全琫準 관련 내용 검토

전성태씨가 소장해 온 『丙戌譜』는 전체 卷數가 원래 몇 권인지 분명치 않다. 현재 전해져 오고있는 것은 「事蹟篇」 1권을 포함하여 모두 7권뿐이다. 이 世譜의 간행연도에 대해서 일찍이 이기화씨는 1886년에서 1894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11)</sup> 그러나 이 世譜 권1 맨 앞부분에 宋秉璿(1836-1905)<sup>12)</sup>이 쓴 「天安全氏世譜新序」가 붙여있거니와 이 新序는 崇禎 5년(丙戌年, 1886년) 가을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세보의 사적편에 族孫인 全光誠이 쓴 跋文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세보가 1886년(병술년)에 간행된 사실을 看取할 수 있다. 특히, 이 세보 권1 앞부분에 있는 「天安全氏世譜淵源錄」을 보면, 功臣錄에 대한 기록을 뒤이어서

10)申福龍, 『全琫準의 生涯와 思想』(서울:養英閣, 1982), pp.37-38.

11)이기화, 앞의 글, p.22.

12)구한말의 인물로 字는 華玉, 號는 淵齋, 諡號는 文忠이다. 尤菴 宋時烈의 9代孫으로 祭主를 거쳐 書筵官에 오르고, 이후 參判, 大司憲 등의 벼슬을 지냈다. 평소 충직한 성품으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단식을 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다가 결국 亡國의 恨을 품고 자결하였다.

舊譜, 즉 『壬戌譜』, 『辛卯譜』, 『庚寅譜』의 序文을 쓴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거나와<sup>13)</sup> 이를 이어 ‘『丙戌譜』의 序’는 淵齋 宋丈席이 썼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서 『丙戌譜』라 함은 다름 아닌 본 세보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세보는 당시 일반적으로 『丙戌譜』로 불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 『丙戌譜』가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전봉준 장군의 가계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丙戌譜』에는 전봉준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丙戌譜』 卷6에 기록되어 있는 全炳鎬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전봉준 장군이라는 것이며, 천안 전씨 문중에서도 1986년에 새로 『天安全氏世譜(庚戌譜)』를 간행하면서 이 두 인물을 동일 인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전봉준의 출생지가 고창현 덕정면 당촌이라는 설도 다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을 동일인으로 기술하면서도 필자의 과묵한 탓일지는 모르겠으나 두 인물이 동일 인물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丙戌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전봉준의 가계나 출생지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쓴 前稿에서 나름대로 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먼저 『丙戌譜』 권6에 기록되어 있는 全炳鎬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丙戌譜』의 序文은 淵齋 宋秉璿이 썼던 것이지만, 『壬戌譜』의 序도 錦谷 宋來熙가 썼을 뿐 아니라, 『辛卯譜』의 序는 剛齋 宋釋圭가, 『庚寅譜』의 序는 心齋 宋煥箕가 썼던 것으로, 天安全氏와 恩津宋氏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찍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初名 鐵爐, 字 明佐. 哲宗 乙卯 十二月 三日生. 配 礪山 宋氏 斗玉女,  
辛亥 八月 十六

日生, 忌 丁丑 四月 二十四日, 墓 泰仁 山内面 巢禽洞 祖妣墓下 卯坐.  
後室 南平 李氏

文琦女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全炳鎬의 처음 이름은 鐵爐이고<sup>14)</sup>, 字는 明佐이며, 哲宗 乙卯年, 즉 1855년 12월 3일에 태어났다. 그는 성년이 되어 4살 위인 礪山 宋氏 斗玉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丁丑年, 즉 1877년 4월 24일 본처와 死別을 하였고, 처를 태인 산내면 巢禽洞에 있는 할머니 묘 밑에 안장을 하였다. 그후 그는 南平 李氏 文琦의 딸을 後室로 맞아들였다.

위 내용은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전봉준 장군에 관한 인적 상황과 견주어 볼 때, 여러 면에서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출생연도에 있어서 두 인물이 1855년 생이라는 공통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 처음 심문을 받은 것은 1895년 2월 9일이며, 이때 전봉준 장군은 자신의 나이를 41세라고 대답하고 있다.<sup>15)</sup> 이로 보아 전봉준 장군의 출생연도가 1855년임은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전봉준 장군의 출생 연도는 한 때 1854년 생으로 알려져, 여러 서적에 잘못 기록된 적도 있었다.<sup>16)</sup> 그러나 그것은 41세라는 나이를 만 나이로 추정

14) 1862년에 간행이 된 『天安全氏世譜壬戌譜』卷6에는 그의 初名인 鐵爐로 기록되어 있다.

15) 「全瑋準供招」, 初招(1896년 2월 9일)

문: 나이는 몇 살인가?

답: 마흔 한 살이다.

16) 이흥직, 『국사대사전』(삼영출판사, 1984)에 전봉준의 출생연도를 1854년으로 기록하고 있거니와 일찍이 車相驥도 1854년(甲寅) 4월 11일에 전봉준이 출생하였다고 하고 있는데(車相驥, 「근세사상의 東學黨 首領 全瑋準(1)」, 『朝光』, 1935년 5월호, p.88.),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분명 오류로 보인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 1살을 먹은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심문을 받을 당시 전봉준 장군의 만 나이는 한 살을 뺀 40세인 것이며, 따라서 그의 출생 연도는 1855년이 옳다고 하겠고, 이에 여러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전병호의 妻家와 전봉준 장군의 처가가 모두 礪山 宋氏의 家로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전봉준 장군의 처가에 대해서 종래에는 전주 崔氏로 알려진 적도 있었다.<sup>17)</sup> 그러나 供招의 내용에서 그의 비서였던 宋熹玉과의 관계를 끈질기게 심문하고 있거니와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봉준은 처가로 7촌이 된다고 대답하고 있다.<sup>18)</sup> 물론 처족에는 외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宋氏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학의 증인이었던 宋熹玉이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의 妻叔이라는 주장도 있고 보면<sup>19)</sup> 송희옥과 송헌옥은 한 집안 같은 항렬로 보이거니와, 전봉준 장군의 妻族이 宋氏일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sup>20)</sup>

17) 경향신문 기자였던 李鏞善은 1960년대 후반무렵 李京烈과 全用辰의 증언을 토대로 전봉준의 처가 전주 최씨라고 했고(李鏞善, 「누가 녹두장군의 후예인가?」, 『여성동아』, 1968년 9월호, pp.126-127), 신복룡 교수도 한 때 1966년에 간행된 『天安全氏大同譜』를 근간으로 전주 최씨로 기록하기도 했지만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 p.52) 이후 이를 수정하고 있다. (『전봉준평전』, 지식산업사, p.80)

18) 「全瑋準供招」, 3招(1896년 2월 19일, 일본 영사의 심문)

문: 송희옥과 너는 인척관계가 없는가?

답: 처족으로 7촌이다.

19) 金岸基, 『東學과 東學亂』(한국일보사 春秋文庫, 1975), p.100에서 전봉준의 妻叔이요, 동학진영의 한 증인이었던 宋熹玉의 손자 宋龍浩氏의 목격담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기의 이 글은 1931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글로, 이 목격담은 이보다 전에 들은 것으로 보이거니와 따라서 이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 『丙戌譜』에 전병호의 聘父로 기록된 宋斗玉이라는 인물은, 동학 농민군이 고부관아를 함락한 후, 白山에 돌아와 진을 치고 두 번째 격문을 발한 시점에 襄主仁, 襄主贊, 宋寶浩, 朴璣雲, 鄭敬澤 등과 함께 務安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백산에 합류한 將領의 한 사람인 宋斗玉과 이름이 같다. (吳知泳, 『東學史』, p.113) 이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보다 더 추구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동일인일 개연성은 크다고 생각되며, 이 역시도 간접적으로나마 전병호와 전봉준 장군이 同一人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전병호와 전봉준 장군은 모두 前妻와 死別을 하고 後室로 李氏를 맞아들였다는 점도 공통된다.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전봉준 장군도 前妻와 사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일찍이 1920년대에 菊池謙讓이라는 日人 기자가 고부군 이평면을 찾아 이곳 村老들로부터 전봉준 장군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 해인가 전봉준 장군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妻가 죽자, 아내와 사별한 것을 애석히 여겨 무덤을 황토현 남쪽에 만들고 이곳에 장례를 지냈다. 그리고 당시 나라의 풍속과는 달리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이끌고 아내의 묘소 앞에 서서 목도를 올리곤 했다”<sup>21)</sup> 라는 대목이 보인다. 이는 甲午年 이전 시기 전봉준 장군의 생활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비록 傳承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되거나 미화된 내용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전봉준 장군이 前妻와 사별했다는 내용은 사실일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전봉준 장군은 전처와 사별을 하고 再娶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sup>22)</sup> 일반적으로 후실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 장군이 그가 살던 泰仁 東谷의 집에 돌아왔을 때의 광경을 “이곳에서는 後妻인 李召史가 오랫동안 외로운 안채를 지키며 前妻의 소생과 자기의 소생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이소사의 기쁨과 두 아이의 환호는 비유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sup>23)</sup> 라고 묘사한 菊池謙讓의 글에 의하면 전봉준이 후실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지고 그 후실은 李氏의 姓을 가졌음도 확인이 된다.<sup>24)</sup>

21) 菊池謙讓, 『朝鮮近世史(下)』(서울:계명사, 1939), 「東學黨의 亂」의 내용 중 전봉준의 인물편.

22) 申福龍,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 p.52. 그러나 申福龍 교수는 1981년 1월에 姜今禮 노파로부터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전봉준은 吳氏 문중의 한 과수대를 후실로 맞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申福龍, 같은책, p.149)

23) 菊池謙讓, 앞의 책, 「全瑋準의 歸鄉편」

이밖에도 두 아들을 두었다는 점도 공통된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 보겠지만 『丙戌譜』의 내용에 의하면 전병호는 東吉과 東一 두 아들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니와, 전봉준 장군 역시도 龍圭와 龍鉉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음이 전해지고 있다.<sup>25)</sup> 다만 이들 아들들의 이름이 서로 다른데,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족보에 오르는 이름과 집안에서 불리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장을 바꾸어 상론하겠지만 출생지에 있어서도 두 인물이 고창현 덕정면 竹林里 堂村으로 동일한 점이 확인되거니와, 또 『天安全氏世譜辛未譜』(1931년간)에 보면, 전봉준 장군의 號가 鐵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丙戌譜』에 보이는 전병호의 號와 같다는 점도<sup>26)</sup> 두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상에서 전병호와 전봉준 장군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두 인물은 출생 연도가 1855년으로 같고, 礪山 宋氏家の 女息과 혼인을 하였으며, 전처와 사별을 하고 이씨를 후실로 맞아들였는가 하면, 두 아들을 두었거니와 출생지도 고창 당촌으로 서로 같다. 물론 위와 같은 근거와 정황만으로 전봉준 장군과 전병호가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단순히 우연의 일치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정황증거가 인멸된

24) 申福龍 교수는 1981년 1월에 姜今禮라는 노파로부터 들은 증언을 토대로 “전봉준 장군이 平沙里에서 사는 동안 즉, 3차 거병이 있기 직전에 그는 이곳 吳氏 문중의 한 과수택을 後室로 맞이했고, 그 때문에 얼마 전까지 그 과수택의 前夫 소생인 오씨 집안에서 전봉준 장군의 제사를 받들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申福龍,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 p.149) 이 내용에서도 전봉준은 후실을 얻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吳氏 문중의 과수택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李氏 姓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5)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경주: 향토문화사, 1983), p.232.; 申福龍, 앞의 책, p.149 및 p.219.

26) 申福龍, 『전봉준평전』,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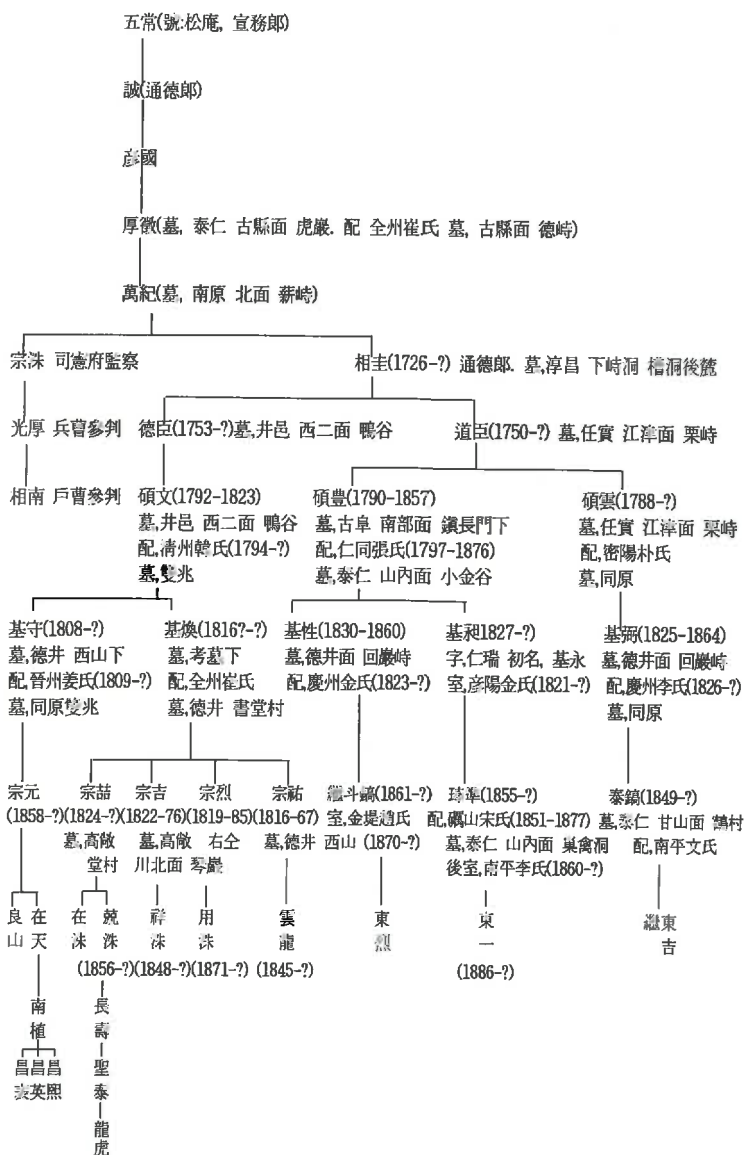
인물에 대한 이만한 방증이 있고, 또한 『丙戌譜』를 간직해 온 전성대씨가 어렸을 때부터 전병호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이라는 말을 선친으로부터 줄곧 들어왔다는 주장을 관련지어 볼 때,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은 이제 거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全琫準의 家系와 家門

위에서 전병호와 전봉준 장군이 동일인이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丙戌譜』는 전봉준 장군의 家系와 家門을 살피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丙戌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가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래 전봉준 장군은 天安 全氏 三宰公派 40代 孫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1953년(癸巳年)에 발간된 『天安全氏 三宰公派譜』와 1966년에 간행된 『天安全氏大同譜』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했거니와 이 大同譜는 僞作된 것으로 믿을만한 것이 못되며, 특히 『天安全氏丙戌譜』가 발견이 되면서 이들 족보의 허구가 명확하게 밝혀졌으며, 이 『丙戌譜』를 토대로 천안 전씨 문중에서는 1986년에 새로이 『天安全氏庚戌譜』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 『丙戌譜』와 『庚戌譜』에 입각해서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가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 족보에 의할 것 같으면, 전봉준 장군은 천안 전씨 文孝公(名은 信, 號는 栢軒)派의 枝派인 連山公(敏)의 曾孫인 松庵公(五常) 孫派에 속해 있다. 그는 천안 전씨 始祖인 髡으로부터는 53世孫이며, 文孝公으로부터는 17世孫이고, 松庵公으로부터는 10世孫이다.<sup>27)</sup> 松庵公 五常으로부터 그를 포함한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의 가계를 도표로 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27) 申福龍 교수는 전봉준 장군을 천안 전씨 始祖인 髡로부터 24世孫이라고 하고 있는데, (申福龍, 앞의 책, p.61) 이는 兵相公 宗道로부터 헤아린 세대이며, 髡으로부터는 53世孫이다.



이 도표의 내용을 보면, 전봉준 장군의 10代祖인 松庵公 五常은 종6품직인 宣務郎을 지냈고, 五常의 아들 誠은 정5품직인 通德郎을 지냈으며, 전봉준의 고조부가 되는 相圭 역시도 通德郎의 벼슬을 하였거니와 상규의 동생인 宗洙는 정6품인 司憲府 監察을 지냈고, 종수의 아들인 光厚와 손자 相南은 각기 종2품인 兵曹參判과 戶曹參判 등 높은 관직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전봉준의 가문은 본래 양반가문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다만 그의 증조부인 道臣代부터는 관직을 지낸 인물이 보이지 않음으로 보아 그의 집안은 점차 몰락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종래 전봉준 장군의 집안과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찍이 吳知泳은 『東學史』에서 전봉준 장군의 집안은 世代로 士林家라고 기술하였고<sup>28)</sup>, 張奉善은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인 全彰勳은 고부 향교의 掌議를 지냈다고 하였다.<sup>29)</sup> 그런가 하면 張道斌은 전봉준 장군의 집안은 세대로 고부 吏家였다고 기술하였거니와<sup>30)</sup>, 崔玄植 역시도 村老들의 말을 빌어 전창혁은 동리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고 하였고, 이밖에 鄉民 내지 平民이었다는 朴殷植, 金庠基, 愼鏞厦 등의 주장도 있다.<sup>31)</sup> 이와 관련해서 최근의 학계에서도 전봉준의 집안에 대해서 문자를 해독할 정도의 식자층으로서 동리의 일을 맡아보는 정도의 집안이라는 주장과 유교적 기반을 가진 士林의 가문이었다는 주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전자의 주장은, 족보에 전봉준 장군의 6代祖 이내에서 初試조차도 합격한 인물이 없다는 점, 전봉준 장군 집안의 貧寒한 경제적 사정 등을 근거로

28) 吳知泳, 『東學史』(서울:영창서관, 1978), p.161.

29) 張奉善, 「全瑋準實記」, 『井邑郡誌』(光州:履露齋, 1936), p.381.

30) 張道斌, 「甲午東學亂과 全瑋準」,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서울:여강출판사, 1991), p.33. 전봉준의 가계가 지방 아전이었다는 주장은 李敦化, Henderson, Shin 등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柳永益, 『東學農民蜂起와 甲午更張』(一潮閣, 1998) 제1장 2절, 「全瑋準의 儒敎的 背景과 勤王主義的 言動」의 주10) 참조.

31) 朴殷植, 『韓國痛史』, p.49;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 p.78.; 愼鏞厦, 「甲午更張과 身分制의 廢止」, 『韓國의 社會와 文化』 6, 1985, pp.13-15.

하여 제기하고 있으며<sup>32)</sup>, 후자의 주장은, 吳知泳과 張奉善의 주장을 바탕으로 전봉준이 작성한 포고문, 격문 및 고문서 등을 볼 때 그는 유교적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그의 供招 내용에 스스로 士를 業으로 하고 있다거나 孝나 忠義의 유교적 德目을 준수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제기하고 있다.<sup>33)</sup> 이들 양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 당시 전봉준 장군의 생활상태는 3두락의 전답밖에 가진 것이 없고<sup>34)</sup> 아침밥, 저녁죽으로 생활하는<sup>35)</sup> 어쩌면 평민보다도 못한 빈한한 상태였고, 또 그의 족보에 의할 것 같으면 증조부인 道臣代 이후로는 초시조차도 합격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도신의 윗대인 상규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낮은 직이지만 벼슬을 한 양반임에는 틀림없고, 또한 전봉준 자신 스스로 ‘士로 爲業’을 하고 있다거나<sup>36)</sup> ‘忠義의 士로서 같은 倡義의 뜻을 榜文으로 내걸어 군대를 모았다’<sup>37)</sup>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童蒙을 訓導하는 것이 나의 業’<sup>38)</sup>이라고 하고 있음을 보면, 그는 어느 정도 유교적 교양을 갖춘

32) 申福龍, 『전봉준평전』, p.60.;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3), pp.27-8.

33) 柳永益, 앞의 글, pp.8-19. 참조.

34) 「全瑋準供招」, 初招(1896년 2월 9일)

문:그 일대의 백성들이 모두 수탈의 피해를 입었는데 어쩌 너만 홀로 피해가 없었는가?

답:나는 선비로서 이른바 전답이라고는 겨우 3두락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35) 「全瑋準供招」, 初招(1896년 2월 9일)

문:일대의 백성들이 모두 수탈의 피해를 입었는데, 너만 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히 의심스럽다.

답:나는 아침밥, 저녁죽으로 생활하는 터에 어쩌 수탈 당할 것이 있겠는가?

36) 「全瑋準供招」, 初招(1896년 2월 9일)

문:하는 일이 무엇인가?

답:선비로서 일하고 있다.

37) 「全瑋準供招」, 初招(1896년 2월 9일)

문:제차 군대를 모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규합하였는가?

답:군대를 모을 적에 충의의 선비로서 같은 창의의 뜻을 방문으로 내걸었다.

지방의 선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8, 9세기에 조선 사회의 신분제는 크게 동요하고 있거니와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해서 상층으로 신분상승을 하는 자가 있는 한편 반대로 양반가의 신분에서 몰락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특히 양반신분에서 몰락한 이른바 寒儒, 貧士에 의해 변란이 주도되었던 사례도 많았다.<sup>39)</sup> 이를 감안한다면 전봉준은 신분제 변동과정에서 석출된 전형적인 한유. 빈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丙戌譜』의 내용을 통해서 전봉준 當代를 중심으로 그의 가계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봉준은 哲宗 乙卯年, 즉 1855년 12월 3일(음력) 부친인 全基昶과 모친인 彦陽 金氏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성년이 되어 그보다 4살 위인 여산 송씨 두옥의 딸(1851년 8월 16일생)과 결혼을 하였고 그녀와 사이에 두 딸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의 나이 23세 때인 1877년 4월 24일에 전처와 사별을 하고, 그의 처를 태인 산내면 소금동에 있는 할머니 묘소 밑에 안장을 하였다. 그 후 그는 남평 이씨 문기의 딸을 후실로 맞아들여 슬하에 東一, 東吉 두 아들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丙戌譜』에는 전봉준은 동일이라는 아들 하나만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의 생년은 1886년 생으로 이 『丙戌譜』가 간행이 된 해에 태어났다. 그런데 전봉준의 큰집인 泰鎬의 家は 자식이 없어 동길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동길이 봉준의 자식인지 사촌 동생인 斗鎬의 자식인지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집에 양자를 입적시킬 때에는 작은 집의

38) 「全璋準供招」, 初招(1896년 2월 9일)

문:너는 고부에 살 때 동학을 가르친 바가 없는가?

답:나는 훈장이어서 어린아이들과 관계하였으나 동학을 가르친 바는 없다.

39) 배항섭,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1894년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고동환, 「대원군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1894년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를 참조바람.

장자를 입적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보면 동길은 전봉준의 장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전봉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와도 상통한다고 보인다.

#### 4. 全瑋準의 出生地에 대한 검토

##### 1) 出生地에 대한 기존의 제설

전봉준은 1855년 12월 3일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많은 이설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전봉준의 출생지에 관한 제설을 살펴 보면, 대체로 井邑縣 梨坪面(당시 古阜郡 宮東面) 長內里 鳥巢마을이라는 설, 全州태생이라는 설, 井邑縣 山外面 東谷里 知琴谷(지금설)이라는 설, 井邑縣 德川面 柿木里(감냉기)라는 설, 그리고 高敞縣 德井面 竹林里 堂村이라는 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정읍현 이평면(당시 고부군 궁동면) 장내리 조소마을이라는 설은 일찍이 김상기 선생이 주장한 것으로<sup>40)</sup> 갑오년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날 당시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 살았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 때 이곳 출생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곳에는 전봉준 장군의 舊居가 지방문화재 19호로 지정되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1974년에 이 구거는 보수를 하었는데 보수될 당시 ‘戊寅(1878) 2월 26일’이라는 干支가 적혀 있는 上樑文이 나왔거니와 전봉준은 심문을 받을 당시 농민혁명으로 고부의 집이 모두 불에 탔다고 말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張奉善은 「全瑋準 實記」에서 전봉준이 泰仁縣

40) 金岸基, 『東學과 東學亂』(한국일보사, 1975), p.109.

甘山面 桂峰里(현 정읍군 甘谷面 桂龍里)에서 고부군 궁동면 陽橋里로 移居하였다고 하고 있으며<sup>41)</sup>, 邕京源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 양교리에서 다시 조소리로 이사하였다고 한다.<sup>42)</sup>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소마을은 전봉준이 적어도 23세 이후 거처한 곳으로 보이며<sup>43)</sup>, 따라서 이 곳 출생설은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주 태생설은 張奉善이 주장한 것으로, 전봉준 장군은 전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태인현 감산면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sup>44)</sup> 이에 대해서 일찍이 金義煥은 훗날 전주 인사들이 전봉준 장군을 崇慕하여 꾸며낸 설이라 하고 있지만<sup>45)</sup>, 전주는 전봉준 장군이 한 때 ‘龜尾聖人出(구미에서 성인이 나온다)’이라는 참위설에 따라 후에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金開南, 宋熹玉과 함께 잠시 全州郡 鳳翔面 龜尾里에 移住하여 머문 곳<sup>46)</sup>으로 전연 연고가 없던 곳은 아니며, 전주 태생설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연고와 관련해서 전봉준이 태인현 감산면 계봉리에 살 때, 전주에서 이사해 왔다고 하여 전주출신으로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47)</sup> 아무튼 전주 태생설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정읍군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이라는 설은 崔玄植의 주장으로<sup>48)</sup> 이는 전봉준 장군이 訊問을 받을 당시 주소를 이 곳으로 대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41) 張奉善, 「全瑋準 實記」, 『井邑郡誌』(履露齋, 1936), p.381.

42) 崔玄植, 앞의 책, p.230.

43) 『丙戌譜』에 의하면, 전봉준 장군이 전처와 사별을 한 23세 무렵에는 태인 산내면 부근(아마도 태인 산외면 동곡리로 추정됨)에 살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최현식은 전봉준이 고부 궁동면으로 이사해 온 것은 35세 경으로 보고 있다. 崔玄植, 앞의 책, p.231.

44) 張奉善, 「全瑋準 實記」

45) 金義煥, 『全瑋準傳記』(서울:정음사, 1974), p.41.

46) 金庠基, 앞의 책, pp.109-110. 최현식은 전봉준이 어려서 부모를 따라 전주 구미리로 이거했다고 한다.(崔玄植, 앞의 책, p.230)

47) 崔玄植, 앞의 책, p.231.

48) 崔玄植, 앞의 책, p.226.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실이라는 곳은 전봉준의 마지막 거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곳이 그의 生家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며<sup>49)</sup>, 최현식 역시도 이후 泰仁 甘山에서 18세 때쯤 이곳으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수정을 하고 있음을 보면<sup>50)</sup> 이곳 역시도 출생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정읍군 덕천면 시목리라는 설은 幽京源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복룡 교수가 제시한 설이다.<sup>51)</sup> 웅정원은 그의 할아버지인 幽宅奎로부터 전봉준 장군이 시목리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며, 웅택규는 당시 정읍에서 손꼽히는 문장가였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당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전봉준과도 친숙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 교수는 이후 그의 연구에서 감냉기 역시도 한때 거처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출생지는 아니었다고 수정을 하고 있다.<sup>52)</sup>

마지막으로 고창현 덕정면 죽림리 당촌 태생설은 일찍이 『東學史』를 쓴 吳知泳이 주장하였다.<sup>53)</sup> 이에 대해서 김의환은 정확한 고증은 후일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곳 당촌에는 天安 全氏 20여 戶가 모여 살았고 또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의 두목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村老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봉준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곳이라 하여 어느 정도 긍정을 한 바가 있다.<sup>54)</sup> 또한 정읍군 산외면 동곡태생을 주장했던 최현식도 이후 전봉준 先代의 世居地가 고창군 新林面 碧松里였고,

49) 申福龍,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서울:養英閣, 1982), p.36. 특히 신복룡은 답사를 통해 전봉준의 마지막 거처도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이 아니라 그 곳에서 2Km쯤 떨어진 산외면 동곡리 원동골이라 하고 있다.

50) 崔玄植, 앞의 책, pp.230-231.

51) 신복룡, 앞의 책, pp.36-7.

52) 신복룡, 『전봉준평전』(서울:지식산업사, 1996), pp.56-7.

53) 吳知泳, 『東學史』(서울:영창서관, 1973), p.161. ‘전봉준 선생은 본래 전라도 고창현 덕정면 당촌태생으로 世代 士林家 사람이다’

54) 金義煥, 앞의 책, pp.41-2.

先代の 墓가 모두 벽송리 承判洞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종래의 주장을 바꾸어 전봉준의 당촌 태생설이 정설로 인정된다고 하였거니와<sup>55)</sup> 이 설은 기존의 여타의 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진데 비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편 지금도 당촌에 가면 전봉준 장군이 태어났다는 집의 터를 확인할 수 있고, 마을 입구에는 그의 부친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서당도 찾을 수 있다는 증언도 있거니와<sup>56)</sup> 특히, 근년에는 『丙戌世譜』가 세상에 빛을 보게되면서 이 내용을 통한 전봉준 장군의 고창 당촌 태생설은 더욱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으며, 정읍군 덕천면 시목리 출생설을 주장했던 신복룡 교수도 근자에는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sup>57)</sup>

## 2) 전봉준 가계의 이동경로와 출생지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전봉준 장군의 집안을 논할 때,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은 전봉준 그 자신과 그의 부친 全彰赫에 대한 것이 고작이었고, 그 또한 매우 불확실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제 『丙戌譜』의 내용을 통해서 전봉준 자신의 신상은 물론 그의 선대에 대한 집안의 내력까지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의 가계의 이동경로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전봉준 장군의 집안이 전라도지방에 정착한 것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전봉준의 6대조인 厚徵代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丙戌譜』에 厚徵과 그의 妻의 묘지가 泰仁縣 古縣面에 위치하며, 그 후손들의 묘지가 모두 전라도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전라도로 이주하기 전에는 松庵公 五常의 증조부인 連山公 敏이 連山縣監을 지내고 조

55)崔玄植, 앞의 책, p.230-1.

56)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창작과 비평사, 1993), p.29.

57)신복룡, 앞의 책, p.57.

부인 欽이 公州判官을 지낸 것으로 보아<sup>58)</sup> 이들 집안은 주로 충청도를 거점으로 세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후집대에 이들 집안은 태인에 자리를 잡은 후, 남원 순창 등지를 거쳐 전봉준의 증조부인 道臣代에 이르러서는 임실 강진면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厚徵의 아들 萬紀夫婦의 묘가 南原 北面에 위치하고, 그의 손자인 相圭부부의 묘가 淳昌 下峙洞에, 그리고 道臣부부와 그의 長子인 碩雲의 묘지가 모두 임실 강진면 栗峙에 있음에서 추정할 수가 있다. 물론 묘지가 위치한 곳이 반드시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통수단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葬地와 거주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이러한 추정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집안은 2代 정도에 걸쳐 임실 강진면에서 거주하였다. 그렇지만 일찍이 道臣의 아우 德臣은 井邑 西二面으로 이주해 나가<sup>59)</sup>, 또한 도신의 자식대에 이르러서는 碩雲의 동생 즉, 전봉준의 祖父인 碩豐의 묘지가 古阜 南部面에 있음을 보아<sup>60)</sup>, 全瑋準家도 조부 때에 큰집과 떨어져 고부군으로 이주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증조부, 조부대에 전봉준의 집안은 임실, 정읍, 고부 등지에 각기 흩어져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전봉준의 父親代에 이르러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高敞 德井으로 모두 이주하여 합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씨 집안의 제일 장손인 基弼과 그의 妻의 묘가 德井 回巖峙에 있음으로 보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실에서 고창 덕정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고, 전봉

58) 欽의 묘지는 溫陽 東上面에 있고 그의 부인의 묘도 溫陽 南上面에 있음.

59) 德臣의 묘지와 德臣의 아들 碩文의 墓 및 손자인 基煥의 묘가 井邑 西二面 鴨谷에 있음으로 보아 德臣의 家は 순창에서 정읍 서이면으로 이주하여 3代에 걸쳐 이 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60) 『天安全氏世譜壬戌譜』에 보면, 碩豐의 묘지는 高敞 脈母巖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확실치는 않지만 『丙戌譜』에 기록된 그의 묘지에 관한 내용 가운데 땅이 무너졌다(破地)라는 내용이 있음과 관련해 보면, 아마 그의 묘지는 원래 고창에 있다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후 고부로 이장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준의 작은 아버지인 基性의 묘도 역시 같은 곳에 있음으로 보아 고부에서 고창 덕정으로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碩文의 자손인 基煥의 家와 基守의 家 역시도 이들 묘가 모두 堂村과 西山 등지에 위치함으로 보아, 정읍에서 고창 덕정으로 이주해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전봉준 장군의 부친인 基稔의 묘지가 世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합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基稔의 친동생인 基性뿐 아니라 사촌 큰형인 基弼의 家 그리고 6촌인 基煥, 基守의 집안까지<sup>61)</sup>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모여든 것은 분명 우연은 아니며, 서로간에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基稔 역시도 동생인 基性和 함께 같은 무렵에 고부에서 이곳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들 송암공과 자손들은 전봉준의 부친대에 고창 당촌에 정착한 후 3대째 이곳을 터전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거니와, 특히 기환의 자손들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직후까지도 이곳에 계속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2)</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봉준 장군의 집안은 조부대까지만 해도 임실, 정읍, 고부 등지에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부친인 基稔대에 이르러서 모두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이주하여 합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당시 이 곳에 천안 전씨 20여 호가 살았다는 증언과도 일치하거니와 위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전봉준 장군이 바로 이곳

61) 基煥의 墓는 그의 부친인 碩文과 같이 井邑 西二面 鴨谷에 있음으로 보아 그는 堂村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그의 妻인 全州 崔氏의 墓는 書堂村에 있음으로 미루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62) 전봉준과 같은 代인 基煥의 자식들, 즉 宗祐, 宗烈, 宗吉, 宗喆의 묘지가 모두 堂村 혹은 그 부근에 있거니와(世系圖 참조), 동학농민운동 직후 당촌에 살던 전씨 집안이 멸족을 당했다는 전성태의 증언(이기화, 앞의 글, p.21)에서 이들 집안은 동학농민운동 직후까지도 이 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禍를 당했던 사람들은 基煥의 손자인 雲龍, 用沫, 祥洙와 그의 자식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촌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앞항에서도 살펴듯이 당촌 이외 여타의 출생지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 일찍이 吳知泳이 주장한 고창 당촌 태생설만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보면 전봉준 장군이 고창현 덕정면 당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天安全氏世譜丙戌譜』를 통해서 전봉준 장군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으로 삼을까 한다.

먼저 전동근씨가 소장해 오고 있던 1886년에 간행이 된 『天安全氏丙戌譜』는 현전하는 『天安全氏世譜』 가운데 唯一本이며, 여기에 수록된 文孝公派의 枝派인 松庵公派 10世孫인 전병호는 출생연도, 혼인관계, 출생지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전봉준 장군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丙戌譜』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전봉준(전병호)의 가계와 가문을 보면, 그는 천안 전씨 文孝公派의 枝派인 松庵公(五常) 孫派에 속해 있고, 천안 전씨 시조인 聶으로부터는 53세손이며, 송암공으로부터는 10세손으로 1855년 12월 3일에 부친인 전기창과 모친인 언양 김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성년이 되어 그는 그보다 4살 위인(1851년 8월 5일생) 여산 송씨 두옥의 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젊은 나이에(1877년 4월 24일, 전봉준의 나이 23세 때) 처와 사별을 하고, 태인 산내면 소금동에 있는 할머니 묘소 밑에 안장을 하였다. 이후 전봉준은 남평 이씨 문기의 딸과 재혼을 하였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편 전봉준의 10대조인 松庵公 五常은 宣務郎을, 오상의 아들 誠과 전봉

준의 고조부인 相圭가 通德郎을, 그리고 상규의 동생인 宗洙가 司憲府 監察의 벼슬을 지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봉준의 가문은 본래 양반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증조부인 道臣代 이하의 인물 가운데 初試조차도 합격한 인물이 보이질 않는데, 18, 9세기 조선사회의 신분제 변동과정에서 많은 몰락 양반들이 석출되는 것과 같이 그의 집안도 이러한 사회의 커다란 조류에 휩쓸려 이후 점차 몰락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봉준 자신은 스스로 ‘士를 爲業으로 하고 있다’거나 ‘童蒙을 訓導하는 것이 나의 業’이라고 하고 있음에서 어느 정도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방 선비였다고 할 것이며, 당시 양반신분에서 몰락한 寒儒, 貧士들에 의해 변란이 주도되었던 많은 사례에서 보듯 그 역시도 이러한 인물들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정읍현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출생설, 전주 태생설, 정읍현 산의면 동곡리 지금실 출생설, 정읍현 덕천면 시목리 출생설, 고창현 덕정면 죽림리 당촌 출생설 등 지금까지 많은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丙戌譜』를 통해 그의 가계의 이동을 보면 전봉준의 6대조인 厚徵代에 태인 부근에 자리를 잡은 후, 남원, 순창 등지를 거쳐 증조부인 道臣代에 임실 강진면으로 이거하여 2代 정도를 머문 뒤, 이들 집안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부친대에 다시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온 집안 모두가 다시 모여 생활의 터전을 이루어 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전봉준은 바로 이곳 고창 당촌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거나와 앞의 여러 출생지설 가운데 당촌 태생설 이외의 여타 설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일찍이 吳知泳이 주장한 고창 당촌 태생설만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과 관련해서 보면 전봉준 장군이 고창 덕정면 당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안(1차분)

| 안전<br>번호 | 접 수<br>연월일 | 신 청 자       |    | 참 여 자 |          |            |                                         | 유족명단                                             | 결정및등록<br>심사<br>분과위원회<br>심사결과 |
|----------|------------|-------------|----|-------|----------|------------|-----------------------------------------|--------------------------------------------------|------------------------------|
|          |            | 성 명         | 관계 | 성명    | 본적       | 참여<br>지역   | 참여내용<br>및 행적                            |                                                  |                              |
| 1        | '05.4.30   | 이득만<br>외 2명 | 손자 | 이기학   | 전북<br>정읍 | 황토현        | 정읍 황토현전투<br>참여후 행방불명                    | 이득만<br>· 이복만<br>· 이순                             | 認 定                          |
| 2        | 〃          | 손홍열<br>외 5명 | 〃  | 손화중   | 전북<br>정읍 | 황토현<br>나 주 | '동학거과'로<br>참여한 뒤 체포<br>되어 처형            | 손홍열<br>· 손홍철<br>· 손화입<br>· 손순례<br>· 손정자<br>· 손오금 | 認 定                          |
| 3        | 〃          | 김이남<br>외 2명 | 〃  | 김영달   | 전북<br>고창 | 고 창<br>영 광 | 문서송달 임무<br>수행중 체포<br>되어 처형              | 김이남<br>· 김동빈<br>· 김동환                            | 認 定                          |
| 4        | 〃          | 송기평<br>외 1명 | 〃  | 송대화   | 전북<br>정읍 | 고 부<br>나 주 | 사발통문 작성시<br>부터 가담,<br>나주성전투 패배<br>이후 피신 | 송기평<br>· 송준자                                     | 認 定                          |
| 5        | 〃          | 김진용<br>외 1명 | 〃  | 김천일   | 전북<br>고창 | 고 창<br>무 장 | 형 김규일과<br>함께 참여후<br>체포되어 처형             | 김진용<br>· 김광용                                     | 認 定                          |
| 6        | 〃          | 박현근         | 〃  | 박연천   | 전북<br>김제 | 황토현<br>태 인 | 서원길과 함께<br>참여 하였으며,<br>패배이후 도피          | 박현근                                              | 認 定                          |
| 7        | 〃          | 서봉권<br>외 1명 | 〃  | 서원길   | 전북<br>김제 | 황토현<br>태 인 | 박연천과 함께<br>참여 하였으며,<br>패배이후 도피          | 서봉권<br>· 서순금                                     | 認 定                          |
| 8        | 〃          | 김병훈<br>외 2명 | 〃  | 김기준   | 전북<br>김제 | 백 산        | 고부 백산전투<br>참여후 체포되어<br>처형               | 김병훈<br>· 임고래<br>· 임준금                            | 認 定                          |
| 9        | 〃          | 황일제<br>외 1명 | 〃  | 황화성   | 전북<br>고창 | 전 주<br>무 장 | 형 황희성과 무<br>장기포 및 전주성<br>전투에 참여 전사      | 황일제<br>· 황성례                                     | 認 定                          |
| 10       | '05.6.15   | 서병모<br>외 5명 | 〃  | 서우순   | 충북<br>청원 | 청 주<br>보 은 | 청주성전투<br>참여후 체포                         | 서병모<br>· 서병준<br>· 서병택<br>· 서영희<br>· 서순희          | 認 定                          |

| 안전<br>번호 | 접 수<br>연월일 | 신 청 자       |    | 참 여 자 |          |               |                                        | 유 족 명 단                                                 | 결정및등록<br>심사<br>분과위원회<br>심사결과 |
|----------|------------|-------------|----|-------|----------|---------------|----------------------------------------|---------------------------------------------------------|------------------------------|
|          |            | 성명          | 관계 | 성명    | 본적       | 참여<br>지역      | 참여내용<br>및 행적                           |                                                         |                              |
| 11       | '05.6.15   | 서정완<br>의 3명 | 손자 | 서상호   | 충북<br>청원 | 문의<br>청주      | 1894년 8월 이<br>후 문의점주로<br>활동            | 서정완·서정화<br>서정애·서정기                                      | 認 定                          |
| 12       | '05.6.17   | 위상환<br>의 1명 | 〃  | 위계항   | 전남<br>장흥 | 장흥            | 장흥 석대전투<br>참여후 체포<br>되어 처형             | 위상환 · 위금임                                               | 認 定                          |
| 13       | 〃          | 이위경         | 〃  | 이병인   | 경기<br>화성 | 예산<br>수원      | 예산전투에서<br>부상당한 후<br>체포                 | 이위경                                                     | 認 定                          |
| 14       | 〃          | 송중수<br>의 8명 | 〃  | 송국섭   | 전북<br>정읍 | 고부<br>우금<br>치 | 사발통문 작성<br>시 부터 참여,<br>농민군 해산이<br>후 체포 | 송중수 · 송윤이<br>송정이 · 송옥자<br>송옥련 · 송담용<br>송옥희 · 송상석<br>송신석 | 認 定                          |
| 15       | 〃          | 백임선<br>의 3명 | 〃  | 백좌인   | 전남<br>장흥 | 장성<br>장흥      | 장흥 석대전투<br>참여후 벽사역<br>에서 처형            | 백임선 · 백청선<br>백귀래 · 김문수                                  | 認 定                          |
| 16       | 〃          | 김현호         | 〃  | 김용택   | 전남<br>장성 | 영광<br>합평      | 장성 황룡촌전<br>투참여후 부상                     | 김현호                                                     | 認 定                          |
| 17       | 〃          | 백갑선<br>의 1명 | 〃  | 백재인   | 전남<br>장흥 | 강진            | 장흥 석대전투<br>참여후 체포<br>되어 처형             | 백갑선 · 백유선                                               | 認 定                          |
| 18       | 〃          | 이무종<br>의 1명 | 〃  | 이준용   | 강원<br>춘천 | 공주            | 공주일대 전투<br>에서 다리 부<br>상후 귀가            | 이무종 · 이예종                                               | 認 定                          |
| 19       | 〃          | 이왕재<br>의 3명 | 〃  | 이기면   | 전북<br>임실 | 남원            | 민보군에 체<br>포, 태형 당한<br>뒤 장독으로<br>사망     | 이왕재 · 이균재<br>이택재 · 이지재                                  | 認 定                          |
| 20       | 〃          | 정명기<br>의 6명 | 〃  | 정근영   | 전북<br>고창 | 무장<br>우금<br>치 | 전봉준의 비서<br>로활동, 농민<br>군 해산 이후<br>피신    | 정명기 · 정상기<br>정남기 · 정기백<br>정문기 · 정기수<br>정기섭              | 認 定                          |

| 안건<br>번호 | 접 수<br>연월일 | 신청자         |    | 참 여 자 |          |          |                                  | 유 족 명 단                       | 결정및등록<br>심사<br>분과위원회<br>심사결과 |
|----------|------------|-------------|----|-------|----------|----------|----------------------------------|-------------------------------|------------------------------|
|          |            | 성명          | 관계 | 성명    | 본적       | 참여<br>지역 | 참여내용<br>및 행적                     |                               |                              |
| 21       | '05.7.6    | 박현석         | 손자 | 박병하   | 전남<br>무안 | 무안       | 무안집주 배상옥<br>과 함께 활동후<br>피신       | 박현석                           | 認 定                          |
| 22       | "          | 이종찬<br>의 4명 | "  | 이성호   | 전남<br>장흥 | 장흥       | 장흥 석대전투에<br>참여, 체포되어<br>처형       | 이종찬 · 이종근<br>이안자 · 이종터<br>이귀임 | 認 定                          |
| 23       | "          | 변한중<br>의 2명 | "  | 변규창   | "        | "        | 이방언의 호위장<br>으로 석대전투에<br>참여한 후 피신 | 변한중 · 변한원<br>변한홍              | 認 定                          |
| 24       | "          | 김연규         | "  | 김학삼   | "        | "        | 장흥 옥산전투<br>참여후 체포되어<br>벽사역에서 처형  | 김연규                           | 認 定                          |
| 25       | "          | 김성수<br>의 2명 | "  | 김재황   | "        | "        | 장흥 석대전투에<br>참여후 체포되어<br>처형       | 김성수 · 김삼수<br>김순애              | 認 定                          |
| 26       | "          | 변한철<br>의 2명 | "  | 변규상   | "        | "        | "                                | 변한철 · 변한중<br>변영옥              | 認 定                          |
| 27       | "          | 김경신         | "  | 김영삼   | "        | "        | "                                | 김경신                           | 認 定                          |
| 28       | "          | 김삼식         | "  | 김철현   | "        | "        | "                                | 김삼식                           | 認 定                          |
| 29       | "          | 이동흙<br>의 4명 | "  | 이겸호   | "        | "        | 장흥 석대전투<br>에<br>참여한 뒤 피신         | 이동흙 · 이광흙<br>이정신 · 이남흙<br>이용진 | 認 定                          |
| 30       | "          | 노영섭         | "  | 노익호   | 전남<br>화순 | 고부       | 백산봉기 이후<br>전 기간에 참여<br>활동        | 노영섭                           | 認 定                          |

| 안전<br>번호 | 접 수<br>연월일 | 신 청 자       |    | 참 여 자 |          |            |                                                 | 유 족 명 단                                                 | 결정및등록<br>심사<br>분과위원회의<br>심사결과 |
|----------|------------|-------------|----|-------|----------|------------|-------------------------------------------------|---------------------------------------------------------|-------------------------------|
|          |            | 성명          | 관계 | 성명    | 본적       | 참여<br>지역   | 참여내용<br>및 행적                                    |                                                         |                               |
| 31       | '05.7.6    | 한우희<br>외 2명 | 손자 | 한달문   | 전남<br>화순 | 나 주        | 나주지역에서<br>활동중 민보군에<br>체포되어 옥사                   | 한우희 · 한만효<br>한봉용                                        | 認 定                           |
| 32       | 〃          | 배석상         | 〃  | 배병환   | 전남<br>무안 | 무 안        | 4형제가 함께<br>참여한 뒤 체포<br>되어 처형                    | 배석상                                                     | 認 定                           |
| 33       | 〃          | 배석윤         | 〃  | 배병현   | 〃        | 〃          | 〃                                               | 배석윤                                                     | 認 定                           |
| 34       | 〃          | 배석영         | 〃  | 배병만   | 〃        | 〃          | 〃                                               | 배석영                                                     | 認 定                           |
| 35       | 〃          | 윤재휴<br>외 4명 | 〃  | 윤주은   | 전남<br>강진 | 장 흥<br>강 진 | 장흥 석대전투<br>참여후 강진 구<br>강포에서 체포되<br>어 처형         | 윤재휴 · 윤재풍<br>윤재주 · 윤난례<br>윤만례                           | 認 定                           |
| 36       | 〃          | 윤재진<br>외 4명 | 〃  | 윤태환   | 〃        | 〃          | 〃                                               | 윤재진 · 윤재본<br>윤재례 · 윤재임<br>윤삼례                           | 認 定                           |
| 37       | 〃          | 김자중         | 〃  | 김복환   | 전남<br>장성 | 함 평        | 공주전투 패배<br>이후 함평전투<br>에서 전사                     | 김자중                                                     | 認 定                           |
| 38       | 05.7.29    | 임준호<br>외 8명 | 〃  | 임노홍   | 전북<br>정읍 | 고 부<br>우금치 | 사발통문 작성<br>시부터 참여,<br>우금치 패전후<br>피신             | 임준호 · 임금례<br>임감순 · 임양순<br>임화심 · 임창호<br>임방호 · 임영여<br>임경순 | 認 定                           |
| 39       | 〃          | 송기선<br>외 1명 | 〃  | 송주성   | 전북<br>정읍 | 고 부<br>우금치 | 사발통문 작성<br>시부터 참여,<br>우금치 패전후<br>황해도<br>구월산에 피신 | 송기선 · 송기방                                               | 認 定                           |
| 40       | 〃          | 한상우<br>외 2명 | 〃  | 한경숙   | 전북<br>전주 | 고 부<br>우금치 | 우금치 패전 후<br>도피하여 완주<br>군 조촌면에 정<br>착            | 한상우 · 한강우<br>한경우                                        | 認 定                           |

| 안전<br>번호 | 접 수<br>연월일 | 신 청 자       |    | 참 여 자 |          |               |                                        | 유 족 명 단                                          | 결정및등록<br>심사<br>분과위원회<br>심사결과 |
|----------|------------|-------------|----|-------|----------|---------------|----------------------------------------|--------------------------------------------------|------------------------------|
|          |            | 성명          | 관계 | 성명    | 본적       | 참여<br>지역      | 참여내용<br>및 행적                           |                                                  |                              |
| 41       | '05.7.29   | 최석기<br>외 3명 | 손자 | 최정삼   | 전북<br>정읍 | 고부<br>나주      | 무장기포부터 참<br>여, 농민군 패배<br>후 나주로 피신      | 최석기 · 최준기<br>최옥기 · 최흥기                           | 認 定                          |
| 42       | 〃          | 박오서         | 〃  | 박충양   | 전북<br>완주 | 삼례            | 삼례봉기부터 참<br>여, 우금치 패전<br>이후은신증 자결      | 박오서                                              | 認 定                          |
| 43       | 〃          | 서춘수<br>외 1인 | 외손 | 김경수   | 전북<br>고창 | 전주            | 전주성전투에서<br>부상 후 피신                     | 서춘수 · 김대진                                        | 認 定                          |
| 44       | 〃          | 김병학         | 손자 | 김행범   | 전북<br>부안 | 고창<br>영광      | 은신증 민보군에<br>체포되어 처형                    | 김병학                                              | 認 定                          |
| 45       | 〃          | 김재수<br>외 4명 | 〃  | 김수병   | 전북<br>고창 | 고창            | 전주성전투 패배<br>이후 도피중<br>수성군에 체포되<br>어 처형 | 김재수 · 김재환<br>김재곤 · 김재성<br>김금자                    | 認 定                          |
| 46       | '05.8.1    | 이창현<br>외 7명 | 〃  | 이인숙   | 전남<br>장흥 | 장흥            | 장흥 석대전투<br>에서 전사                       | 이창현 · 이증철<br>이일성 · 이희철<br>이모래 · 이병래<br>이병금 · 이정애 | 認 定                          |
| 47       | 〃          | 손용채<br>외 2명 | 〃  | 손상옥   | 전남<br>광양 | 광양            | 섬진강전투에서<br>전사                          | 손용채 · 손봉심<br>손봉림                                 | 認 定                          |
| 48       | 〃          | 유길홍         | 〃  | 유광화   | 전남<br>나주 | 화순<br>도곡      | 화순전투에서<br>전사                           | 유길홍                                              | 認 定                          |
| 49       | 〃          | 문순매         | 손녀 | 문달현   | 전남<br>장흥 | 장흥            | 장흥 석대전투<br>에서 체포되어<br>벽사역에서 처형         | 문순매                                              | 認 定                          |
| 50       | '05.8.19   | 배춘근<br>외 2명 | 손자 | 배성기   | 충북<br>보은 | 우금<br>치<br>보은 | 돈론전투, 우금<br>치 전투에 참여<br>후 복실전투에서<br>전사 | 배춘근 · 배순근<br>배송자                                 | 認 定                          |



## 동학관련 단체 위원회 위원 명단

| 연번 | 단체명(대표)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1  | 사)동학농민혁명<br>기념사업회      | 이영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br>1가 106(기업은행 4층) | 232-1894 |                 |
| 2  | 사)정읍농민혁명<br>계승사업회      | 조광환 | 전북 정읍시 연지동 39-6<br>(구 정읍시의회별관)    | 533-9182 |                 |
| 3  | 고창동학농민혁명<br>기념사업회      | 진윤식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br>236-5 (고창문화원)   | 564-2340 |                 |
| 4  | 부안<br>백산정보존회           | 김영수 |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br>백산정보존회          | 582-2005 | 016-684<br>2005 |
| 5  | 완주(삼례) 동학농<br>민혁명기념사업회 | 이민교 | 전북 완주군 삼례읍<br>구와리 480             | 246-1275 | 016-600<br>9354 |
| 6  | 전주 동학혁명<br>기념관         | 표용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br>3가 76-2         | 231-3219 |                 |
| 7  | 남원 동학농민<br>혁명기념사업회     | 한병옥 | 전북 남원시 하정동 192-4                  | 633-6662 |                 |



東學農民革命  
新發掘資料學術大會論文  
제 1 집

---

2006년 1월 17일 인쇄  
2006년 1월 20일 발행

발행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발행인 : 소장 한인상  
편집인 : 학예연구사 이영일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580 - 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  
전화 : 063-536-2310, 1894

인쇄처 : 제일종합상사  
인쇄인 : 김성영  
주소 : 전북 정읍시 수성동 618  
전화 : 063-533-4670

비매품

